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 KTX

July 2021



앱을 내려받으면  
무료로 전자책을  
볼 수 있습니다.



## 연천

시간이 남긴 무늬를 찾아, 연천 여행  
바닷가 사찰 양양 낙산사의 위로  
탄광에서 캐낸 진실의 그림, 황재형 화백





2021 Summer Collection  
**PARKLAND**



파크랜드를 만나면  
일상은 여행이 된다

JULY 2021

# KTX

## 072

▶ **테마 여행**

태고에서 미래까지, 연천 시간 여행

경기도 연천 옥녀봉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 신구철



# AHILO

홈페이지 [www.ahilo.co.kr](http://www.ahilo.co.kr) | 대표 전화 02 2256 7901 | 개설킨문의 02 2254 4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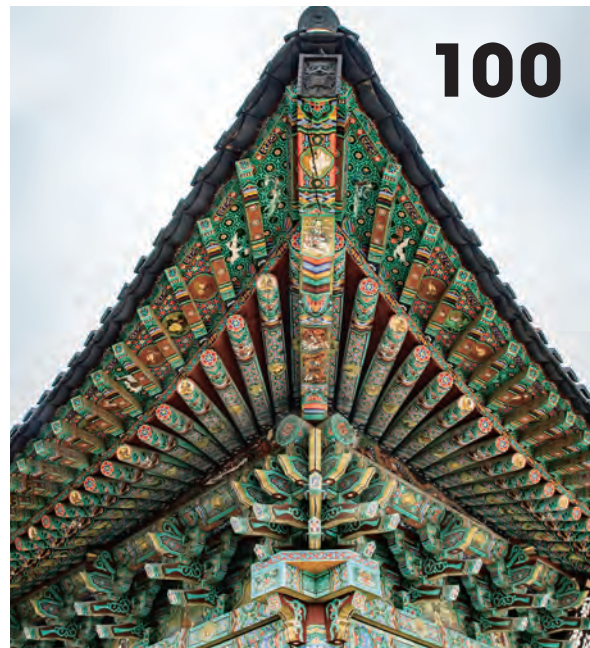
026

**전국 맛집 탐방**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충북 제천의 빙수 맛집을 발견했다.



066

**사진이 그린 여행** 여름 야생초가 만발한 해발 1164미터 강원도 인제 곰배령을 올랐다.



100

**이 계절 이 여행** 복잡하게 얽힌 마음에 쉼이 필요한 날, 강원도 양양 낙산사로 향했다.



132

**작가의 방** 실제 광부가 되어 어둠 속에서 캔 진실을 화폭에 담아 온 황재형 화백을 만났다.

# 당신의 직수, 필터 속까지 깨끗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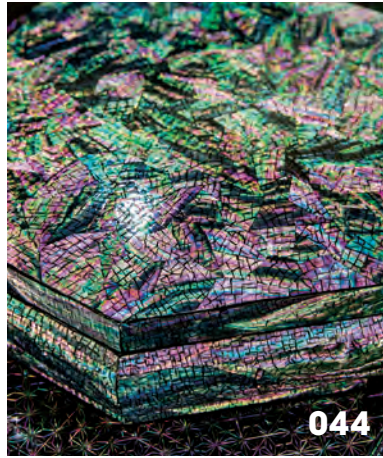


쓰면 쓸수록 쌓이는 필터 속 찌꺼기  
'국내 유일, 필터 역세척'으로  
필터 속 찌꺼기까지 살균 세척하는 - 셀프  
이제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드세요

필터 속까지 살균하는  
SELF CARE  
**셀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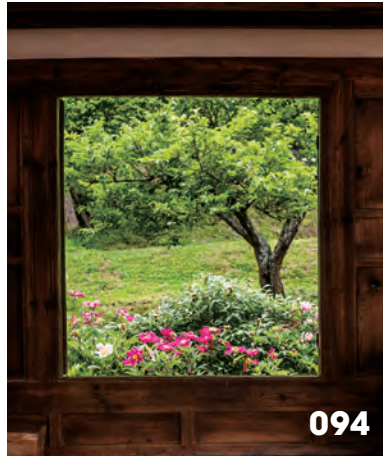
렌탈 및 구입 상담 1588-2290

# Contents



044

**백년가게·백년소공인**  
100년의 꿈을 품은 경기도 양주·의정부·포천의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찾았다.



094

**여행자의 방**  
경북 청송 덕천마을, 고풍스러운 멋을 지닌 한옥 스테이 세 곳을 소개한다.



112

**슬로 여행** ㉠  
충남 예산을 천천히 걸었다. 느려서 풍요로워지는 여행이었다.

## COVER STORY



50만 년 전 용암이 굳어 형성된 재인폭포가 오늘도 물줄기를 쏟아낸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024 생활의 지혜**  
폭우에도 옷과 신발은 물론 마음까지 보호하는 비 대비 아이템을 모았다.

**036 인물 탐구**  
가장 혁명적인 혁명, 프랑스대혁명. 로베스피에르는 평등한 세상을 꿈꿨다.

**038 우연한 발견**  
'벽돌폰'에서 스마트폰까지, 흥미로운 휴대전화 변천사를 알아봤다.

**040 에디터 체험기**  
열량 낮은 식재료의 대명사 곤약이 다양한 메뉴로 탄생해 입맛을 유혹한다.

**122 걷기 여행** ㉠  
경남 거제의 국가어항능포항 일대의 아름다운 풍경에 기대 걸고 왔다.

**142 문화 돋보기**  
세계가 주목하는 K-뮤직비디오, 그 30년 역사를 살펴봤다.

**146 만나고 싶은 얼굴**  
〈PD수첩〉 전성기를 이끈 송일준 전 PD가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왔다.

## KORAIL INFORMATION

- 172 한국철도 소식
- 178 시간표
- 188 편의 시설 및 부가서비스
- 190 열차 이용 안내
- 192 비상시 행동 매뉴얼



메이크업  
하지 않아도  
빛나기 시작하는 피부

집에서 완성하는  
럭셔리 라이프  
결점없는 피부를 위한  
LED케어

**JULY 2021**

2021년 7월호 제18권 제7호 통권(제208호) 2021년 7월 1일 발행

<b>발행인</b>	손병석(한국철도공사 사장)	
<b>편집</b>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1001-3호	
편집인	이민성 leems@swadcom.co.kr	
편집국장	이영란 anayoung22@swadcom.co.kr	
편집장	김현정 kimhj@swadcom.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0911@swadcom.co.kr	
기자	이내경 lnk@swadcom.co.kr 진주영 swadjy@swadcom.co.kr 표다정 pdj123@swadcom.co.kr	
교열	오미경	
<b>디자인</b>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wadcom.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wadcom.co.kr 윤범식 bumdiki@swadcom.co.kr 이원경 leew@swadcom.co.kr
	광고 디자이너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b>사진</b>	디렉터	LIGHT FACTORY STUDIO 070-4119-3014
	실장	신규철 이규열 이창주 이철 조지영 박정우 장은주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b>번역</b>	박경리(영어)	
<b>광고</b>	팀장	조현익 jony2@swadcom.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wadcom.co.kr
	대리	이기찬 kcleo_40@swadcom.co.kr
<b>제휴 마케팅</b>	(주)쓰뉴미디어 박은자 kawai_ejp@hotmail.com	
<b>제작 지원</b>	이사	이현웅 hulee@swadcom.co.kr
	실장	조중형 chong@swadcom.co.kr
	부장	국선희 heeya9722@swadcom.co.kr
<b>법률 자문</b>	김병철(문정종합법률사무소 02-3477-0588)	
<b>애플리케이션 제작</b>	(주)굿초이스	
<b>인쇄</b>	(주)타라티피에스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890-8434 광고 02-890-0907

# 정수기 관리, 깨끗하게 손 떼세요!

## 알아서 케어하는 자가관리 정수기

- 4단계 하이브리드 필터
- 코크 자동 UV 살균
- 에어리스 직수
- 유로관 자동 세정
- 원터치 필터 세척

## 루헨스 마이셀프 정수기



7월 한정, 렌탈료 할인 혜택!  
루헨스 쿨쌌머 프로모션

www.ruhens.co.kr  
고객센터 1577-8399

# 밀도 높은 시간을

사랑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냥 좋아한다는 말로는 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도시예요. 자주 생각하고 문득 떠오르고 그리움이 사무쳐 가끔은 진짜 눈물도 나와요. 저는 그곳을 세 번 여행했는데, 기간은 도합 한 달 정도예요. 그리 크지 않은 도시라 대부분의 길을, 구석구석 골목까지 걸었어요. 한 장소에 주저앉아 시간이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간 곳을 가고 가고 또 가고 반복하기도 했지요. 제가 사랑하는 불문학자 김화영 선생님 말씀처럼 한 번 간 곳을 다시 가는 것이야말로 여행의 묘미니까요. 제 인생의 한 달을 그 도시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삶이 제게 선사한 최대의 호의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한 달은 제 전체 인생에 수백 분의 일에 불과하지만 그곳을 여행한 시간의 밀도를 따진다면 적어도 1년은 쳐줘야 해요. 1년 같은 한 달이라 할 만큼 매 순간 진심을 쏟아진하게 보았고 걸었고 호흡했고 탐구했어요. 여행에서 배운 것이 제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요. 정말 열심히 여행했지요. 바꿔 말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 부주의 탓에 무감하게 혹은 불성실하게 흘러보낸 몇 달, 몇 년보다 그곳의 한 달이 제 인생에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요. 제 삶에 가장 밀도 높은 시간. 이렇듯 태도에 따라 시간의 밀도는 달라집니다. '작가의 방'에서 인터뷰한 화가 황재형 선생님은 강원도 태백 탄광촌으로 들어가 40년을 지내셨어요. '제3세계에서도 제3세계'인 광부의 세계를 알고 그리려 광부로 일하고, 폐광 이후에도 남으셨어요. '한 번 간 곳을 다시 가는' 정도가 아니라 40년을 머물면서 그곳 사람이 되어 작품에 담았어요.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약속을 평생 스스로 지켰습니다. 진심에 시간이 더해졌을 때 어떤 압도적인 작품이 탄생하는지 선생님이 보여 주십니다. 진실하게 노동하고 승고한 한 끼를 먹는 광부, 사방이 시꺼먼 탄광촌 개울에 찾아든 황금빛 노을. 그림에서 서린 힘이 영혼을 잡아 흔들립니다. 얼마나 뻑뻑한 40년을 사셨기에 이런 작품이 가능했을까요. 저희 매거진 기자들이 매달 최선을 다해 취재하지만, 이달엔 특히 많이 걸고 왔습니다. 여행의 밀도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걷기라 믿습니다. 김규보 기자는 연천의 절경인 지질공원 일대와 인제 곰배령을, 이내경 기자는 예산 예당호를, 진주영 기자는 거제 능포항을, 표다정 기자는 양양 낙산사와 그 곁의 해변을 걸었습니다. 자연이, 오래된 것이 소리를 내고 사람은 침묵하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풍경을,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밀도 있게 보내려 노력한 시간이 모여 7월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독자님 차례네요. 저희의 뻑뻑한 시간이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 ☑

<KTX매거진> 편집장 김현정

## 보내는 일에 관하여



"소이가 준비했어요~"



사랑도 우유도 1등급  
**체세포수까지 1등급**  
**A 100%**  
 체세포수 1등급 · 세균수 1A

LIVING



**Point**  
콤팩트하게  
접히는 디자인

### 부가부 엔트

네덜란드 프리미엄 스트롤러 브랜드 부가부의 휴대용 스트롤러 '부가부 엔트'가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여행에 행복을 더한다. 양방향 시트, 높낮이가 조절되는 핸들,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제품이다. 접은 상태로 여행용 캐리어처럼 끌 수도 있고, 비행기 기내 선반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속 들어가 운반하기 용이하다. 부가부 1577-0680



# Stardust



## The New Bugaboo Stardust Bedtime & Playtime made easy



FASHION



**Point**  
3개 버튼이  
목둘레를 넉넉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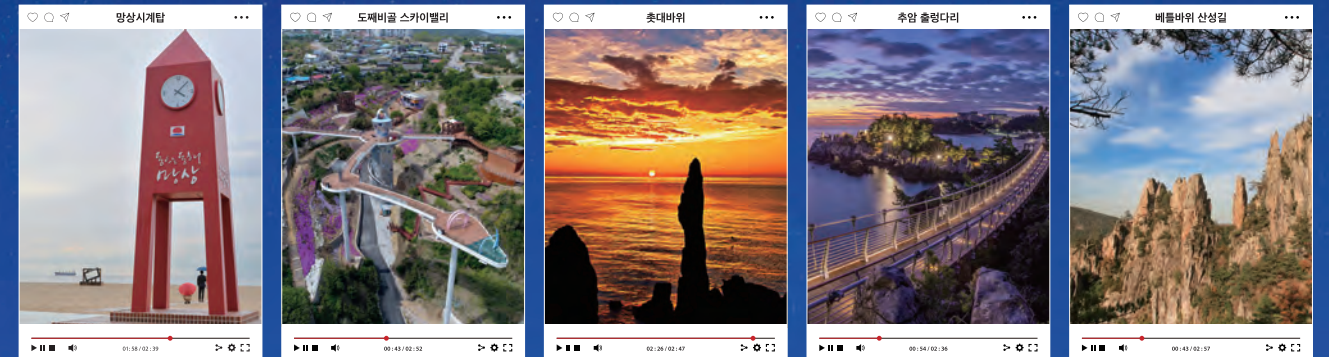
**지오매트릭 티셔츠**

파크랜드의 '지오매트릭 티셔츠'로 한여름에도 품위를 지킨다. 신축성이 뛰어난 폴리에스테르 혼방 소재가 몸에 감기는 듯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 자꾸만 손이 간다.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아 관리하기도 쉽다. 블루, 스카이블루, 옐로, 오렌지, 도트, 기하학 등 여섯 가지 감각적인 색상과 패턴 중 고르는 재미가 있다. 파크랜드 080-531-7513

너에게 **감동해**  
하늘에, 바람에, 그리고 동해시에 감동해!

**동쪽 하늘에, 동쪽 바다에, 그리고 동쪽 도시 동해시에!**

도시의 분주한 일상은 잠시 뒤로 하고 여유와 힐링을 찾아 떠난 당신  
여기, 동쪽 도시 동해시의 하늘과 바다와 바람을 느끼며 그 평안과 너그러움에  
일상의 여유를 얻어가며 기쁘게 감동합니다.



Healing Memory  
는 골담길

**Point**  
펼친 한 번으로  
부드러운 거품 생성



### 안젤리카 페미닌 워시

연약한 피부를 위한 세심한 더마 처방 브랜드 프리엔제가 건강한 Y존을 위한 '안젤리카 페미닌 워시'를 출시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안젤리카 허브를 비롯해 피톤치드 콤플렉스, 락토바실러스 발효물 등 자연 유래 성분을 99.8퍼센트 함유했다. 약산성 여성 청결제로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쓴다. 코리아나 화장품 080-022-5013



소초,  
숨만 쉬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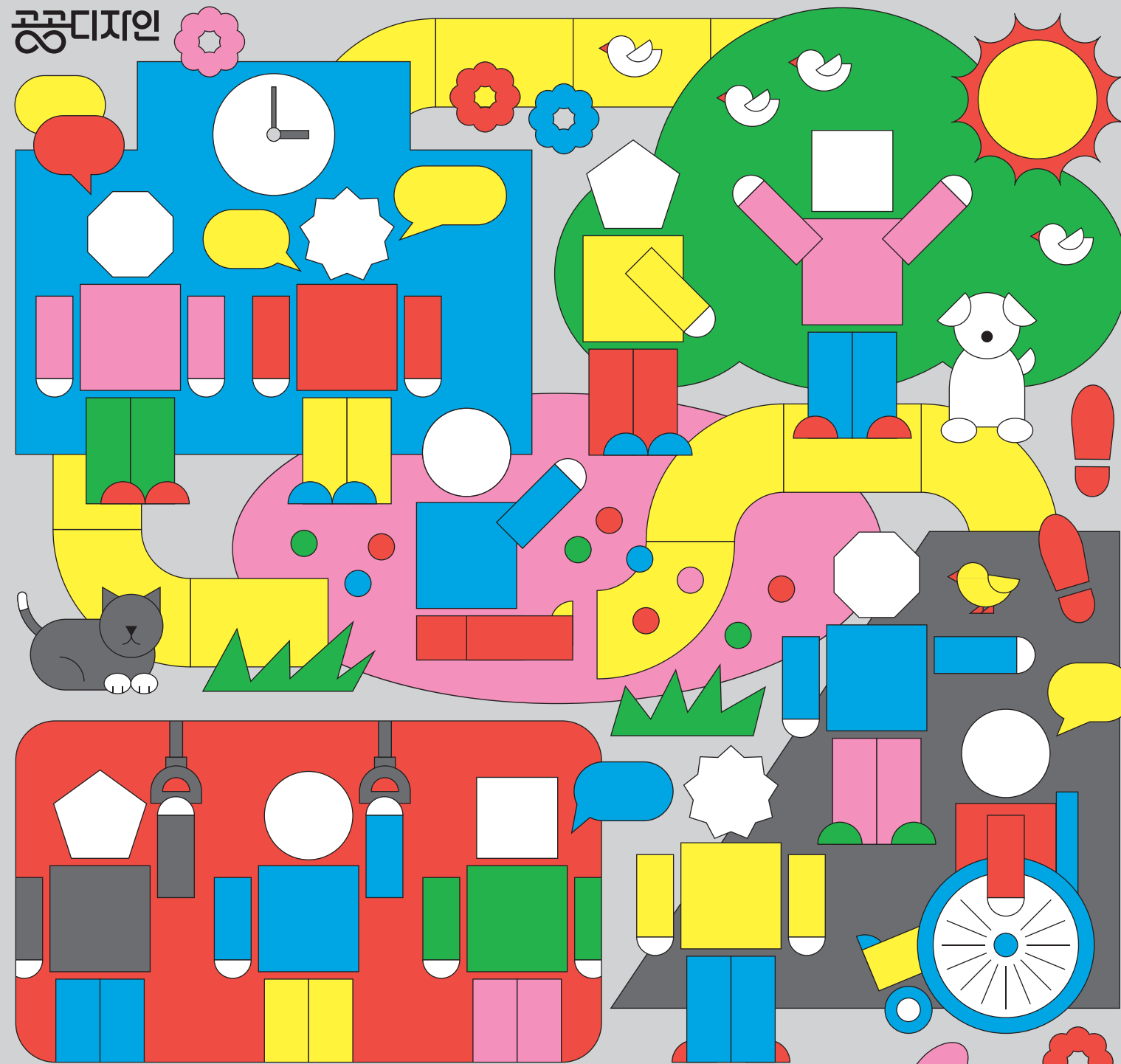


Point  
기동력을 높이는  
전용 카트와 바퀴

### 48리터 앞문 오픈형 폴딩 박스

하중 100킬로그램을 건디는 빅앤티의 '48리터 앞문 오픈형 폴딩 박스'를 사용하면 캠핑이 한결 편해진다.  
박스 여러 개를 포개 후에도 안팎으로 열리는 앞문을 이용해 물건을 손쉽게 넣었다 빼고, 납작하게 접어 보관하기도 좋다.  
올리브, 민트 그레이, 블랙, 아이보리 등 다양한 색상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빅앤티 055-344-0780

공공디자인



2021 문화역서울284 기획전시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문화역 서울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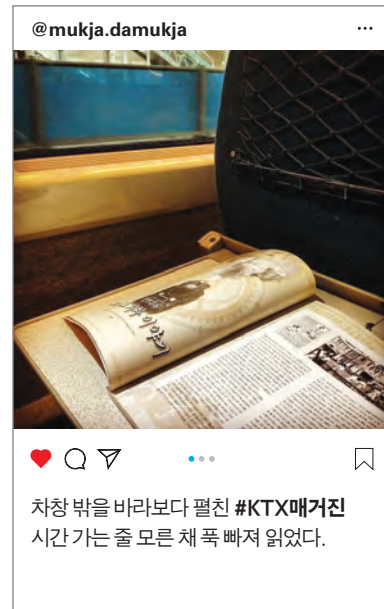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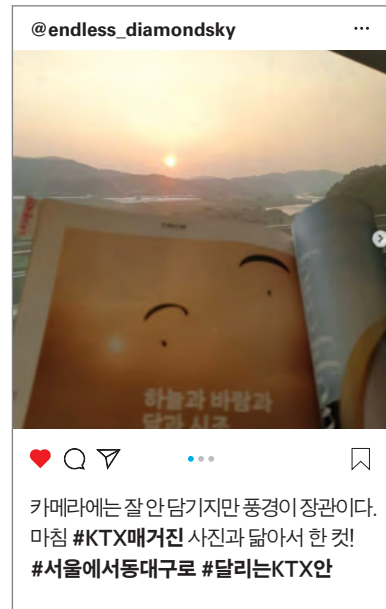
# 익숙한 미래: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

2021.6.30.수 → 8.29.일

문화역서울284

www.seoul284.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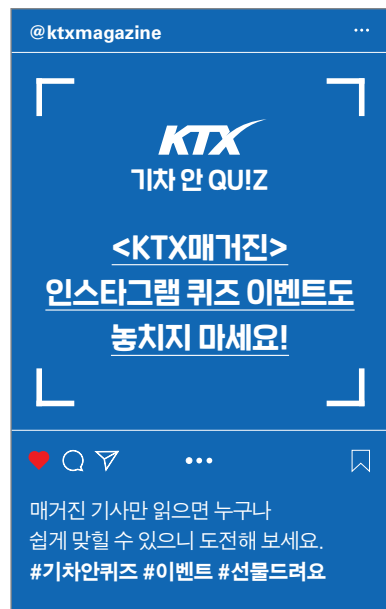
**#KTX매거진**

#SNS에서 #찾은

#생생한 #리뷰 #달리는 #KTX안

진행. 표다정

SNS 채널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주세요. '기차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내추럴 허브 코즈메틱 브랜드 비더스킨의 '보테니컬 포어 세럼'와 '비더스킨 이지 포밍 클렌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클럽 라운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찾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우선 골드 앤드 그레이 톤의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태블릿 기기로 독서를 하는 '엘-라이브러리(L-Library)'를 마련했다. 교보문고와 제휴해 전자책(e-book) 6만여 권을 무료로 읽을 수 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각종 신문과 잡지 열람은 물론 유튜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시청한다. 클럽 라운지 미팅룸은 고품질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갖춘 스마트TV와 전자 칠판을 겸하는 사이니지TV를 구비해 비즈니스 미팅에 최적화했다. 웰니스 추세에 따라 후무스, 피타 브레드, 포케 등 이국적이면서 건강한 음식도 준비했다. 해피 아워에 운영하는 라이브 스테이션은 메인 메뉴를 매일 변경해 다채로움을 더한다.

서비스에도 최신 기술을 접목해 최근 각광받는 언택트 테크 서비스를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 콘셉트로 선보인다. 1층 로비에서 서비스 도우미로 활용하는 달리버리 로봇은 웰컴 어메니티를 제공해 편의와 재미를 동시에 선사한다.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도 객실에 비치했다. 기가지니 하나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냉난방, 조명,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어하는 데서 나아가 어메니티나 컨시어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서울의 명소와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컨시어지 서비스와 무인 환전 키오스크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이용한다. 롯데호텔 월드는 "비즈니스와 휴식, 관광 쇼핑 콤플렉스와 연계한 즐거움을 모두 담은 도심 속 호텔의 이정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419-7000



## '리노베이션' 롯데호텔 월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심 호텔의 이정표 세우다

가족 단위 특화 객실 신설 등 1차 리노베이션을 마무리한 서울 롯데호텔 월드를 들여다봤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문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로 발돋움한 롯데호텔 월드가 30여 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한 전관 리노베이션 일정을 1차 마무리하고 부분 재개관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내부 리노베이션을 진행 중인 롯데호텔 월드는 먼저 19~31층 객실과 클럽 라운지를 선보이면서 보다 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리노베이션의 인테리어는 세계적인 호텔 인테리어 디자인 그룹 HBA가 맡았다. 호텔이 위치한 잠실이 조선 시대에 양잠으로 유명했다는 사실에 착안, 고치를 벗고 아름다움을 얻는 나비에서 영감을 받아 트렌드와 헤리티지를 아우르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곳곳을 '심플 앤드 모던(Simple & Modern)' 콘셉트로 단장했으며, 열아홉 가지 타입의 총 255개 객실을 달렉스·프리미어·스위트 3단계로 구성했다. 객실에서는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 서울의 랜드마크가 들어선 도심을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다.

가족 단위 고객을 고려한 특화 설계도 돋보인다. 소파 베드와 2층 침대인 벙커 베드 등을 추가해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숙박 경험을 선사할 뿐 아니라, 4인 이하 가족 투숙객을 수용해 여유로운 투숙이 가능하다. 스위트룸에는 바이러스를 99.9퍼센트 살균하는 기능까지 더한 물리클의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와 샤워 후 물기를 쾌속 건조하는 에어사워를 도입해 위생과 청결을 강조하는 트렌드를 반영했다. 홈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 가전으로 주목받는 세라젼 안마의자와 온열기도 설치해 투숙객의 건강을 배려했다(객실별 구성 상이함).



[슬로 여행]  
박혜진

예산군청 산림복지과 주무관

이번 촬영도 어느 때와 같이 주무관님을 만나 설명을 들으며 취재를 진행했다. 그런데, 어랏?! 전문가 수준이다. 산림복지과 소속 주무관님이라 그런가, 식물과 곤충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묻는 것마다 술술 답해 주신다. 역시 배우신 분乃, 답도 크시다. 곤충 생태관에서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흙 속에서 능숙하게 찾아내 먼저 보라며 건네고, 뒤영벌을 촉감으로 느끼는 전시장 앞에서는 손을 불쑥 넣으며 가만히 있으면 올라온다고 진지하게 말씀하신다. 전 다음에^^;; 봉수산수목원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뽀얀 주무관님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덩달아 나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방울방울. 취재 즐거웠습니다~ 이내경



[이계절이 여행]  
수미스님

낙산사 총무국장

급하게 취재 일정을 잡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요일에 비 소식이 있어 목요일에 방문해야겠다 생각하고, 강원도 양양 낙산사 수미스님께 전화를 드렸다. 그러나 스님은 목요일에 일정이 있는 상황. 우중 여행을 콘셉트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걱정하던 중 스님께서 취재팀을 배려해 목요일에 시간을 비워 주셨다. 딱 세 시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낙산사 곳곳을 누볐다. 모르고 지나칠 뻔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다. 발길 닿는 곳, 시선 두는 곳 모두 예쁘고 아름다운 낙산사를 스님과 함께 해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는 템플스테이 참여하러 방문할게요. 표다정



[작가의방]  
박유리

국립현대미술관 홍보고객과 주무관

사무실에 앉아서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무슨 전시와 행사를 하는지 훤히 안다. 박유리 주무관님 덕분이다. 큰 규모만큼 다양한 전시가 1년 내내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식을 어쩌나 깔끔하고 또 당장 관람하고 싶게 정리해서 이메일로 전해 주시는지, 메일을 열 때마다 영업당하곤 한다. 황재형 화백님 전시도 그랬다. 어머, 이거 가야 해! 게다가 이번엔 '작가의방'에 화백님을 모실 계획이라 주무관님 손을 많이 빌렸다. 처음 섭외부터 촬영 진행, 인터뷰 장소 확보, 마지막 주차권까지 세심히 챙겨 주셔서 따로 신경 쓸 게 없었다. 그동안 메일에서 성함으로만 뵈던 주무관님을 드디어 실제로 만났네요. 반가웠습니다! 김현정



[테마 여행]  
진나래

비무장사람들 대표

경기도 연천을 취재하면서 좋은 여행 기사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마을이 평온한 이유, 역사가 생생한 이유,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가꾸고 지키고 보존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신망리 마을박물관에서 진나래 대표님을 만났다. 함께 마을을 돌아보고 박물관으로 돌아와 철길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전쟁 직후 피란민 정착지로 조성됐기에 슬한 사연이 숨은 신망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 그런 작업이 아니라면 머잖아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신망리의 사연들. 대표님의 작업이 이어지길 바란다. 신망리가 오래 기억될 것 같아 바란다. 김규보

# 간편한 휴대성과 뛰어난 내구성 빅앤티 폴딩카트 (튼튼한 앞문 오픈형 폴딩박스)



MADE IN KOREA

- 빅앤티 카트셋 구성
- 카트 1개
  - 폴딩박스 2개
  - 플라스틱 랩 1개



\*4면 카트 락버클



블랙



민트그레이



아이보리



- 캠핑용, 나들이용 수납 폴딩박스
- 마트갈 때 장 볼 때
- 공구 수납용, 사무실 용품 수납용, 차량 트렁크 정리용
- 문의 055-344-0780

빅앤티(BIG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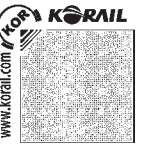
# 마음까지 식히는 제천 빙수 맛집

바라만 봐도 시원한 빙수를 삼킨다.  
충북 제천의 여름날, 얼음 조각 녹듯 더위가 사르르 가신다.

글. 표다정 사진. 신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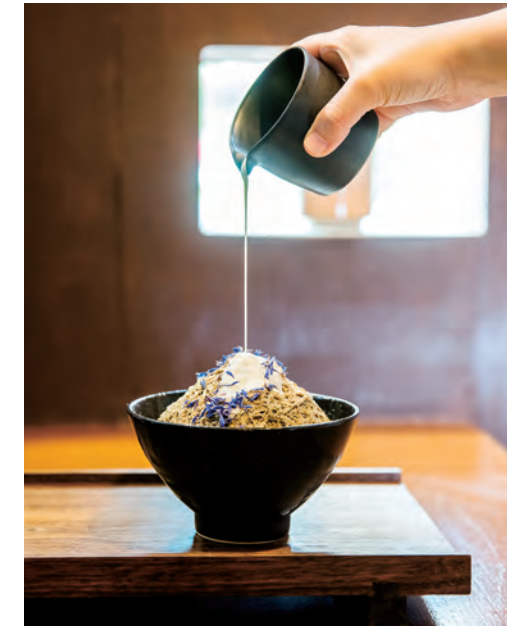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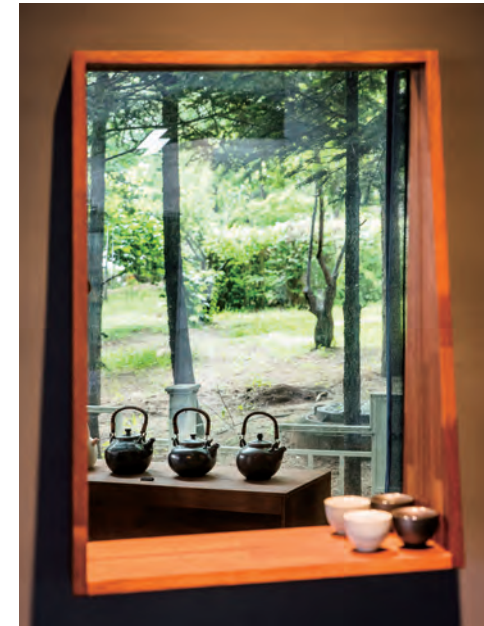
제천



## 티카페 차센



대나무로 공예품을 만드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허원영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차를 가까이했다. 차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차의 대중화를 공리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차에 쉽게 다가갈까?' 오래 고민한 끝에 찻집을 차려 직접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여러 나라의 전통차를 엄선하고, 다식을 배우러 충북 제천과 서울을 부지런히 오갔다. 찻잔도 차근차근 모았다. 3년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티카페 차센'을 오픈했다. 허 대표는 모든 손님에게 차가 쉬이 식지 않도록 다기 데우는 법을 시연하고 제대로 마시는 법까지 설명한다. 다도를 배운 손님이 스스로 차를 내려 마시니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올해는 빙수도 선보인다. 말차빙수, 밀크티빙수, 썬빙수, 호지차빙수 네 가지다.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차 가루와 우유 가루를 물에 개어 얼리는데, 진한 말차라테를 가미한 말차빙수는 "이런 빙수는 처음이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맛있다. 꽃감, 크림치즈와 호두 맛이 조화로운 꽃감말이 등 차와 어울리는 수제 다식은 하나같이 정성스럽다.



# Teacafe Chasen

☎ 말차빙수  
1인 8000원  
2인 1만 3500원  
꽃감말이 3200원  
📍 제천시  
용두대로5길 28  
☎ 0507-1469-7115  
📱 @teacafe\_chasen



# Twelve Months

☞ 수제팥빙수 1만원  
말차빙수 1만 3000원  
바람떡 3000원

📍 제천시 죽하로11길 36

☎ 0507-1373-3224

📱 @twelve\_months\_

## 열두달

새벽 5시. 최세정·전누리 부부는 멥쌀가루를 체로 곱게 치고, 시루에 떡을 안치며 오픈을 준비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부부는 떡을 빚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두 사람이 떡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세계 각국을 여행한 일이다. 전통 요리에 자부심이 강한 몇몇 외국인을 보고 감동한 부부의 뇌리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떡이 스쳤다. 한국에 돌아와 아내는 떡, 남편은 약과와 한과 만드는 법을 익히면서 자부심을 품었다. 오늘 사용한 것보다 더 좋은 식재료 찾기, 화학조미료 쓰지 않기, 주방에 국내산 재료만 들이기 등 원칙을 지켜 온 3년. 오늘날 '열두달'은 제천 대표 떡 카페라 말해도 손색없다. 그런 진심으로 여름에는 수제팥빙수와 말차빙수를 내놓는다. 우유를 베이스로 만든 얼음, 정성으로 끓인 팥앙금, 송송 올라간 쫄면과 바삭한 인절미와 바삭한 대추 칩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떡은 물론 수정과와 식혜, 바닐라라테에 들어가는 바닐라빈 시럽까지 부부가 직접 만든다. 백일 떡, 생일 떡케이크도 가능하니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좋겠다.



## 카페 서유



달콤한 향이 발길을 잡는다. 문을 열고 들어선 '카페 서유'에서 원인을 찾았다. 마침 체리, 블루베리, 망고, 키위, 오렌지, 파인애플, 용과 등 생과일로 과일청을 담그는 중이다. 오로지 제철 생과일과 비정제 원당만으로 제조한 과일청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계절에는 과일청을 듬뿍 올린 과일청빙수를 추천한다. 늦그릇에 우유와 연유를 베이스로 만든 얼음, 시리얼을 넣고 과일청을 올려 마무리한다. 쌓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과일청이 푸짐하며 과육이 그대로 느껴져 씹는 재미가 있다. 요즘 핫한 디저트 크로플을 얹은 크로플빙수도 놓칠 수 없다. 매장에서 직접 구운 크로플을 한 김 식혀 수제 팔과 함께 제공한다. 바삭한 크로플을 먼저 즐긴 다음 팔과 크로플, 얼음을 같이 먹다 보면 어느새 배가 부른다. 카페 서유는 크로플 샌드위치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베스트 메뉴인 새우크로플 샌드위치는 통통한 새우와 감자 샐러드로 속을 채우고 타르타르 소스와 칠리 소스로 맛을 냈다. 아낌없이 넣은 재료에 마음도 넉넉해진다.



# Café Seou

☕ 과일청빙수  
1만 3000원  
크로플빙수  
1만 2000원  
새우크로플  
샌드위치 6000원

📍 제천시  
용두대로15가길 11

☎ 043-756-7737

📷 @caffe\_seou



편안하다! 라쉬반®



누구도 나를 붙잡아 주질 못했다 남자는 차가워야 한다

강철 남자들의 선택 - 라쉬반

BR cooling 33.3

Brilliantly Refreshing

Admire the Comfort

토타넘 홋스퍼 공식 언더웨어

편안함에 감탄하다!

BR cooling 33.3

Brilliantly Refreshing



편안하다! 라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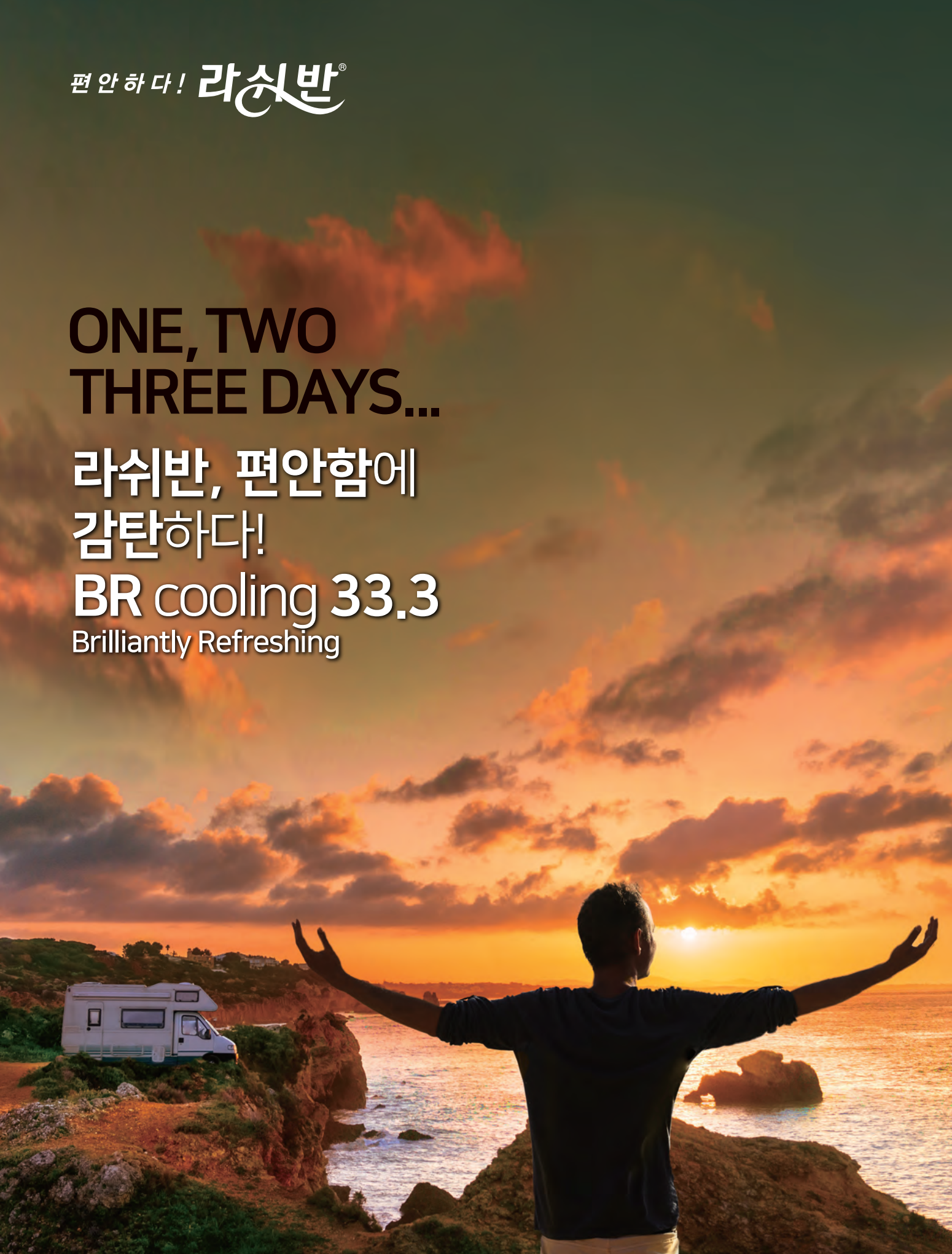


편안하다! 라쉬반®

ONE, TWO  
THREE DAYS...

라쉬반, 편안함에  
감탄하다!

BR cooling 33.3  
Brilliantly Refreshing



편안하다! 라쉬반®

편안함에 감탄하다!

남자의 필수 아이템 혁신 속옷 라쉬반  
국내 기술로 개발된 분리 독립 드로즈!  
입으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남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세계의학정보에 근거하여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국내 10개, 해외 17개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성 속옷 시장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라쉬반 언더웨어는

기능성, 원단, 트렌드 등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TENCEL** 

**SPEEDUP DRY** 

**DIENUL** 

**PHYTONCIDE** 

**DRYOFF**  

**BAMBOOMODAL** 





## 혁명의 이름, 로베스피에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실을 깨달은 대사건, 프랑스대혁명.  
로베스피에르는 그 한가운데를 가장 뜨겁게 통과했다.

글. 김현정

요즘은 혁명이라는 단어가 남발되어 충격이 덜하나, 본래 혁명은 이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총체적 변화를 뜻한다. 인류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혁명을 꼽는다면 단연 프랑스대혁명이다. 왕이 존재한 이래 최고 권력자인 왕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했고, 사람들은 왕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했다. 이를 뒤집은 사건이 프랑스대혁명이다. 왕을 끌어내려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실, 왕과 귀족과 평민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처음 깨달은 흥분. 막시밀리안 프랑수아 마리 이지도르 드 로베스피에르는 이 열기와 혼돈의 시대를 뜨겁게 살아간 혁명가다. 정치가가 되기 전 로베스피에르는 약자 편에 서는 '인권 변호사'로서 명성이 높았다. 그에겐 꿈이 있었으니, 재산이나 신분을 떠나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었다. 프랑스 인구 1퍼센트 남짓한 지배층이 혈통만으로 안락함을 보장받는 반면에 평민은 가혹한 세금과 지속된 흉년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이 부조리하다 여겼다. 그런 모순이 폭발해 1789년 7월 14일 혁명이 발발하고, 서른한 살의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한복판에 뛰어든다.

평생의 과제인 인권·평등·자유 개념을 헌법에 넣고 인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질서가 흔들리는 혁명기 상황을 이용해 수많은 이가 사라사육을 채울 때에도 로베스피에

르는 혁명의 가치에만 집중했다. 국정 책임자 자리에 올라서도 여전히 혼자 하는 산책과 독서가 소일거리일 정도였다. 인민이 그를 부르는 별명은 '부패하지 않는 자'. 혁명 밖에 모르는 이가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기회를 잡았다. 그는 행운아일까?

대혁명을 배경으로 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 첫 문장은 말한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이전에 누구도 혁명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갈등과 혼란이 끊어넘쳤다. 왕을 폐위해야 하는가 그냥 두어도 괜찮은가, 폐위한 왕을 처형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혁명에 협조하겠다는 귀족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 사람마다 의견을 내놨고 분위기는 과격해졌다. 설상가상 식량난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밖으로는 전쟁 위기가 닥쳐왔다. 유럽 각국의 왕이 혁명의 기운이 미쳐 왕정을 위협할까 경계해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재기를 노리는 왕족과 귀족, 혁명이 워든 일단 배고픔과 혼란을 견디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인민. 혁명이 위태로웠다.

여기서 공포정치가 등장한다.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 자유와 평등과 우애 넘치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의도였지만 처형 숫자가 늘수록 적도 늘어났다. 급진파는 로베스피에르가 온건하다 비난했고, 온건파는 그가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그토록 바란 민주주의의 길과는 멀어진 채 점점 고립되던 그는 1794년 7월 27일 고발당하고 다음 날 단두대에서 36년 삶을 마감했다. 가장 이상적인 혁명가가 그렇게 사라졌다. 227년이 흐른 지금도 그가 부르짖은 자유, 평등, 우애의 세상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혁명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계속 나아가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다. ☑



“6,000만원대 회원권으로  
누리는 골프, 리조트, 호텔 멤버십 하나로!”

## 소노호텔앤리조트 (구.대명리조트) 독보적 혜택의 프리미엄 회원권 출시!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겨냥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는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 약 2억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골프 특화 혜택으로는 18홀 코스로 구성된 소노펠리체C.C, 비발디파크C.C, 델피노C.C를 주중 무료, 주말 50% 할인받을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만여 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인 명의의 임직원 복지 목적으로 분양시 부가세 환급(공유제) 및 손비 처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전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한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올 7월 소노벨 천안은 이스트타워 증축을 통해 중부권 최대 리조트로 거듭날 예정이며, 브레이크힐스 남해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번에 리뉴얼 출시한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 이그제큐티브 클럽이 더 특별한 3가지

100%  
반환형 상품

20년 만기형 멤버십

20년  
상시혜택

이그제큐티브 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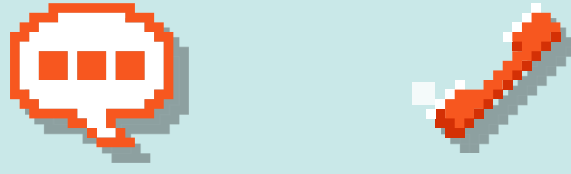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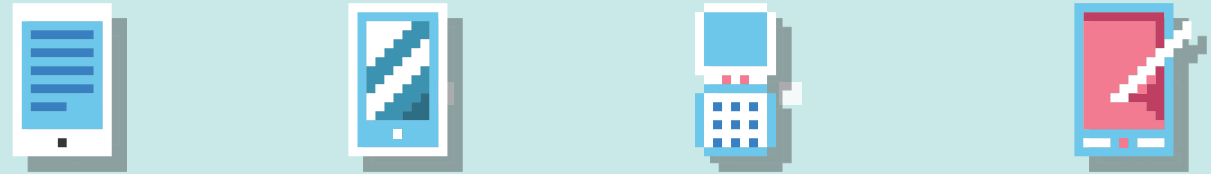
GOLF  
주중 무료

골프특화 선택시 [4년]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KTX 열차 내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12:40   
21/07/01

## ‘벽돌폰’이 스마트폰으로

1988년 7월 1일 한국 최초 휴대전화가 출시됐다.  
33년이 지난 2021년 7월, 한국 휴대전화의 변천사를 살펴본다.

글. 표다정

2006년에 첫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기종은 스카이텔레텍의 흰색 슬라이드폰, 번호는 016으로 시작했다. 번호판을 꼭꼭 누르는 맛과 상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이 좋았다. 전화에 고리를 다는 구멍이 있어서 기본에 따라 열쇠고리를 교체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처음 개통한 휴대전화, 다들 기억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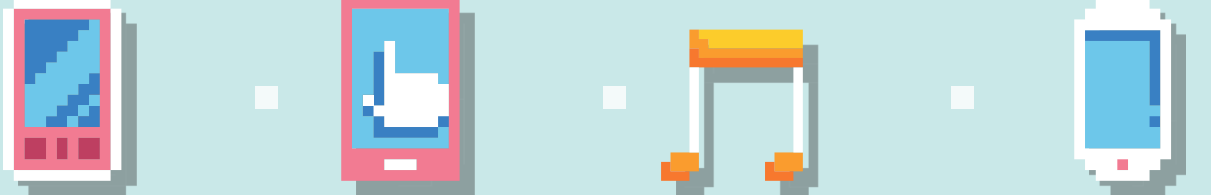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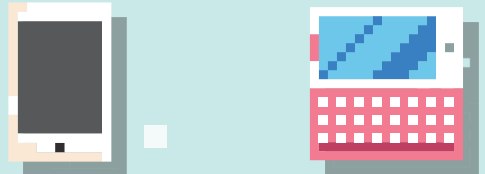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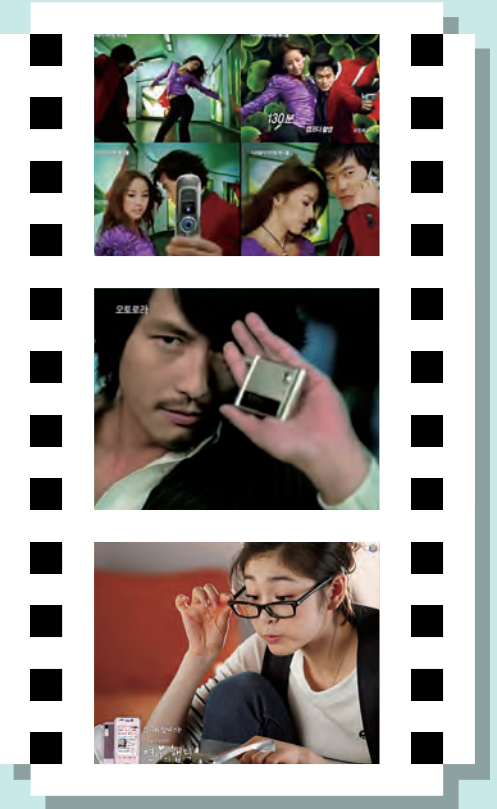
한국 휴대전화 역사는 3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해 만든 것이 시초다. 길이 19센티미터에 본체만큼 긴 안테나가 특징. 단축번호 설정과 비밀번호 잠금 기능이 돋보였지만, 굵은 직각 모양 때문에 ‘벽돌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400만 원 선인 가격은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금과 맞먹었다. 벽돌폰이 부의 상징이던 1988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784명이다. 개통하는 데 15분이면 가능한 현재와 달리, 허가증과 증명서도 필요했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최초의 순간 다음에는 발전의 시기가 온다. 1990년대가 그랬다. 1996년 한국 이동통신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해 어디서든 자유롭게 문자메시지 송수신과 음성 통화가 가능한 2G 시대가 도래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터널에서 통화가 끊기는 등 통화 불량 현상이 발생해도 어디서나 서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2000년대 들어 제조사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다채로운 성능을 더한 고성능 휴대전화를 출시했다. 회색과 초록의 단조로운 창이 컬러를 입더니 카메라 폰, MP3폰, DMB폰 등 메인 기능을 타이틀 삼은 전화가 쏟아져 나왔다. 구현 가능한 소리도 16화음, 40화음, 64화음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져 좋아하는 노래를 나만의 벨 소리로 설정하는 게 유행했다. 이런 성능의 발전은 곧 홍보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효리, 김연아, 소녀시대처럼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삼은 것이다. ‘연아의 햅틱’ ‘고아라폰’ 등 연예인 이름을 앞세워 제품을 각인시키는 데 힘썼다. 2006년, 목을 길게 빼고 얼굴을 맷돌처럼 돌리는 ‘맷돌춤’ 광고를 선보인 스카이텔레텍의 ‘IM-U100’은 하루 평균 2000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10년 후 스카이는 시장에서 재기를 꿈꾸며 당시 맷돌춤을 춘 배우 박기웅을 광고 모델로 재기용하기도 했다.

2007년 iOS라는 자체 운영 체제를 탑재한 아이폰이 등장했다. 한국에는 2009년에 들어왔는데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웹 서핑, 문서 작업, 영상 편집이 가능했다. 지갑 속 카드, 성능 좋은 카메라, 노트북을 대신할 성능의 휴대전화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 그만큼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다.

2012년과 2020년 각각 kt와 SK텔레콤이 2G 사업을 종료한 데 이어 지난 6월 LG유플러스마저 2G 사업을 마무리했다. 010이 아닌 01\* 국번도 함께 사라진다. 2019년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6800만 명에 달한다. 작은 화면으로 지구 반대편 세상을 감상하는 동시에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시대다. 33년 후에는 이 모습을 회상하며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할지도. **K**



# 다이어트 어떻게 할 '곤약'?

열량이 낮은 식재료의 대명사 곤약이 다양한 음식으로 변신해 입맛을 유혹한다. 다섯 에디터,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진행. 표다정 사진. 이철



다노삼 | 다노 곤약비빔면

4.0점

**1 다노삼 | 다노 곤약비빔면 130kcal**  
김현정 양념장이 다 했네. 매운 고추장 양념이 들어가면 뽕. 곤약도 흡입하게 하는 고추장 양념 칭찬해~ ★★★ / 김규보 입에 넣으면 똑같아진다는 신념 덕분에 음식 재료는 따지지 않는 편인데, 곤약이 대체 무엇인지 검색했다. 궁금할 만큼 맛있어서. ★★★★★ / 이내경 열량이 130킬로칼로리라니! 세계를 먹어도 일반 비빔면보다 열량이 낮으니 진정한 '혜자스러움'이 여기 있네요~ ★★★ / 진주영 애프터스쿨의 '디바'를 흉얼하려 본다. "오늘 밤 매일 밤 자꾸만 '곤약비빔면' 생각만 ♪" 부담 없는 열량에 밤참으로 딱. ★★★★★ / 표다정 반숙 달걀, 무순, 채썬 오이를 추가하면 완벽한 한 끼 완성!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 두 그릇을 먹고 싶어요(궁서체). ★★★★★

**2 쓰리케어 | 포켓야식 곤약불짬뽕 61kcal**  
김현정 포장지의 조리 예 무엇... 이렇게까지 건더기가 부실한 면 제품은 오랜만이라 신선했다. 맛있어 보이게 세팅한 다정 씨 금순ㅁㅁb★★ / 김규보 의식의 흐름을 쓰겠다. '맵부심 좀 부리는 내 기준으로 확실하게 맵네.' '불닭볶음\*을 먹고 싶어.' '마감 끝나고 먹어야지.' 끝. ★★★☆ / 이내경 곤약 면은 차게 먹는 게 더 잘 어울리네요. 맵워서 그런 건 절대 절대 아니에요~ 전 자부심 강한 맵짬이니까. ★★☆☆ / 진주영 "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 나인뮤지스 '돌스'의 킬링 파트인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맛. 맵워서. ★★★ / 표다정 다음과 같이 적으면 저 거짓말하는 것 같을까요? 하나도 안 맵다. 진짜 1도. 선배들 저랑 다른 거 먹었나요? 이름 교체하세요! 곤약짬뽕으로. ★★★



쓰리케어 | 포켓야식 곤약불짬뽕

2.8점

**3 아이멜 |**  
귀리 곤약밥&코코넛 닭가슴살커리 400kcal  
김현정 고들고들한 식감에 커리는 달고 깊은 맛. 매일은 자신 없으나 몇 번은 또 먹을 거다. 단맛만 좀 줄여주세요. 굵실굵실. ★★★★★ / 김규보 곤약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곤약밥이 이리 맛나다니 사실도 처음 알았다. 밥이나가 배도 부르다. ★★★★★ / 이내경 이렇게나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 있길 없길? 있길! 고소한 커리에 닭가슴살 씹히는 맛까지~ 맛 좋은 음식은 사랑입니다~ ★★★★★ / 진주영 "하늘을 스치는 별에 내 맘을 담아 보낼게 ♪" 오마이걸만큼 아련하게 사랑을 고백한다. 곤약밥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네요. ★★★★★☆ / 표다정 비빔면, 짬뽕 먹어도 배가 안 찬다. 곤약밥 너만 믿는데! 우와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아이멜 홈페이지로! ★★★★★



아이멜 | 귀리 곤약밥&코코넛 닭가슴살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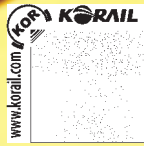
4.7점



아이멜 | 닭가슴살 곤약순대

4.5점

**4 아이멜 | 닭가슴살 곤약순대 225kcal**  
김현정 내적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맛있어! 짜릿해! 닭이 최고! 내 사랑 닭고기는 곤약순대도 맛있게 한다. 이거 안 먹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 / 김규보 마요네즈(최애 소스)를 바른 듯한 색감부터 마음에 든다. 부드러운 감촉, 잔잔하게 번지는 맛도 훌륭하다. 곤약밥과 공합도 최고. ★★★★★ / 이내경 세상에 이런 곤약은 없었다. 순대피를 꽉 채운 곤약, 닭가슴살, 당근 등이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맛이란~ 칭찬합니다! ★★★★★☆ / 진주영 2PM 준호 집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맛. 시식하자마자 주문 완료. ★★★★★☆ / 표다정 주영 선배처럼 아무도 모르게 저도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요(짹짹ㅎㅎ). 그래서 집들이 언제 한다고요? ★★★★★



신상 푸드

## 가지고추

빨갭게, 빨갭게 아니죠~  
보랏게, 보랏게 물든 가지고추가 궁금하다.

글. 표다정 사진. 이철

여름이 되면서 밥상 위 반찬도 달라졌다. 유자연근절임, 오이소박이 등 시원한 메뉴가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좋아하는 반찬은 고추된장무침. 된장, 다진 마늘, 매실청, 참기름에 고추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완성하는 메뉴로, 이번에는 가지고추로 만들어 볼 계획이다. 하나를 씻어 먹어 보았더니 맵지 않고 수분이 많으며 아삭하다. 가지고추, 블루베리, 가지 등에 함유된 보라색을 띠게 하는 안토시아닌은 노화 방지 효과가 탁월하면서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안토시아닌을 검은콩보다 6배, 적양파보다 3배 더 함유한 가지고추로 여름날 건강을 지킨다. ☑

042 043



# 한화리조트 10년 전액 반환 회원권 선착순 분양·특별혜택 제공



### 국내 외 지역체인

콘도 거제 벨비디어 / 설악 쓰라노 / 해운대 / 제주 / 양평 / 경주 / 용인 배찬송 / 백암운천 / 평창 / 지리산 / 수안보온천 / 신정호수 안시 / 대전 피로스 / 태안 골든베이 투스킨빌리지  
해외 일본 오션팰리스(나가사키) / 사이판 월드리조트 골프장 플라자CC 용인 / 설악 / 제주 / 골든베이 골프&리조트 / 제이드팰리스 골프클럽 / 오션팰리스 골프&리조트  
호텔 THE PLAZA / 여수 벨메르 테마파크 설악 워터피아 / 보로로 아쿠아빌리지 / 로얄새들 송마클럽 / 제이드가든 수목원 / 사이판 웨이브정글 / 63 ART(미술관/전망대)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제주 / 여수 / 입산 / 63

특·별·회·원·모·집

02.789.5200

# 열정으로 가꿔 가는 100년의 꿈

한결같은 정성이 감동을 전하는 경기도 양주·의정부·포천의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찾았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취재 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김인영태극나전

세계적인 나전칠기 가구를 향한 꿈



칼로 자개를 찍어 끊고 붙이는 손마디가 불그스름하다. 옷칠하고 꿰뚫는 과정에서 뱀 재료의 흔적이다. 작업을 멈추면 며칠 만에 사라지겠으나, 김인영 명장은 45년간 각인한 듯 품고 살았다. 나전칠기 가구를 세계가 사랑하는 브랜드로 키우려 쉽지 않았던 노력이 명장의 손을 매일 주홍빛으로 물들인다. 그는 열 일곱살에 나전칠기 공방에 들어갔다. 고향 강원도 홍천의 산과 강에서 예술적 영감을 흡수한 소년은 이내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나무에 맞는 조개 색을 가리는 안목, 정교한 손놀림이 포천시 제1호 명장의 실력을 일궈냈다. 1990년대 경제 위기가 닥쳐 가구 업체가 연달아 스러졌어도 그는 굳건했다. 화가와 콜라베이션을 시도해 나전칠기 가구를 예술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창작 스튜디오에서 수십 명의 제자를 배출했다. 세계적인 나전칠기 가구 브랜드의 꿈이 손끝의 주홍빛처럼 단단하게 머물러 간다.

📍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155  
☎ 031-542-8782  
📍 가구마다 다름



## 📷 추천 여행지 '고모호수공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조성한 뒤 지금은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수변 데크를 따라 숲과 호수 풍경이 펼쳐지고, 여가 지기 전망 좋은 카페가 들어서 쉬엄쉬엄 걷기 맞춤이다. 곳곳에 새긴 김종삼 시인의 시가 운치를 더하는 공원에선 보트를 타고 호수를 감상하는 순간도 즐겁다. 주말에는 핸드메이드 폴리마켓이 열린다.





### 고산떡갈비

최고 맛으로 우뚝 선 떡갈비



1979년에 첫선을 보인 '고산떡갈비'의 이름은 2대 고동원 대표가 지었다. 높을 고(高)에 뫼 산(山), 떡갈비 맛의 정상에 서겠다는 열정이 그만큼 굉장했다. 하지만 2000년, 아버지 고중훈 씨에게 가업을 물려받은 그는 조리과 가게 운영 면에서 스스로 준비가 부족했음을 깨닫는다. 이미 정평이 난 고산떡갈비 맛을 잇는 동시에 품질을 더욱 높일 계획을 세웠다. 먼저 아버지에게는 대중으로 배운 양념 레시피를 정량화했다. 배, 마늘, 생강의 양을 그램 단위로 조절하고 평가하는 일을 지독할 정도로 반복해 고기의 풍미가 생생해지는 레시피를 찾았다. 그뿐일까. 좋은 고기를 직접 선별하고자 30킬로그램 가까이 나가는 짝갈비 여러 대를 날마다 가게에 들어 살을 분리하고 힘줄을 제거했다. 끈기가 생길 때까지 치덴 고기를 숙성하는 일도 언제나 열심이다. 고산떡갈비라는 이름의 뜻은, 그렇게 현실이 되는 중이다.

📍 의정부시 평화로562번길 13

☎ 031-842-3006

🍴 소떡갈비 2만 8000원 갈비탕 1만 5000원



### 덕화원

3대로 이어지는 정성의 중화요리



눈이 감탄한 다음 입이 감동한다. 해삼, 오징어, 새우 등 삼선간 짜장 한 그릇에 올라간 재료가 두 그릇 분량인 양 많고, 맛 또한 담백하니 깊게 스며들어서다. 자연스레 떠오르는 생각. 이리 넉넉하게 내놓는데 수지가 맞을까? '덕화원'은 1967년부터 지금껏 한자리를 지켰다. 훌륭한 중화요리를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되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값비싼 재료를 아낌없이 썼다. 1000원이 아닌 100원만 남기는 대신에 나머지는 다 재료에 투자했다. 중국에서 넘어와 가게를 연 어머니 장영란 씨의 원칙을 손덕수 대표가 꾸준히 유지한 것이다. 그런 고집이 허허벌판이던 경기도 양주 덕정역 옆 가게를 지역을 대표하는 중국 집으로 만들었다. 물론, 정성을 알아주는 손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손 대표와 아들 손무룡 씨는 매년 쌀 100여 가마를 어려운 이웃과 나눈다. 덕화원의 마음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 양주시 덕정길 4

☎ 031-858-0103

🍴 삼선간짜장 8500원 탕수육(중) 2만원



### 추천 여행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조선 시대 왕실의 후원을 받은 사찰 회암사터 부근에서 2012년 개관했다. 회암사는 조선 중기에 폐사했는데 1997년 유적과 유물을 발굴, 전성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사찰임을 확인했다. 박물관에서는 사찰 복원 모형과 영상, 청동 금탁과 용두 같은 발굴 유물을 전시하며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홍두깨국시집

정직하게 만드는 진짜 손칼국수



1993년, 당시 오지였던 경기도 포천 왕방산 자락에 칼국수 가게가 문을 열었다. 접근성은 떨어지나 맛이 사람을 불러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가게였다. 첨가물로 현혹하려는 생각은 일절 하지 않고 면과 육수, 다진 양념을 바르게 내는 데 골몰했다. 반죽한 밀가루를 찌방 모양으로 다지고 둥글게 늘인 후 밀가루를 묻혀 가며 홍두깨로 수십 번 밀었다. 전 과정을 기계로 하면서도 썰 때만 손을 쓰는 '손칼국수'가 따라 하지 못하는 차진 면발의 비결이다. 오직 쇠고기와 사골로 정직하게 우린 육수, 술한 시도 끝에 완성한 다진 양념으로 아침마다 담그는 결절이 이 집의 자랑이다. 직원에게 4대 보증을 보장하고, 퇴직금과 수당을 꼬박 지급해 온 것 역시 특별하다 할 순 없지만 예사롭지도 않은 이경영 대표의 노력이다. 오늘도 그는 주방에서 홍두깨를 민다. 어느새 식당이 만석이다.

📍 포천시 정문동길 24

☎ 031-535-7973

🍴 손칼국수 9000원 만두 5000원





# 백년가게·백년소공인과 함께하는 양주·의정부·포천 여행



#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 드라마촬영지 각광! 언택트 힐링명소

‘해양관광 1번지’ 포항시에 각종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들이 문전성시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의 명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성과 지속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공식 인증하고 있습니다. 백년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과 소·중기업, 백년소공인은 숙련 기술 기반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입니다.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국민 추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온·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고 구매 후 SNS에 상품평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은 7월 23일까지. 자세한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세요.

국민추천제를 이용하면 우수한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후보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추천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애플 에어팟 프로와 신세계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구매 인증샷 이벤트



# 건강한 몸, 활기찬 일상생활 차원이 다른 안마의자 REAL PRO



## 안전 센서로 당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 파나소닉 안마의자

파나소닉 안마의자는 신장에 따라 다리 지지대 조절 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타사 제품과는 달리 사용자가 적절한 힘을 가하여 다리 지지대를 조절하는 방식으로써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다리 끼임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합니다. 또한 사용을 중지하고 안마의자에서 일어서면 모든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시대 셀프 홈 헬스케어 아이템 - 안마의자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며 집콕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와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를 겨냥한 휴식 및 건강 가전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제품이 힐링 아이템이자 지친 몸을 달래주는 헬스케어 아이템 안마의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 86년 안마기술의 집약체 파나소닉 REAL PRO 안마의자

1935년 최초의 가정용 전기 마사지 기구를 제작한 이후로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 연구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은 86년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자 종합 브랜드의 강점을 살려 로봇 제어 기술, 전기 카펫 난방 기술 등을 응용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능숙한 마사지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이 탑재된 안마의자를 개발하였으며,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지속적인 엄격한 내구성 테스트를 통해 뛰어난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의 안마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300만대 이상의 파나소닉 안마의자가 애용되고 있습니다.

## 터치 패널 조작으로 선호하는 마사지를 간편하게 선택

화면을 터치하여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터치 패널 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고 싶은 코스와 포인트를 쉽게 선택하고 원하는 마사지 코스를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호하는 마사지 동작을 등록하면, 안마의자가 등록된 사용자의 마사지 취향을 기억하여 매번 동작을 설정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손놀림을 완벽하게 재현한 파나소닉만의 독창적인 메커니즘

### 1:1 맞춤 안마 제공

마사지 볼마다 장착된 압력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체형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어깨 위치를 측정합니다. 체형 분석이 끝나면 내장된 압력 센서의 피드백 루프를 초당 100회 반복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마사지 강도를 설정하고, 키에 상관없이 어깨에는 어깨 마사지가, 견갑골에는 3D 회전 마사지가, 목에는 목지압이 정확하게 제공되어 최대의 만족을 위한 전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히터 일체형 마사지 볼

파나소닉 안마의자에는 마사지 전문가의 체온과 같이 기분 좋은 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온열 마사지 볼을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넓은 마사지 볼 구동 범위 구현으로 어깨 상단부의 경직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어주며, 이전 보다 커진 마사지 볼은 어깨 상단부의 손이 닿기 힘든 부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깨에서 머리 위까지 지긋이 눌러주는 느낌으로 시원하게 마사지합니다.

##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 기술

파나소닉 안마의자에는 3D 독립 구동과 로봇공학 기술을 응용한 독창적인 모터 제어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3개의 고성능 브러시리스 모터로 회전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마사지 볼을 상하, 좌우, 전후로 동작시킴으로써 섬세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여 마사지 전문가의 손놀림을 최대한 재현합니다.

## 진화한 두뇌 시스템 - PFC 엔진 II

초당 2,000개의 신호를 전송하여 3개의 모터 움직임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마사지 기법 재현이 가능하며, 고속 피드백 제어로 마사지 볼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이 직접 구석구석  
안마해주는 느낌이에요

—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력으로 탄생한 3D 마사지 기법 —  
골든 커리어 그랜드 슬램 달성 | 박인비

*Park Inbi*



EP-MAK1-E (베이지)

마사지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져요

프로 마사지사의 따뜻한 체온을 담아낸 기술 온열 마사지볼

2019 US 여자오픈 우승 | 이정은

*Lee Jeong-eun*



EP-MAK1-K (블랙)

세계 정상급 프로들은  
파나소닉 리얼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EW REAL PRO**  
**EP-MAK1**

무릎 뒤쪽 근육까지  
섬세하게 풀어주네요

— 무릎 뒤 림프 부위를 꼭 눌러 지압해주는 포인트볼 에어백 —

2018 LPGA 마이애미클래식 우승 | 유소연

*Yoo So-yeon*



EP-MAK1-C (아이보리)

격이 다른 기술력으로 당신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드립니다. **Healthcare Leading Company**

# 파나소닉이 탄생시킨 최고의 프리미엄, MAK1



**터치패널 컨트롤러**  
뛰어난 가독성과 직관적인 터치 조작으로 원하는 마사지 부위를 섬세하고 편리하게



**3D 독립구동 모터**  
3개의 고성능 브러시리스모터로 마사지 전문가의 섬세한 손놀림을 구현하는 기술



**온열 마사지볼**  
마사지 전문가의 기술에 인간의 체온까지 고스란히 담아낸 파나소닉만의 독보적 기술



판매점 |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 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정한 판매점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http://panasonic.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울 본점 (02)2542-845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54 오륜한스빌 11층 | 파나소닉 유행프라자 (02)567-845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29 | 파나소닉 M&M프라자 (02)759-8452 서울  
시 중구 남대문로 4가 18-7 2층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95-8452 부산시 수영구 광안로 127 1층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대구시 북구 율동로 45 2차관 2층 | 파나소닉 대  
천프라자 (042)223-8452 대전시 서구계룡로 367 1층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314-8452 대구시 중구 영덕로 35길 25 상가 102호 | 파나소닉 용인프라자 (031)255-0300부천시중  
곡북로 95-2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부산시 동구 자성로 10 | 파나소닉 HD 프라자 (062)522-2000 광주시 북구 관남로 24 | 파나소닉 제주 프라자 (064)757-8452 제주시 구  
동 4길 3 2층 | 파나소닉 천안 프라자 (041)522-845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병영로 209 2층

# WHAT'S UP

06.10~2022.0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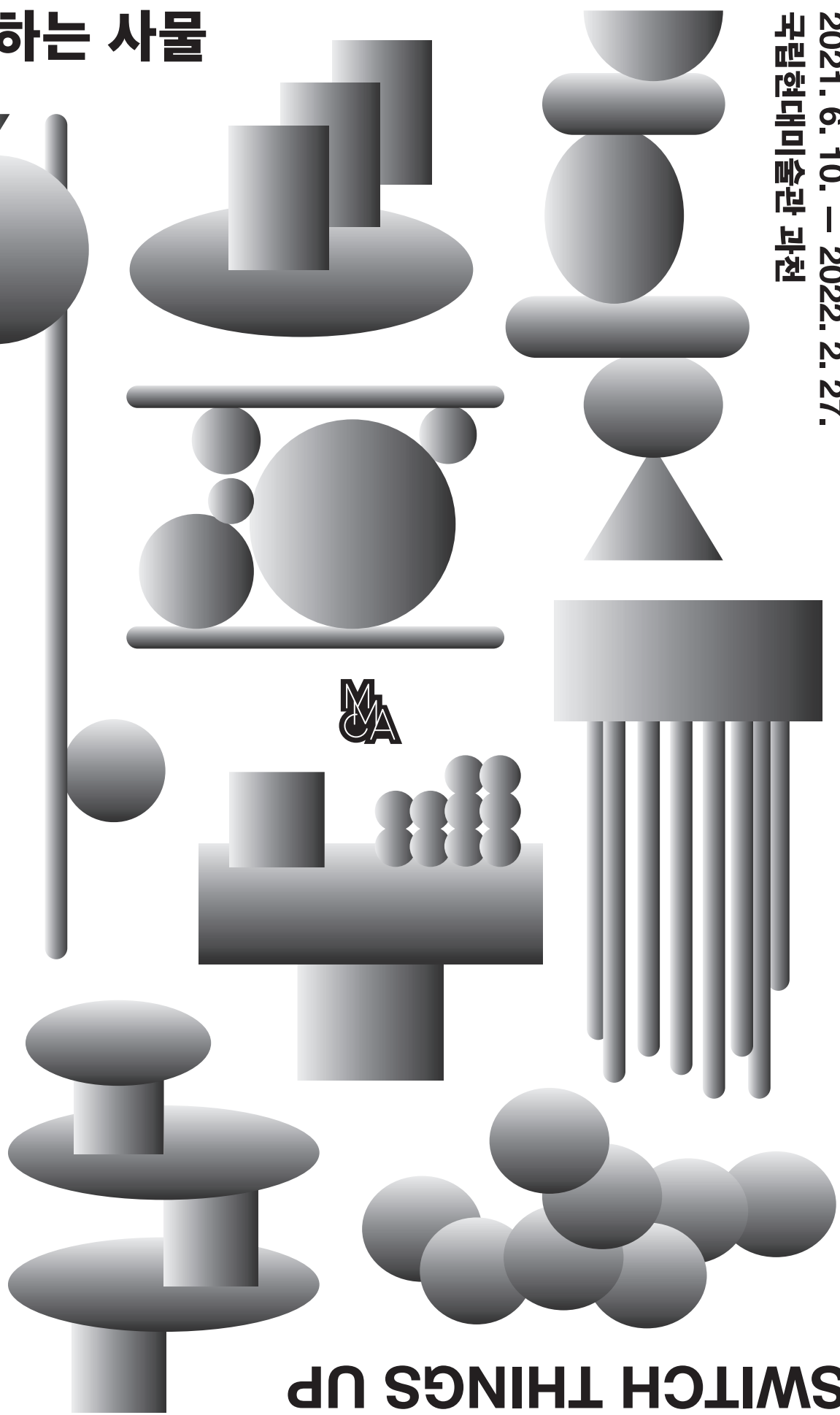
<놀이하는 사물>

## 전시

네덜란드 출신 역사가 요한 하위징아가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으로 명명한 것을 모티프로 기획한 전시다. 서정화·신혜림·이광호·이상민·이준아·이현정·현광훈·NOL 작가는 손을 활용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놀이'라 부르기로 약속한다. 신혜림 작가는 가죽이나 실 같은 소재를 감고 쌓는 반복적 행위로 시간을 기록한 설치 작품을, 이준아 작가는 손과 수편기로 두께와 소재, 배색을 달리하며 완성한 텍스타일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장 내부에 작가가 선택한 소재를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문의 02-2188-6000

## 놀이하는 사물

10 Jun 2021 — 27 Feb 2022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SWITCH THINGS UP

2021. 6. 10. — 2022. 2. 27.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WHAT'S UP

07.08~09.26

## 전시

1970년대 미국 사진계는 사진의 의미보다 예술성을 강조하는 회화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진가 윌리엄 웨그만은 당시 촬영 대상으로 여기지 않던 개를 의인화해 시대를 풍자했다. 풍부한 상상력과 섬세한 연출이 어우러진 사진은 대중의 호응을 얻고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이번 윌리엄 웨그만의 개인전은 작가의 초기작과 최근작을 아우른다. 대형 폴라로이드 사진 '캐주얼(Casual)',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한 작품을 포함한 100여 점 중 50여 점은 국내에 처음 공개한다. 사진가와 모델이기 전, 주인과 반려동물 사이의 신뢰와 우정이 돋보이는 사진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02-580-1300



© William Wegman

〈원뿔하영마:비잉후면〉

# WILLIAM WEG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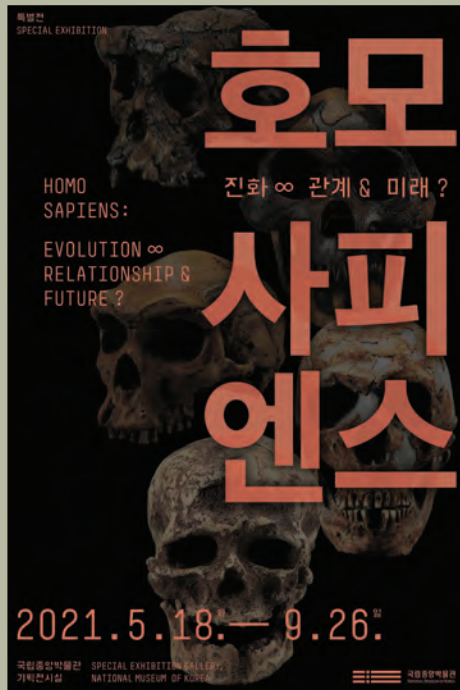
# BEING HUMAN

윌리엄 웨그만  
《비잉 후면》 전시회

**2021.7.8-9.26**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전시실

## <호모사피엔스: 진화∞관계&미래?>



### 전시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구라도 함께 사는 것이 좋다'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지나 인류가 진화한 과정을 담은 짧은 영상을 만난다. 허리가 구부정한 인류의 조상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사냥에 나선다. 인류가 진화해 온 700만 년을 '진화를 이해하는 방식' '진화' 등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본다. 프랑스 라스코 동굴과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의 구석기 벽화를 영상으로 마주하는데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까지 생생하게 재현해 벽화 속을 거니는 느낌을 선사한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한 주먹도끼도 만난다. 전시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12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2022년 4월 연천 전곡선사박물관으로 이어진다.

장소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문의 02-2077-9000



05.18~09.26

# 해남을 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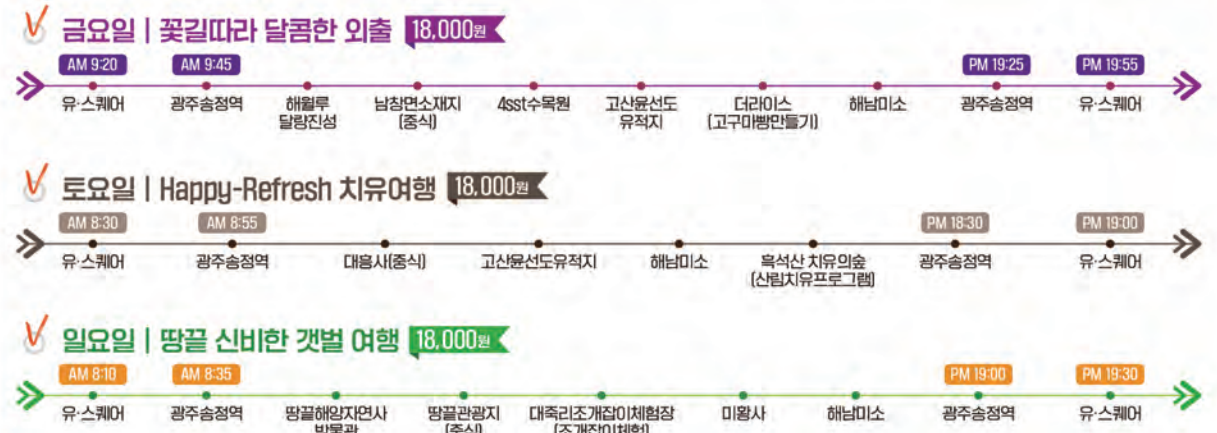
Come visit Haenam CITY TOUR BUS

- ▶ 운행기간: 2021. 7. 2. ~ 매주 금, 토, 일 ✖해남출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 온라인구매: 버스한바퀴(www.kumhoaround.com)
- ▶ 오프라인구매: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탑승 가능
- ▶ 이용요금: 광주출발: 18,000원, 해남출발: 12,000원  
✖체험료(5,000원) 포함 금액 ✖이용 고객에 한하여 해남 특산물 제공
- ▶ 탑승장소: **광주출발**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32번출** 광주송정역(택시승강장)  
**해남출발** 해남터미널 **1번출**

### 유의사항

- ▶ 해남시티투어 승차권 및 예약문자 소지 후 탑승
- ▶ 차량 보험만 포함 (여행자 보험 불포함)
- ▶ 식사, 입장료(일부 할인), 기타 비용은 개별부담
- ▶ 차량탑승시 안전벨트 착용, 개인별 마스크 준비, 버스내 마스크 착용  
\*탑승 시 승무원의 발열체크 미준수시 탑승이 불가합니다.
- ▶ 날씨(기상악화)와 도로 상황등으로 시간 및 코스 변경 및 취소 가능

### 광주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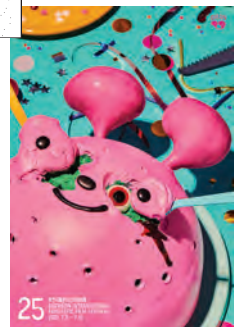
### 해남출발



금호고속진흥센터 062-360-8502 해남군청 관광과 061-530-5852

Haenam-gun  
해남군·금호고속

# WHAT'S UP



영화제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997년 한국 최초의 판타스틱 장르 영화제로 막을 올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상해도 괜찮아'라는 주제 아래 42개국 258편의 영화를 초대했다. 장르 영화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해에 론칭한 후반 작업 지원 프로그램 '워크 인 프로그레스'를 통해 완성한 3편의 영화도 공개한다. **장소** 경기도 부천시 청, 부천 CGV 소풍 문의 032-327-6313

07.08~18



연극제

### 대한민국연극제 IN 안동-예천

올해 39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연극제의 무대는 경북 안동과 예천이다. 초청작 5편 등 총 29편을 준비했다. 그중 2019년에 신설한 네트워킹 페스티벌은 신진연극인과 감독을 대상으로 한다. 현실을 따듯하게 꼬집고, 전쟁의 아픔을 위로하는 등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기다린다. **장소** 경북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예천군 문화회관 등 문의 054-855-0039

07.17~08.08



전시



### <환상게임: 바라캣 이집트 보물>

고대 이집트인이 즐겼던 보드게임 세트를 재현한 전시장에서 기원전 이집트 역사를 마주한다. 오시리스의 청동 흉상과 이집트 성각문자(聖刻文字)가 새겨진 비석, 고양이 미라, 사자(死者)의 얼굴을 한 마스크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한다. **장소** 바라캣 서울 문의 02-730-1949

05.18~08.31



전시

### <장두건 바리에 머물다>

포항시립미술관은 포항 출신 장두건 화백을 기리는 전시를 매년 선보인다. 올해는 장두건 화백의 도불 64주년을 기념한다. 화백이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1957~1960년에 그린 드로잉 30여 점과 현지 활동 소식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전시하고, 작가 인터뷰 영상도 준비했다. **장소** 경북 포항시립미술관 문의 054-270-4700

05.25~08.29



문화제

### 서귀포문화재야행

제주도 서귀포에서 처음 열리는 문화재 야행이다. 야사(夜史), 야시(夜市), 야식(夜食), 야경(夜景) 등 여덟 가지 테마로 여름밤을 즐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를 소재로 삼은 뮤지컬, 서귀포 해안을 밤에 감상하는 어선 투어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장소** 제주도 서귀포 천지연 유원지 일대 문의 070-8990-9999

07.30~31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대표브랜드



## 에당호 출렁다리 & 음악분수



이대면 시대,  
새로운 관광지평을 열다



## 예산 황새공원



KTX매거진 로컬여행센터 7월 바다 여행 특집



# 로컬여행센터가 쏜다! 여름 속초, 기차 타고 바다 여행

여름 성수기 특가 2인 여행 398,000원~



라마다 속초 호텔

##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한번 가야 할 속초 1박 2일 기차 여행

대포항에 있는 라마다 속초 호텔은 바다가 보이는 프리미엄급 호텔로 아름다운 일출과 야경을 편안하게 감상하며 생동감 넘치는 속초를 최대로 즐길 수 있다. 속초의 필수 관광 명소에 손쉽게 접근하는 편리한 위치를 자랑한다.

## 5060 추억 여행 feat. 수학여행 추천 코스

설악 케이블카 - 설악산 흔들바위 - 양양 낙산해수욕장 - 양양 낙산사 (추억 사진 찍기)

## 2030 인생샷 감성 여행 추천 코스

외옹치해수욕장 - 속초 핫플 카페 (젤라또 #속초바다맛) - 속초 핫플 카페 (#너울집)  
- 속초 핫플 카페 (#롱브레드) - 강릉 안목해변

### 여행 안내

여행일 : 2021년 7월~9월 (1박 2일)

포함 내역 : 서울 - 강릉 2인 KTX 왕복 열차비, 라마다 속초 호텔 1박, 렌터카 48시간 대여

불포함 내역 : 여행자보험, 자차보험, 식대, 개인경비

상품가 : 39만 8000원부터(디럭스 파노라마 오션뷰 더블 2인 1실/ 평일 대여 소형차/성수기 기준 2인 부가세 포함)

※ 기차 시간 및 일정 변경은 전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열차 운행 조정, 열차 잔여 좌석 사정으로 인해 열차편(시각/탑승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을 추천해 드리는 자유 여행으로 여행자의 편의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언택트 패키지입니다.

※ 기차 시간 안내 : (출발) 805 열차 서울역 출발 08:01 - 강릉역 도착 10:01 / 807 열차 서울역 출발 09:01 - 강릉역 도착 10:57

(도착) 820 열차 강릉역 출발 17:25 - 서울역 도착 19:28 / 824 열차 강릉역 출발 20:30 - 서울역 도착 22:29

KORAIL/SR 공식협력여행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

카카오톡 채널 상담 'KTX매거진 로컬여행센터' 대표전화 1899-2550(로컬여행센터 마실)

### 강릉역 대한렌터카 안내

01. 강릉역에서 바로 환승 가능한 대한렌터카 (강릉역사 내 1층 3번 데스크)

02.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금연 차량 등 편리한 차량 옵션

03. 만 21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

※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자차보험 현장 결제

※ 차종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이용 시 유의 사항

※ 개인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로컬여행센터 '마실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구매 사이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및 환불 외 추가 요금 등의 숙소 및 렌터카 이용 사항은 각 업체의 규정에 따릅니다.

※ 극성수기 프로모션으로 예약 확정 후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렌터카  
48시간



**공감페이퍼**

사장님이 직접 재단하고 봉제해 만든 파라솔입니다. 마당, 해변, 캠핑장에서 펼치는 순간 햇볕을 막는 동시에 멋스러운 포토 존을 완성합니다. 색상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상아 등이 있습니다.



\* 파라솔 단품, 하단 지지봉, 파라솔 커버로 구성  
\* 파라솔 받침대는 별도 구매  
**가격** 5만 9000원(대)  
**문의** 010-8014-9614



**행복드림플라워**

꽃이 지닌 힘은 큼니다.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니까요. '행복드림플라워'에서는 생일, 기념일, 프러포즈, 개업, 이사, 조문 등 경조사에 필요한 꽃과 나무를 전국에 배송해 드립니다. 식물을 선물하세요.



**가격** 꽃, 나무마다 다름  
**문의** 1877-4777

**우리 가게 또는 제품 홍보하기**



**춘천생생닭갈비**

2년 전 강원도 동해안 산골 때 소방서에 닭갈비를 선물해 인터넷과 언론을 뜨겁게 달군 착한 닭갈비. 맛으로도 소문난 닭갈비를 밀키트로 만나 보세요. 국내산 생닭다릿살과 채소, 특제 숙성 양념의 환상적인 맛을 전국 가정애 배달해 드립니다.



\* 닭갈비 3인분(900그램), 양배추, 쌀떡, 깻잎, 대파로 구성  
**가격** 1만 8000원  
**문의** 033-264-7100, 010-9892-9003



**수리상회**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엄선한 재료로 조리하는 '수리상회'입니다. 곱이 가득한 곰창, 고소한 대창, 쫄깃함이 매력인 막창과 특양, 매콤한 맛이 일품인 소곱창전골을 선보입니다. 캠핑 필수 아이템 곰창&막창! 이제 푸짐하게 즐기세요~



**가격** 모듬 세트 2만 3700원(곰창 160그램, 대창 200그램, 막창 200그램, 참소스와 콩고물로 구성)  
**문의** 032-565-5930



**오동재, 영산재**

멋스러운 한옥에서 보내는 하룻밤을 선사합니다. 전남 여수의 '오동재'와 영암의 '영산재'는 편의 시설을 갖춘 한옥 호텔입니다. 편안한 객실에서 침에 집중해 보세요.



\* 오동재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 모집 중(주 단위 가능)  
**주소**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99(오동재), 영암군 삼호읍 나불의도로 126-17(영산재)  
**문의** 061-650-0300(오동재), 061-464-4600(영산재)



**(주)성광스모그**

'(주)성광스모그'의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 'EID'를 장착해 보세요. 매연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진동과 소음을 줄이며, 자동차 출력을 향상시킵니다. EID는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 중장비, 발전기 등 모든 내연기관에 적용 가능합니다.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매연을 줄입니다~

**주소** 인천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문의** 1600-3257

\* 택배비는 업체마다 다르므로 주문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로정성한의원**

통증·관절 클리닉과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진료하는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의원입니다. 늦게 퇴근하는 분, 휴일에 일하는 분을 위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을 엽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26, 2층  
**문의** 02-866-6600



**농업회사법인(주)지앤인**

플랜테리어의 인기가 날이 높아지는 요즘 우수한 전시 효과의 플라워 가든. '농업회사법인(주)지앤인'은 구근&속근 화훼 수입·유통·재배 전문으로 지자체 및 공공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풍차정원'을 검색해 보세요.



**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연정말길 97  
**문의** 031-544-9436 gninseeds@gmail.com






# '쿠바 디아스포라의 시작 마나티 항구 전경'

김동우

글. 김규보

1921년 3월, 기선 타마울리파스호가 쿠바 마나티 항구에 도착했지만 승객들은 내리지 못했다. 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0일간 배에 머물렀다. 그사이 배가 수도 아바나 쪽으로 갔다 돌아오는 해프닝도 겪었다. 마침내 하선한 승객들은 사탕수수 농장으로 향했다. 집과 밭을 장만하고 공부도 하리라는 꿈을 안은 채 쿠바에 정착한 이방인, '꼬레아노'라 불린 한국인 300여 명. 낯선 지구 반대편의 일상이 어찌 녹록했으랴. 꿈과 다르게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한인회를 조직했으며 1945년 해방 전까지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보냈다. 한인 쿠바 이주 100주년을 맞아 김동우 작가가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모았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으로 쿠바를 비롯해 미국 하와이, 중앙아시아, 중국 만주 벌판의 한인 흔적과 그곳에 사는 후손을 기록한 것이다. 마나티 항구를 방문한 작가는 공(空)을 발견했다. 실존했으나 현존하지 않는 100년 전 마나티 항구를 어떻게 해서든 담고 싶었다. 흐름을 멈춘 바다에 나무 혹은 돌이 행렬을 이루어 육지로 향한다. 1921년 3월의 '꼬레아노'처럼, 그들의 꿈과 삶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저 바다와 하늘에 어려 있다. 

\* 서울 근현대사기념관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전, 8월 18일까지. 문의 02-903-7580

# travel

- 072  
태고와 미래가 공존하는 연천 여행
- 100  
바다의 위로, 양양 낙산사
- 112  
느리게 흐르는 풍경,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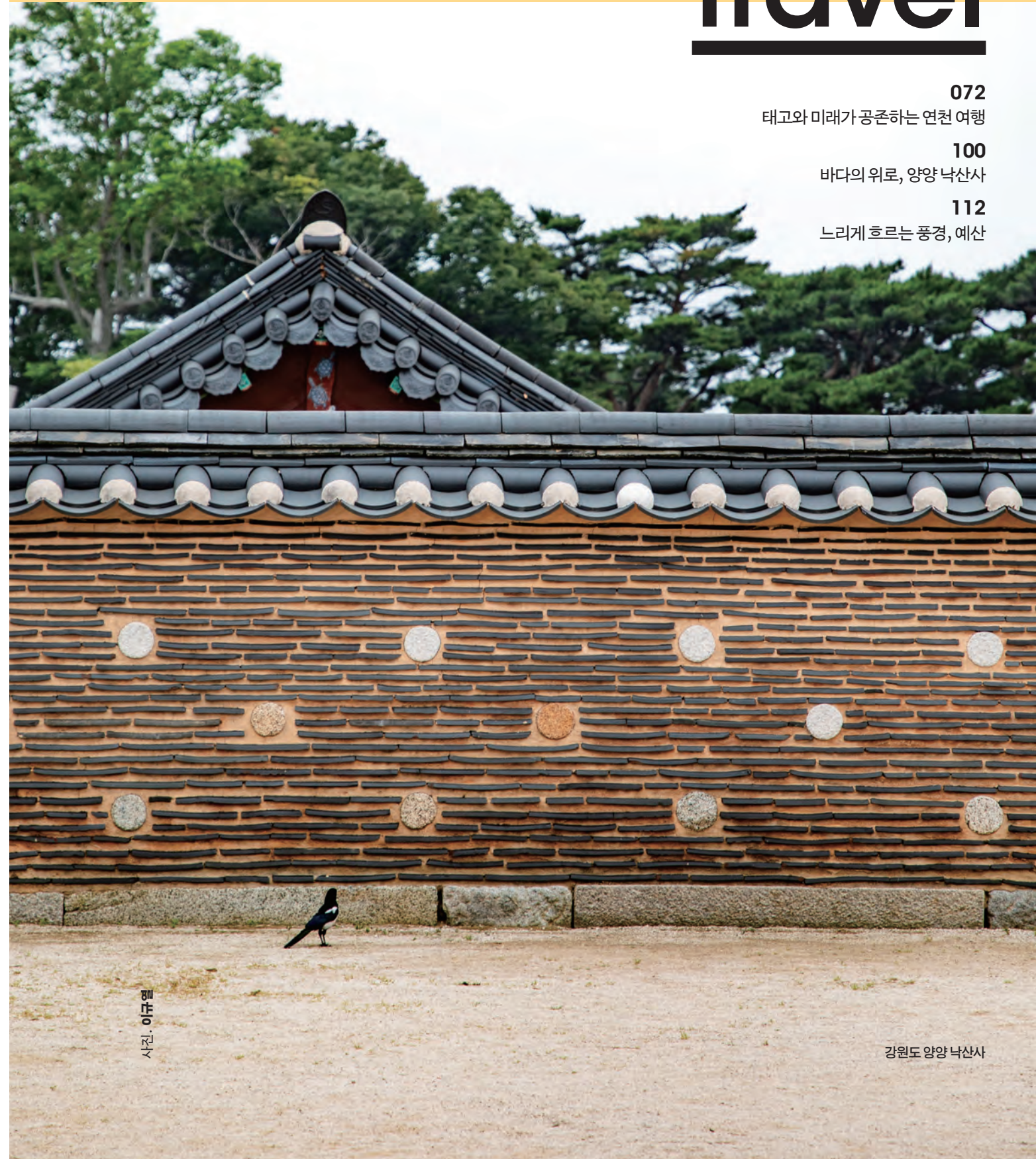


사진. 이규현

강원도 양양 낙산사

# 천상의 화원 곰배령

강원도 인제 곰배령에 여름 야생초가  
만발했다. 해발 1164미터 곰배령 오르는  
길에서 하늘이 가꾼 화원을 감상했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햇살이 겨우 파고드는 울창한 숲속에 야생초가 자란다. 광릉갈퀴, 산평의다리, 큰뺨무, 국수나무, 초롱꽃, 미나리아재비가 망울을 열고 잎을 펼쳤다. 누가 무엇을 떠올렸기에 이리 예쁜 이름을 지었나.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꽃은 다가와 마음의 꽃이 되어 준다. 언젠가는 나비가 날아왔다. 이리저리 날갯짓하다 내려앉고는 한동안 머무른다. 너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까. 나비가 놀라지 않게 몸가짐을 얹전히 하면서 꽃 이름을 속삭이는 일이 이 순간의 전부다. 아직 초입이니 곰배령은 한참 걸어야 한다. 숲속은 계속 햇살이 드물고, 서늘한 공기는 걷는 이의 땀을 식힌다. 길옆에 야생초가 핀 숲, 곰배령 가는 오솔길에서 오르다 멈추고, 들여다보다 다음 꽃을 찾으려 발걸음을 옮긴다. 그곳에 닿기 위함이 아닌 지금 여기에 닿는 길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제 곰배령 풍경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생식물의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만나는 점봉산에는 한반도 자생종의 20퍼센트인 850종의 식물이 산다. 점봉산 자락에서 곰이 배를 하늘로 향하고 누운 형상의 해발 1164미터 고개가 곰배령. 점봉산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출발한 지 2시간, 갑작스레 숲길이 끝나고 광활한 초지가 나온다. 여기저기 야생초가 군집한 초지 너머로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봉이 한눈에 잡힌다. 하늘이 제가 감상하려 가꾼 화원인 양 높게 솟은 고개에 햇살이 쏟아진다. 서느렁던 오솔길도 좋고, 별이 내리쬐는 곰배령도 좋다. 다른 계절엔 어떤 이름의 야생초가 발걸음을 멈추게 할지. 까실쑥부쟁이, 노랑물봉선화, 각시취, 애기얇은부채, 수리취, 눈피불주머니... 그때도 나비가 날아오겠고, 나는 다시 몸가짐을 압전히 하면서 이름을 속삭일 것이다. **☑**

# 태고에서 미래까지, 연천 시간 여행

경기도 연천은 모든 시간을 아우른다.

오랜 지각운동과 격전의 역사가 연천에 새긴 무늬를 들여다봤다.

글. 김규보 사진. 신규철

**50만 년 전에 분출한 용암이 굳고 파이면서 형성된 재인폭포를 걷는다.  
수십만 년 전 땅을 통째 들어 옮긴 듯 생생하다.**

자연을 앞에 두고 말을 잇을 때가 있다. 규모에 압도되는, 혹은 작더라도 온 세상이 다가오는 생명에 매료되는 순간이다. 산과 강, 나무와 꽃이 가슴에 어리고 사위는 고요해진다. 그곳에서 종종 마주하는 역사의 흔적은 보여 준다. 자연이 늘 함께해 주었다는 사실을. 경이로운 풍경과 장구한 역사를 침묵하며 응시하는 곳, 여기는 경기도 연천이다.

There are times when nature leaves us speechless. Its grand scale is overwhelming, and we are impressed by how even the smallest element is a universe in itself. The traces of history are evidence that nature has been by our side all along. Yeoncheon in Gyeonggi-do Province boasts spectacular scenery and a rich history.

시간을 응집한 물과 돌의 향연, 재인폭포

후하게 쳐도 100년을 살 뿐인 인간에게 50만 년은 아득한 시간이다. 25년마다 세대가 탄생한다면, 이다음 2만 번째 세대에 이르러야 우리와 그들 사이에 50만 년의 간격이 놓인다. 실은 2만조차 인간이 쉽게 셈할 수준을 뛰어넘는다. 오늘 일어난 일이 옳다 그르다 분별하기에도 바쁘데 영원 같은 세월에 마음을 낼까. 여유로워도 헤아릴 이유는 굳이 찾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강원도 평강군 오리산과 이름 없는 해발 680미터 산이 용암을 분출했다. 땅을 달구면서 연천에 내려온 용암은 어떤 지점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50만 년 전, 재인폭포의 기원이 된 사건이다.

Jaerin Falls, a Chapter of History

Five hundred thousand years is a length of time difficult to fathom. Most of us are busy enough with our daily routines, and cannot afford to ponder long. Even if we do have the time, we wouldn't spend it on trying to understand the days gone by.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ago, lava flowed out from Orisan Mountain and an unnamed 680-meter-tall mountain. It made its way down to Yeoncheon, and shifted northwards at some point. This incident, dating back to 500,000 years, was what led to the



nature

지난해 10월, 재인폭포 협곡을 가르는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데크 길을 만들었다. 다리에선 폭포와 한탄강으로 굽이치는 물줄기를 동시에 내려다볼 수 있다. 문의 031-839-2277



## 폭포를 휘도는 길에 햇살이 비친다. 침묵하며 자연에 귀 기울인다.

이후 12만 년 전까지 두 번 더 연천에 닿은 용암은 그 위치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용암이 굳어 형성된 현무암 지층을 계곡물이 깎았다. 지층은 매년 몇 센티미터 또는 몇 밀리미터씩 파이고 물러났다. 그렇게 재인폭포는 원래 자리에서 380여 미터 후퇴해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얼마 되지 않는 문장에 수십만 년을 담았다. 이제 뭉친 시간을 직접 만날 차례다.

지난해 10월에 설치한 출렁다리를 타고 협곡을 가른다. 지금껏 경험한 출렁다리 중 가장 출렁이는 다리에서 재인폭포를 내려다본다. 숨 가쁘게 달린 양쪽 주상절리가 수렴하는 아스라한 점이 물줄기를 쏜다. 걸림 없는 자유자재한 흐름이 폭포 아래를 지나 출렁다리 밑을 통과한다. 주상절리 사이를 굽이치는 물줄기는 곧 한탄강에 합류한다. 태고의 한때에 발원한 길이 영원 같은 세월을 건너 눈앞에 펼쳐진다. 멀리서 보아도 수십만 년 전 땅을 통째 들어 옮긴 듯 생생하다. 묘한 기시감에 잠긴 채 다리에서 이어지는 데크 길을 걸어 협곡 바닥을 밟는다. 점점 가까워진다. 햇살을 받기 위해 지붕을 걷은 회랑인 양 밝은 협곡 끝으로 나아간다. 물기 스민 바람이 서늘하다. 팔팔대는 메아리가 커진다. 출렁다리에선 점이던 절벽 위가 순식간에 무한 흐름의 근원인 폭포로 변모한다. 시간을 응집한 물과 돌이 축제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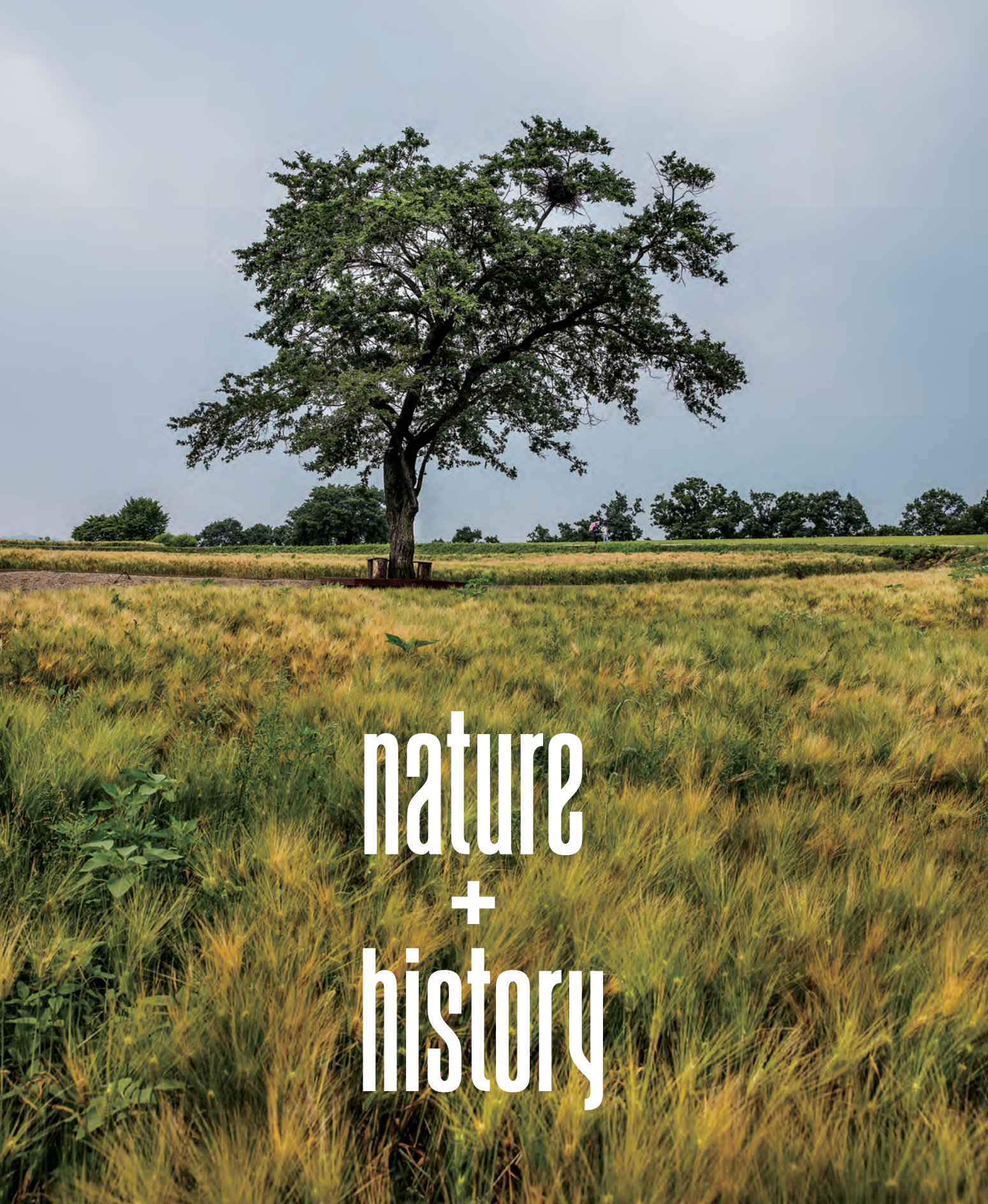


formation of Jaein Falls. The ups and downs in the landscape are like the unyielding spirit of one who does not succumb to failure, but gets back up to try again.

I look down at Jaein Falls from the suspension bridge that opened last October. The columnar joints converge into a distant dot, from which water rushes down. I am transfixed by the scene that unfolds before my eyes. The scale and grandeur of nature can be felt even from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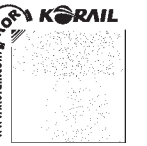
용암이 만든 지형은 100미터 정도 남았다. 폭포가 절벽을 계속 깎으니, 몇만 년쯤 뒤엔 주상절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볼 수 없다. 그를 기점으로 수억 년 전 지형이 드러난다. 자연은 변화한다. 지금의 재인폭포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은 또 다른 풍경이다. 그래서 층층이 쌓인 돌과 세찬 폭포, 그 틈에 자란 풀이 모두 소중하다. 절벽을 거슬러 오른다. 재인폭포를 휘도는 길에 나무가 우거졌다. 폭포 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눈부시다. 사위는 고요해진다. 역겹을 지나 다시 역겹으로 향하는 자연을, 우리는 침묵하며 응시했다.

distance, and it appears to be just as magnificent as it was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ago. The deck at the end of the bridge leads me to the canyon. With each step, I am getting closer to the waterfall. Here, the air is notably cooler. The sound of the thundering cascade is becoming louder. The dot that caught my eye from atop the suspension bridge turned out to be a glorious source of energy and wonder, that is, the top of the waterfall. The water and rocks are playing



nature  
+  
history

## 삼국시대 격전의 현장이던 호로그루 앞에서 청보리가 익어 간다. 전쟁의 상흔을 지운 성이 평화로운 순간을 선사한다.



상대가 한 걸음 물러서야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전쟁은 역사에 흔히 등장한다. 생사의 백척간두에서 시대는 저마다 수완을 모아 최적의 장소에 시설을 구축한다. 들어가려 싸움을 걸고 지키려 방어한 격전지에 어김없이 둔 성 가운데 하나가 호로그루. 삼국의 영토 분쟁이 한창인 6~7세기에 고구려가 임진강 주상절리를 천혜의 성벽으로 활용해 지었다. 시작점이 50만 년 전에서 1500여 년 전인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지만 이 또한 가마득하다. 치열한 현장의 잔영이라도 목격할 수 있을는지. 바짝 긴장한 이들이 임진강 너머를 망보고, 칼과 화살촉이 수시로 번뜩인 성이 언덕에 홀로 우뚝하다. 앞에서는 청보리가 누렇게 익어 간다. 강바람과 산바람이 번갈아 밀려든다.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린다. 서걱거리는 들녘에 정취가 가득하다. 호로그루 위에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사진을 찍느라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역광에 실루엣으로 보인다. 희미하게 여울지는 그림자놀이를 지켜본다. 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 우리가 바라보는 전부가 되어 준다. 전쟁의 상흔을 지운 건 세월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꽃과 바람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며 청보리가 눕고 서는 들길을 걷는다.

host to a festival of nature.  
I take the upward path along the cliff. The trail that wraps around Jaein Falls passes a lush forest. The sound of the waterfall grows softer, and my eyes are dazzled by the bright sunlight. Witnessing the timelessness of nature, I was once again reminded of the insignificance of human existence.

In war, we have room to take a step forward only if the enemy takes a step back. Horogoru is one of the fortresses that have endured the test of time. Built on a site near the Imjingang River, the fortress blocked out invaders using the Jusangjeolli Cliff during the sixth to seventh centuries. This is the very spot where soldiers kept guard when Goguryeo, Baekje, and Silla battled over lands surrounding the river. The field of barley below is turning yellow. The leaves that dance gently in the wind add to the relaxing atmosphere. Visitors are busily taking photos against the lovely backdrop, and they







격전의 현장에서 휴식의 공간으로, 호로그루

호로그루에 올랐다. 남서 방향으로 누운 임진강이 거대한 운슬을 비친다. 빛을 심은 경작지처럼 반짝이는 강, 빛에 둘러싸여 고기를 잡는 낚시꾼, 빛이 감은 모래벌판과 숲 광경이 드넓게 퍼진다. 성벽 둘레가 400미터 남짓한 호로그루의 남편과 북편 방위는 주상절리의 몫이었다. 강을 건너 깎아지른 절벽을 붙잡고 성을 공격할 방도는 없다가 한 지세기기에 가능했다. 우회할 곳이 드문 요충지를 몰색해 호로그루를 세울 때, 용성의 꿈은 아주 먼 훗날에 가닿았을 테다. 번영은 무너지고 패망의 찰나도 흩어져 희뿌연 지평선으로 사라진 호로그루에 평온함이 맴돈다. 역사를 몰라도 거닐며 누리기에 더할 나위 없다.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자연에 의탁한 삶을 생각한다. 창칼을 쥐었던 병사에게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여행객에게도 운슬은 환하다. 들녘에선 햇발을 흡수한 청보리가 임진강과 함께 빛난다. 시간의 궤적을 수놓은 자연은 항상 이렇게 푸르니, 사람들은 온통 찬란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 호로그루를 내려와 청보리밭을 스친다. 뒤편에서 여전히 실루엣들이 분주하다.

appear as silhouettes from where I am. I find it hard to imagine a dark past behind these peaceful, beautiful moments. Is it time, people, or the flowers and wind that erased the wounds of war? Tossing this question into the air, I walk through the field of barley.

From Battleground to Rest Area

I headed up the fortress. The Imjingang River, which lies in the southwest direction, is glistening in the sun. The fortress has a circumference of around 400 meters, and was protected on the southern and northern sides by columnar jointed basalt cliffs. The lay of the land is such that invaders cannot imagine crossing the river and climbing the cliffs. Not surprisingly, Goguryeo chose this site for the fortress because such qualities made it a strategic point of defense. The collapse of the kingdom shattered the dream of prosperity, and in contrast to



삼국의 영토 분쟁이 한창인 6~7세기에 고구려는 주상절리를 천혜의 성벽으로 활용해 호로그루를 지었다. 현재는 임진강 전망과 들녘이 아름다운 연천대표 여행지로 손꼽힌다. 문의 031-839-2144



호로그루 오른편으로  
해가 떨어진다.  
치열한 격전의 나날을  
기억하는 호로그루가  
청보리 익어 가는  
들판을 말없이 바라본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호로그루 등 연천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경원선 동두천역-연천역 구간 전철화  
공사로 열차운행을 중단했다. 경기도 동두천  
동두천역에서 경원선 공사 완료 시까지  
운영하는 대체 운송 버스를 타고 연천 한탄강역,  
연천역, 신망리역 등으로 갈 수 있다.



## 한국전쟁의 상처를 딛고 선 신망리의 오늘이 평온하게 흐른다.

이제 70여 년 전 시간을 만난다. 한반도에 삼팔선이 그어지고 북한에 편입된 옷골은 한국전쟁 때 집중포화에 휩쓸린 데다 살아남은 주민마저 대부분 떠나 황무지가 되었다. 이를 남쪽이 수복해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피란민 정착지로 지정한다. 정착지 조성을 주도한 미군은 '뉴 호프 타운(New Hope Town)'이라고 이름 붙인다. 새 희망의 마을, 신망리다.

### 접경지대 연천의 이야기, 신망리

신망리에 도착했다. 남과 북의 군인이 낮과 밤에 번갈아 점령하던 혼돈의 공간, 폭격으로 초토화된 비극의 공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모이던 탄식의 공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한갓지다. 철로 변수풀에 반백 살 뒤집힌 자전거들이 가지런하게 놓였고, 뒷짐 지고 가는 주민은 영 멀어질 생각을 않는다. 적요한 길로 이따금 자동차 소리가 날아올 뿐, 쇠삭하는 바람 소리만 사방으로 번진다. 할 수 있는 만큼 느려지자 결심이라도 한 양 온 마을이 더딘 시간을 보낸다. 마을 가장자리 신망리역에 다다른다. 현재는 운행을 중단했지만 열차로 세 정거장만 가면 분단으로 끊긴 경원선의 남측 최북단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이다. 신망리는 엄연한 접경지대인 것이다.



its dark, intense past, you will find peace and serenity. The site makes for a great walk even if you are not familiar with its history. As I explore the area, I reflect on how we have been, and still are dependent on nature. The river sparkles for today's visitors, just as it did for soldiers who were armed with spears and swords. Like the river, the field of barley is basking in the sun. Nature has maintained its purity over time, and continues to illuminate our lives to this day.

“1955년 동지 사흘날에 신망리에 왔어. 얼마나 춥던지. 영하 33도까지 내려가더라니까. 구덩이를 파고 추위를 녹이며 기다리다 사격 훈련이 끝나자마자 달려가 탄피를 주워 팔면서 살았어.” “가난해서 중학교에 못 갔어. 대신에 밭일을 도왔지. 교복 입는 게 소원이었는데, 성인이 돼서야 야간학교를 다녔어. 이렇게 나이가 들어 통일도 못 보고 죽게 생겼네.” 신망리 마을박물관이 전시한 피란민 이야기다. 고작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는 아직도 서로 총을 겨누는 변경의 마을, 신망리가 찾은 희망은 무엇이였을까.

### **Sinmang-ri, a Border Town in Yeoncheon**

Sinmang-ri fell on the northern side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along the 38<sup>th</sup> parallel. The town was abandoned by the few villagers who survived the war, and was later restored to South Korea. In 1954, a year after the Korean War, Sinmang-ri was designated as a resettlement site for refugees, and named New Hope Town by United States Forces Korea. As



한국전쟁 피란민 정착지의 흔적이 곳곳에 있는 신망리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마을이다.  
현재 '비무장사람들' 주도로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 연천이 써 내려가는 희망

신망리 마을박물관은 지난 1월에 문을 열었다. DMZ 권역 깊숙이 들어가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 소모임 '비무장사람들이'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건립했다. 이후 비무장사람들 작가가 수집한 마을 관련 자료와 정착지 조성 당시 구호 주택 복원 설계도를 전시하고 마을 굵즈를 제작했다. 이젠 시작에 불과하다. 진나래 비무장사람들 대표를 비롯한 작가들은 땅을 잃은 사람에게 기회의 땅이 되어 준 신망리의 가치를 가시화하려 한다. 그들은 지뢰에 가족을 잃은 주민, 먹거리를 찾아 헤매야 했던 주민의 사연을 들었다. 그때를 기억하는 이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마저 가슴에 묻고만 있었기에 증발해 버린 뺨한 접경지대의 옛일이다. 마을을 구석구석 조사해 유래와 역사, 한국전쟁 전후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사진에 담기도 했다. 이를 다 아카이브로 묶었다. 기록은 전한다. 고통을 디딤돌 삼은 한갓진 지금이 마을이 찾은 희망이라는, 그래서 고통스럽던 과거와 언제 닳칠지 모르는 고난까지 희망의 증거가 된다는, 신망리의 이야기를 전하며 새기고 있다.

suggested by its name, Sinmang-ri is a town of new hope. It was occupied in turns by the two Koreas, and heavily bombed and destroyed. The town, once filled by the sighs of many refugees, now exudes a sense of calm. The peace and quiet are interrupted, every now and then, only by the sound of passing cars and the wind. Despite the message of hope delivered by Sinmang-ri, there are still soldiers pointing guns at each other in border towns a few kilometers away.

### Delivering New Hope

The Sinmang-ri Town Museum opened in January this year. It was established by Bimujang People, a group of artists working in the demilitarized zone. They exhibited materials related to the town's history and blueprints of temporary housing in the early days of resettlement, and even created merchandise. This was only the beginning. The artists hope to



고개를 숙인  
 '그리팅맨'은 뒤로 거느린  
 남쪽 산천과 함께  
 북녘의 안부를 묻는다.  
 하나 될 그때까지  
 평안하길.



history  
 +  
 nature

남과 북, '그리팅맨', 연천의 내일

태고와 삼국시대, 한국전쟁 시기가 대지에 각인한 무늬를 살폈다. 시대마다 자연과 역사를 그려모은 색으로 붓질한 무늬는 연천의 시간을 생생하게 끌어당겨 주었다. 퇴적, 단층, 격전, 상흔, 희망의 덩이진 세월을 품고 연천은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임진강 물줄기를 끄트머리까지 거슬러 가깝지만 멀고, 멀지만 가까운 그곳으로 간다. 차곡차곡 쌓아 오른 시간의 계단에서 마지막 걸음을 내밀기 위해.

옥계리에 다다라 자그마한 산에 든다. 오솔길을 통과해 옥녀봉에 당도할 즈음 나무 사이로 사람 조각상이 보인다. 다가갈수록 거대해지는 조각상은 북녘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뒤에서는 남쪽 산천이 늘어섰다. 조각상과 산천이 향하는 땅을 더불어 바라본다. 특 트인 능선의 바다, 임진강이 그리는 고운 만곡, 산과 하늘이 만나는 머나먼 저곳의 갈 수 없는 마을들. 유영호 작가의 '그리팅맨'은 고개 숙여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6년, 연천은 10미터 높이의 그리팅맨을 옥녀봉에 설치했다. 옥녀봉과 일직선에 놓인 북녘 황해남도 장풍군 마량산을 정면에 두고, '그리팅맨'은 매일 안부를 묻는다. 계획대로 마량산에 조각상이 들어선다면 남과 북은 마주 서서 인사하게 된다. 현실화된대도 막힌 통로가 한꺼번에 터지는 극적인 사건은 아니겠다. 다만 부술 것도 무너뜨릴 것도 없이, 담백하고 끈덕지게 거리를 좁혀갈 것이다. 소통과 존중이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듯이.

visualize the value of Sinmang-ri, which became a land of opportunity for those who lost their homes. They listened to the stories of villagers whose family members were landmine victims, and those who had to scrimmage for food in times of extreme poverty. They analyzed the general status of the town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and took photos of the elderly villagers going about their daily routines. Everything they recorded was put together to form an archive. The artists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spreading the message of hope and inspiration represented by New Hope Town.

Greetingman, Yeoncheon's Tomorrow

Yeoncheon is home to not only sediments and faults, but also the scars of war and hope. I head northwards, in the direction opposite to the flow of the Imjingang River, to a place that is near but far, and far but near. I arrive at a trailhead at the foot of a mountain in Okgye-ri. Just before reaching Oknyeobong Peak, a huge statue greets me from between the trees. It is bowing towards the north. I look down at the vast ocean, the gentle curves of the Imjingang River, and the towns beyond the border that we cannot

# 초록 숲과 푸르디푸른 임진강이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깝다. 개안마루에서 눈이 열리는 장관을 감상한다.

‘그리팅맨’에서 울무밭이 줄지은 비탈을 걸어 나간다. 풍경이 시나브로 선명해진다. 이리저리 휘고 위아래로 요동치는 길이 연천이 간직한 비밀의 장막을 찬찬히 연다. 30여 분 지나 내리막길이 나오며 장막은 자취를 감춘다. 초록 숲과 푸르디푸른 임진강이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깝다. 옥녀봉에 쏟아지던 풍경을 날날이 확대해 한가득 펼쳐는 개안마루, 눈이 열리는 장관을 보면서도 본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 꽃봉오리가 벌어지고, 강물이 미끄러지고, 능선이 오르내리는 자연이 재인폭포에서같이 자유자재하다. 임진강 건너편은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민통선 구역이다. 개안마루 뒤로 우리가 아는 모든 땅이 있고, 앞엔 알아 가야 할 모든 땅이 있다. 누군가에게 최북단이고 다른 이에게 최남단 부근인 이곳에서 감은 눈을 열어젖힌다. 인간이 서로 맞다 틀리다 판가름하는 동안에 자연은 몸을 내맡겨 연이어 흘렀다. 북쪽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내려와 흐르는 저 임진강처럼. 마지막 계단을 밟고 본다.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정말 아름답다. 자연과 역사를 그려모은 색으로 붓질한 무늬는 미완이다. 오늘도 연천은 그리고 색을 넣는다. 그림을 완성하는 날,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축제가 열릴 것이다. ☑

cross. The 10-meter-tall Greetingman, created by the sculptor Yoo Young-ho, was installed on Oknyeobong Peak in 2016. The sculpture stands before Maryangsan Mountain in Jangpung-gun County, Hwanghaebuk-do Province, and seems to be respectfully greeting North Korea. If all goes as planned, another Greetingman will be installed on Maryangsan Mountain so that there are two sculptures exchanging bows. I make my way back down the slope. After following a curvy path for about 30 minutes, I am rewarded by the most breathtaking of views. The spectacular scenery that impressed me at Oknyeobong Peak is now magnified, and the experience is simply indescribable. Across the Imjingang River is the civilian control zone—the northernmost point to some, and the southernmost point to others. Nature has maintained its course even as humans fought over right and wrong. The Imjingang River flows from north to south, and we still have much to learn. ☑



2016년 연천은 민통선을 조망하는 옥녀봉에 남과 북의 소통과 화해를 기원하며 유명호 작가의 조각상 ‘그리팅맨’을 설치했다. 옥녀봉에서 도보로 30여 분 거리에 개안마루 전망대가 위치한다.



## 연천의 또 다른 볼거리



### 백학역사박물관

주민이 뜻을 모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 마을의 역사를 갖가지 유물로 보여 주는 공간이다. 국가보훈처가 호국영웅 정신계승마을로 지정한 백학면의 주민들이 2018년에 탄알과 탄피, 철모, 국가유공자 기념 모자 등 소장품을 기증해 박물관을 조성했다. 연천 두일리만세운동과 한국전쟁의 치열한 전투 현장을 그린 벽화도 감상할 수 있다. 한국전쟁 유공자 14명의 사진과 관련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도 흥미롭다. 문의 031-835-7935



### 임진강 주상절리

지난해 7월, 임진강 주상절리를 포함한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도 철원에 걸친 스물여섯 곳의 지질 명소가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임진강 주상절리는 강 하류를 따라 병풍처럼 펼쳐진 연천의 대표 지질 여행지다. 25미터 높이의 주상절리 장관이 이어지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탄강 주상절리와 달리 상부가 연약해 종종 절리 일부가 떨어지는 풍경도 이색적이다. 문의 031-839-2277



### 고랑포구 역사공원

삼국시대에 임진강을 통한 물류의 중심이던 사가드나드는 길목이었던 고랑포구.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임진강 일대 경제를 휘어잡을 만큼 오랫동안 번영을 누렸다. 고랑포구를 드나든 황포 돛배와 20세기 초·중반에 들어선 금융기관, 우체국 등의 조형물에서 그 시절을 생생히 들여다본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체험하는 증강현실, 인터랙티브 게임 같은 체험도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즐길 거리다. 문의 031-835-2002

## 연천의 맛있는 먹거리



### 헨델스라르고

곳곳에 조각 작품이 놓인 정원에서부터 마음이 고요해진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클래식 음악과 주인장의 넉넉한 웃음이 공간을 가득 메운다. 갤러리인지, 콘서트홀인지 모를 분위기에 취해 몸이 더욱 이완된다. 돈보다 마음의 여유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대표 부부는 음식 또한 별이의 수단인 아닌 사랑을 공유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바질 등 직접 키운 식재료를 정성을 다해 요리한 버섯돈가스, 치즈돈가스가 사랑스럽다. 문의 031-832-1430



### 압록강면옥

연천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냉면집이다. 1999년에 오픈해 지금까지 정통 평양냉면을 선보여 왔다. 사골과 닭발 등 열두 가지 재료를 넣어 우린 육수와 메밀가루를 섞은 면의 조합이 고소하고 깊은 맛의 향연을 펼친다. 밀가루는 쓰지 않고 메밀로 빚어 속을 채운 메밀왕만두 역시 이 집이 아니면 쉽게 맛보기 힘든 메뉴. 냉면과 만두를 함께 먹어야 더욱 맛깔나기에 단골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주문한다. 문의 031-835-7224



### 유일순대국

신망리의 터줏대감 격인 식당으로, 1970년부터 한자리를 지켰다. 대형 가마솥에서 24시간 사골을 고아 낸 육수에 순대와 부속 고기를 푸짐하게 내는 것도 50년 전 그대로다. 미리 간을 맞춰 건네는 순댓국에 밥과 다진 고추를 넣고 쓱쓱 말아 입에 넣자 풍미가 진하게 변신한다. 쫄득한 고기, 시원한 국물을 푹푹 먹고 나니 포만감이 밀려온다. 오직 이 순댓국을 먹으려 신망리를 찾는 사람도 많다. 문의 031-834-0522

전국  
우수 숙소

청송

# 고풍스러운 아늑함 한옥 스테이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북 청송 덕천마을의 한옥 세 곳을 소개한다.

글. 진주영 사진. 신규철



한국관광 품질인증  
KOREA QUALITY

'여행자의 방'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업소가운데 엄선한 숙소를 소개합니다.

KOREA QUALITY



한국관광 품질인증

취재 리포. 한국관광공사

## 친척 집 같은 정겨운 고택 송정고택

귀여운 삼살개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마중 나온다. '송정고택'의 마스코트 복돌이다. 송정고택이 속한 덕천마을은 600년 역사를 지닌 전통 마을이다. 2011년 퇴직한 남편과 함께 고향 집으로 돌아온 심중옥 대표는 20년간 비었던 고택을 쓰고 닦았다. 그때 방충망과 에어컨, TV도 설치했다. 현대 문물을 들였어도 고택의 정취는 여전하다. 손님방으로 내어 주는 안채와 사랑채엔 의친왕 친필 현판, 문인화 병풍 등 선인의 자취가 가득하다. 하나둘 살피면서 이곳 역사를 되새긴다. 나무, 흙, 돌로만 지은 방 안에서 보드라운 무명 이불을 덮으니 잠이 솔솔 온다. 아침이면 마당에서 키우는 닭이 기상나팔을 부는다. 산책할 겸 과거 철기 이범석 장군이 명상했다는 뒷산으로 올라간다. 고즈넉한 마을 전경을 내려다보며 사념을 털어 낸다. 고택에 머무는 동안 마음 넉넉한 주인 부부가 살뜰히 챙기니 친척 집 같은 편안함에 장기 숙박하는 손님도 많다. 바로 옆 텃밭에서 수박 등 제철 작물을 수확하는 기쁨도 누린다. 여름밤엔 반딧불이가 고택의 밤을 밝힌다. 잊지 못할 하룻밤이다.

### INFORMATION

주소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1 문의 054-873-6695  
홈페이지 blog.naver.com/peacej3012  
주변 여행지 기암괴석과 계곡이 빚어낸 절경, 주왕산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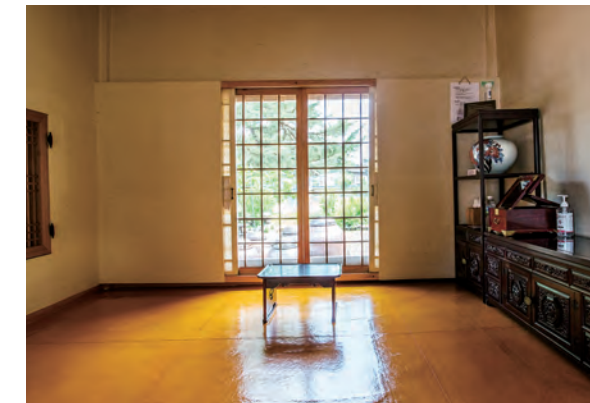


### 숙소의 보물 1호



#### 철기 이범석 장군의 친필

1959년 사랑방에 한 달여 머문 이범석 장군이 선물한 글귀다. 심중옥 대표의 부친인 심명섭 선생과 나눈 우정, 청송에 대한 애정을 담아 썼다. 사랑방에 소중히 보관 중이다.







## 삶의 여유를 선사하는 숙소 찰방공중택

600년 전 덕천마을에 터 잡은 청송 심씨 찰방공파의 종택이다. 여러 번 화재를 겪어 1933년에 새로 지은 종택은 2009년 청송군 향토유형 문화유산 제13호로 지정되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과거 동네 서당 역할을 톡톡히 한 이곳엔 여전히 많은 이가 오간다. 2014년 한옥 스테이를 시작한 이후 소박하고 정겨운 고택으로 사랑받아 왔다. 찰방공의 12대손인 심재홍 대표와 그의 아내 김순한 씨가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심 대표는 이곳에서 나고 자라 7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켰다. 부부의 공간을 조심스럽게 둘러본다. 어머니가 수를 놓은 병풍과 결혼할 때 가져온 함처럼 무심한 듯 놓였으나 사연 깊은 골동품이 여럿이다. 부부가 반질반질하게 관리한 사랑방, 안방, 작은방, 상방, 별채 등 다양한 규모의 방에서 편히 묵어간다. 조용한 전통 마을 안쪽에 위치해 더욱 고요하다. 대청마루나 들마루에 누워 하루 종일 하늘만 구경해도 괜찮은 곳이다. 마당 한편에서 투호, 굴렁쇠 굴리기 같은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마련해 놨다.

### INFORMATION

주소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23-8 문의 010-9502-7611  
 홈페이지 chalbanggong.modoo.at  
 주변 여행지 몽환적인 물안개가 아름다운 저수지, 주산지



숙소의  
보물 1호

대대로 사용해 온때 물은 께짝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사용한 께짝이 여전히 종택의 중심을 지킨다. 책을 보관하던 물건이라 집안 어른의 일이 담겼다는 생각에 여러 가보 중에서도 특히 아낀다.





## 풍류 넘치는 한옥 체험 청원당

향긋한 차향이 가득한 한옥에서 하룻밤 쉬어 간다. 세 채 규모의 '청원당'은 손님방과 주인방, 다도 체험관으로 나뉜다. 손님방은 하루에 한 팀만 이용하는 독채여서 내 집처럼 편안하다. 이곳 손님은 할 일이 많다. 우선 한국차인연합회 영은다례원장인 최영희 대표에게 다도를 배워 본다. 기본예절부터 차근차근 알려 줘 부담이 없다. 도포를 걸치고 서 차 한잔에 한식 디저트까지 곁들이니 옛날 선비가 된 기분이다. 이후엔 마당에서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공기놀이 같은 전통 놀이를 하느라 지루할 틈이 없다. 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한 옷을 던지는 재미가 쏠쏠하다. 손님이 바쁜 일과를 소화하는 사이 최영희 대표도 분주히 움직인다. 이튿날 조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청송 달기약수로 지은 밥,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요리한 여러 가지 반찬을 손님상에 올리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오래된 기와로 정경계 꾸민 정원에는 푸릇한 수목이 쑥쑥 자라는 중이다. 정원 곳곳에 마련한 야외 테이블에서 소곤소곤 담소를 나눠도 좋겠다.

### INFORMATION

주소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3  
문의 010-3530-6119 홈페이지 chungwondang.modoo.at  
주변 여행지 조선의 풍류가 흐르는 정자, 방호정



### 숙소의 보물 1호



### 손님이 남기고 간 방명록

아이부터 어른까지 청원당을 거쳐 간 이들이 꼭꼭 눌러 쓴 감사 편지가 줄줄이 이어진다. 글씨만 봐도 손님과의 추억이 떠오른다. 최영희 대표가 시간 날 때마다 펼쳐 보는 보물이다.



# 꿈의 바다에서 바람 한 조각, 낙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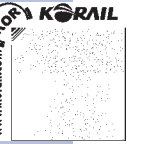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 천년 고찰 낙산사의 소나무와 너른 바다가  
지친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인다.

글. 표다정 사진. 이규열



# 洛山寺

••  
양양에서 가까운 역은 강릉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산천을 타고 강릉역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동해가 바라보이는 오봉산 자락에 671년 창건했다. 원통보전 마당에 있는 칠층석탑은 보물 제499호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길 반복한다. 퇴근하면서도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되풀이되는 일상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어디로 가야 휴대전화를 놓고 쉴 수 있을지 고민하다 강원도 양양을 떠올렸다. 양양에 간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냈다. 양양에 처음 방문해서다. “어딜 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옆에 아홉은 낙산사를 추천했다. 달려갈 준비를 마쳤으나 화창하다가도 흐린 게 바닷가 날씨. 몇 시간 전만 해도 쾌청할 거라 했는데 다음 날 비 예보 때문인지 갑작스레 구름이 낀다. “그래도 괜찮아.” 여름 별이 들지 않아 여행하기에 더 좋다고 나를 다독인다.

## 1350년 역사를 거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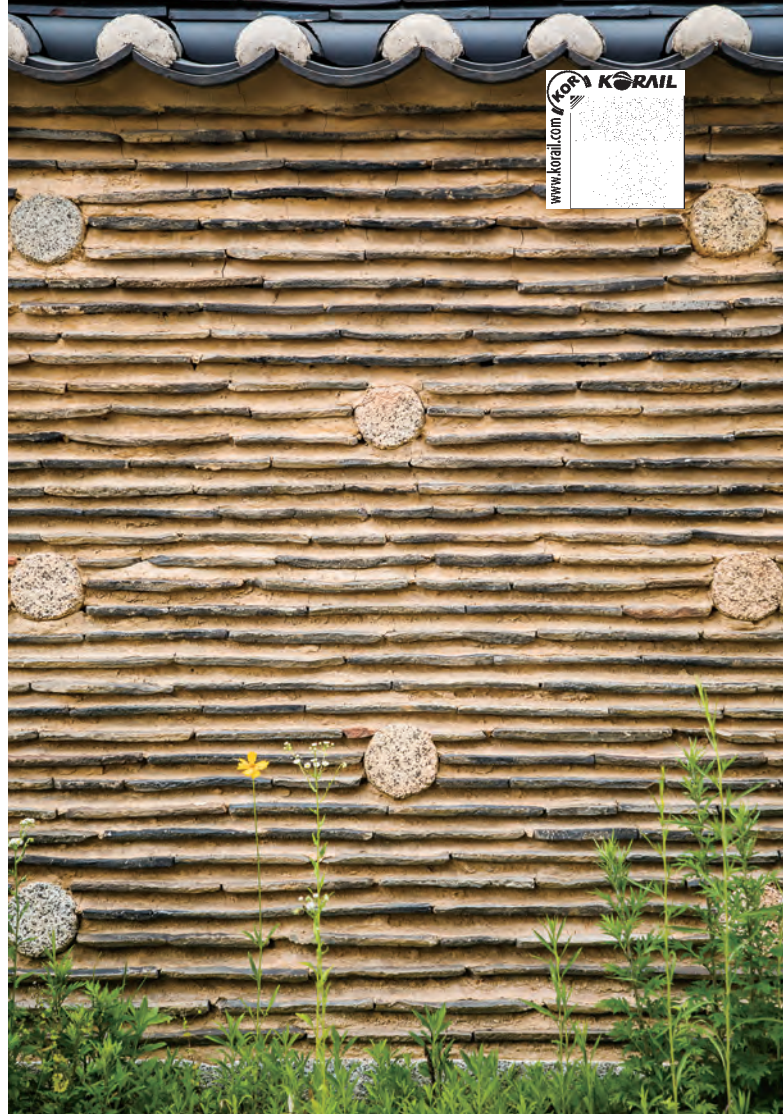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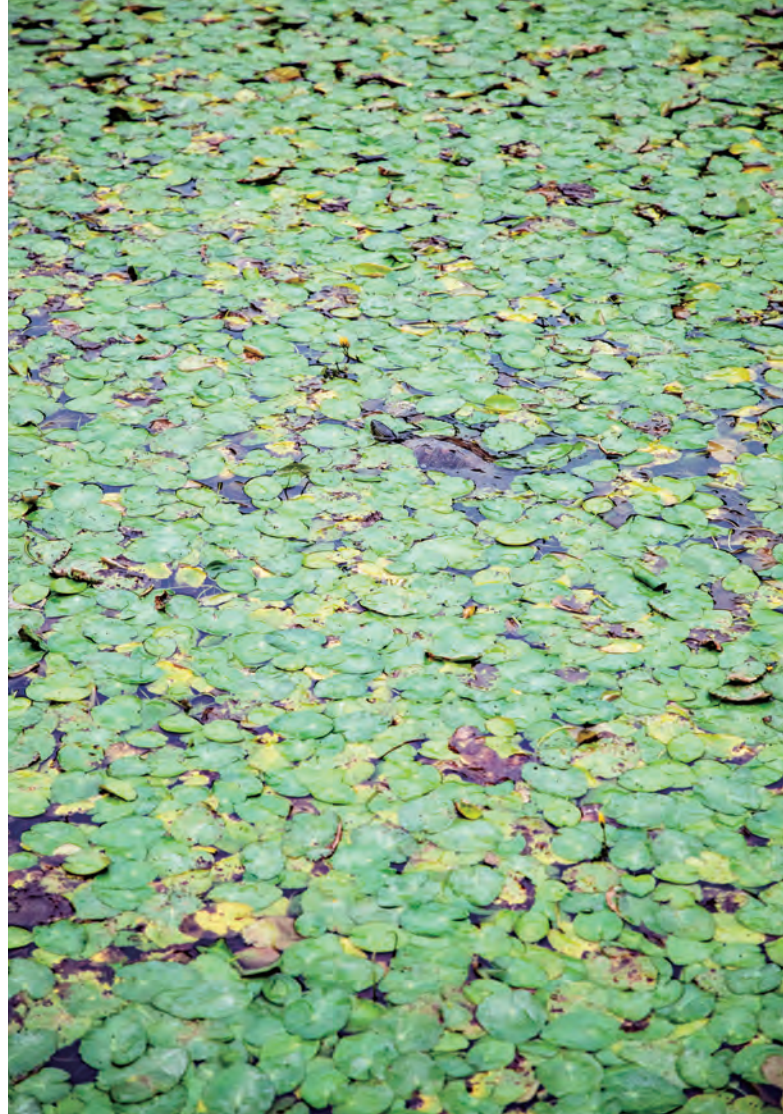
낙산사는 671년 의상대사가 세워 올해 창건 1350주년을 맞았다. 1350년이러니, 기능하기도 힘든 세월을 이 절은 버텨왔다. 쉽사리 지었다가 이내 허물어 버리는 요즘 세상에선 사랑을 받아도 금세 잊히기 마련. 낙산사는 세월을 초월해 사랑받은 절임을 짐작해 본다.

가장 먼저 여행자를 맞이하는 호젓한 소나무 숲길이 시원하다. 청아한 공기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발걸음이 경쾌해진다. 바삭한 흙길은 또 얼마 만인지. 걷다 보면 홍예문이 나타난다. 도시의 직선 건물과 다른 유려한 곡선 문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사찰은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로 붐빈다. 간절한 소원을 빌고자 온 불자, 템플스테이 참가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곳저곳 둘러보는 여행자까지. 다양한 사람이 각자 목적을 가지고 낙산사에 모였다. 먼저 낙산사의 중심 법당인 원통보전을 찾기로 했다. 멀리서 칠층석탑이 여행자를 환영하듯 서 있어 발걸음을 재촉해 보지만, 곧 속도가 잦아든다. 만물을 일깨우는 동종과 해를 맞이한다는 뜻의 누각 빈일루 등 낙산사에 깃든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앞으로 향한다. 보물 제499호 칠층석탑의 자태는 고상하다. 반으로 접으면 서로 들어맞을 정도의 완벽한 비율이다. 칠층석탑과 원통보전을 둘러싼 담장은 멀리서 보아도, 가까이 다가가 보아도 굽디굽다. 절을 방문한 여행객과 불자의 소망이 적힌 기와를 진흙과 번갈아 쌓아 완성한 담장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여럿이다.



‘근심이 풀리는 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등 낙산사에 난 길은 저마다 이름이 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해수관음상처럼 온화하다.  
문의 033-672-2447





관세음보살을 모신 원통보전으로 들어선다. 건칠관세음보살좌상의 온화한 미소는 속으로 꿈꿨던 근심을 털어놓게 한다. 관세음보살은 가만히 듣기만 할 뿐.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기에 해답을 찾는 일도 자신에게 달렸다. 내시반청(內視反聽).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뜻의 사자 성어가 떠올랐다. 여전히 관세음보살은 미소 지을 뿐이다. 답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으며 다시 길에 오른다.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낙산사는 산책하기 좋다. 거기다 길마다 의미 있는 이름도 가졌다. 원통보전과 해수관음상을 잇는 길은 '꿈이 이루어지는 길', 바닷가 절벽에 세운 정자인 의상대에서 흥련암까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부른다. 소나무 숲을 걷는 것

도 만족스러운데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니, 길을 오가는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밝다. 길은 스스로 만든다고 하지 않는가. 도시로 돌아가면 내가 걷는 모든 길을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이라 부를 테다. '꿈이 이루어지는 길'에서 소원을 쓴 연두색 리본이 바람에 팔랑 팔랑 나부낀다. '우리 가족 아프지 말기' '준비 중인 시험, 꼭 통과하게 해 주세요.' 꺾꺾 눌러 담은 누군가의 진심과 소망을 엿본다. 같은 글씨체 하나 없어도 뜻은 하나로 이어진다. 바로 '행복하게 살기'.

바다와 숲과 사찰의 조화

해수관음상이 자리한 마당은 낙산사에서 가장 높은 공간으로 바다를 관망하는 최고의 위치다. 시원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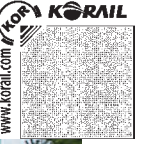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양양 낙산사 풍경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펼쳐진 절경에 배 한 척이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망망대해를 가른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옷깃을 스친다. 마당 한편에 자리한 범종은 누구나 타종할 수 있다. 다섯 살쯤 된 아이가 아빠의 도움으로 종을 친다. 범종에 당목이 닿았다가 떨어지자 은은한 소리가 공기를 통해 경내에 퍼진다.

의상대와 흥련암을 연결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에서 걸음을 잠시 멈춘다. 의상대사가 좌선한 의상대, 한껏 가지를 늘어뜨린 소나무, 푸른 바다, 벼랑에 아슬아슬 들어선 암자 흥련암까지 어긋남 없이 조화로운 풍경 앞에서 작은 소원이 생긴다. 의상대에서 일출 보기, 비 오는 날 낙산사 산책하기, 낙산사 템플스테이 참여하기 등 하고 싶은 것이 가슴속에서 흰 물결처럼 몽글몽글 솟아오른다.

# 襄陽



소나무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낙산해변을 따라 걸으면 연어 회귀 하천으로 유명한 남대천의 합수 지점이 나온다.

## 바다의 다독임

낙산사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낙산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 뒤편에는 길이 1킬로미터의 소나무 숲이 울창하다. 바다와 소나무 숲을 나란히 두고 걷는 호사를 누린다. 오늘은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어딘지 희미해 더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잘 정돈된 뚝 길을 거닐다 바다로 다가선다. 부드러운 모래를 맨발로 밟으려 신발을 벗었다. 발가락 사이를 간지럽히는 모래알, 적당히 습한 날씨, 조용한 모래사장. 완벽하다. 바다에 발도 담근다. 남대천과 동해가 만나는 지점에 다다라야 걸음을 멈춘다. 날이 좋으면 강과 바다의 색이 뚜렷해 예쁘다는 주민의 말에 다음을 기약한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온다. 사찰에서는 저녁 예불을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바다와 바람은 모래를 정돈해 내일을 준비한다. 우리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1000년 넘는 사찰에 하늘 높이 솟은 소나무, 너른 바다에서 다독임을 받았다. 잘 살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힘들면 이리 와서 쉬어도 된다고. 복잡하게 얽힌 마음에 쉽이 필요할 때 다시 낙산사로 와야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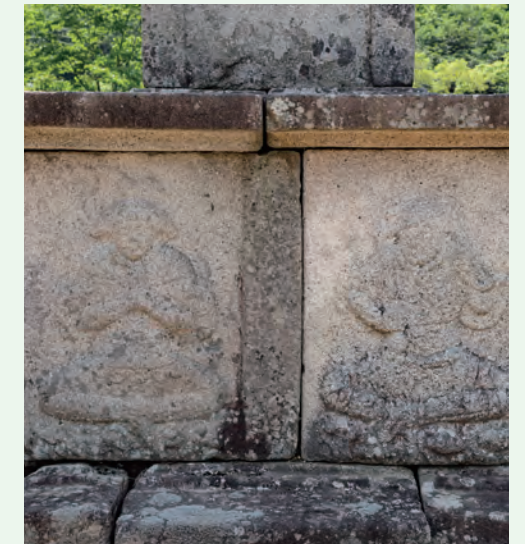


## 함께 돌아보면 좋은 양양의 불교 유적지



### 옛 진전사지&진전사

양옆에 뿔나무를 둔 돌계단을 오르자 높이 5미터의 삼층석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국보 제 122호인 삼층석탑 하단 기단에는 하늘을 나는 듯한 천인(天人)을, 상단 기단에는 불교의 여덟 수호신 팔부중상을 돌을새김 방식으로 새겼다. 돌을새김은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이 도드라지게 새기는 조각 기법이다. 수천 번의 손길로 완성했을 탑을 감상한다. 손가락 하나, 옷의 주름, 구름 한 점이 여전히 진한데 몇몇 천인은 칼로 도려낸 듯 얼굴만 사라졌다. 1975년 실시한 발굴 조사 당시 삼층석탑 주위에서 건물 터와 함께 진전(陳田)이라 새겨진 기와를 발견해 절 이름이 진전사임을 알게 됐다. 차로 3분 거리에 복원한 진전사가 있으니 함께 방문해도 좋겠다. **주소**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옛 진전사지), 강현면 화채봉길 368(진전사)



### 선림원지

선림원은 시냇물 소리가 시원하게 울리는 골짜기에 804년 무렵 창건했다. 선림원이 번성하던 시절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온다. 절에서 수행하는 이가 많아 끼니마다 쌀뜨물이 계곡을 뿌얌게 만들 정도였고, 그 계곡을 지금도 쌀미(米) 자를 써 미천골이라 부른다는 사실. 10세기 전후 태풍으로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사찰 전체가 무너진 것을 1965년에 정비해 지금 모습이 되었다. 허허로운 터를 보물 제444호 삼층석탑, 보물 제445호 석등, 보물 제446호 홍각선사탑비가 지킨다.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의 걸음을 비춥을 석등은 21세기 사람이 보아도 아름답다. 석등 밑받침돌까지 꽃 장식을 새긴 정성이 감동적이다. **주소** 양양군 서면 서림리 424



# 느려서 풍요로운 예산 걷기 여행

천천히 걸자 시야가 사방으로 넓어지고 마음도 넉넉해진다.  
충남 예산의 하늘과 물 위를 걸었다.

글. 이내경 사진. 신규철

예산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한 새마을호가 예산역에 안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자기 속도로 떠난 열차가 사람들이 내리자 미련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난다. 태어나 살다가 가는 인생의 기차길에서 정거장은 잠시 머무는 장소일 터. 지금은 어디쯤 도달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한 해의 중턱에 이르러 잠시 느슨해지고 싶었다. 느리게 살자는 '치타슬로(cittaslow)'를 추구하는 충남 예산의 특별한 길을 걸으며 삶을 사유했다.

### 마을의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다, 예당호

여느 날과 다르게 느긋하게 여행을 시작한다. 첫 여행지 예당국민관광지에 다른 시각이 점심때라 배부터 든든하게 채울 요량이다. 이곳에서만 맛보는 특별한 음식을 찾아 예당호 둘레를 드라이브한다. 2차선 도로 한편으로 야트막한 산에 둘러싸인 너른 저수지가 잔잔하고, 그 위에 하얀 양팔을 수변에 드리운 현수교 형태의 예당호출렁다리가 유려하다. 반대편으로는 식당과 카페 위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드문드문 눈에 띄는데, 어죽이라는 메뉴가 심심찮게 보인다. 예부터 예당호는 강태공이 모여드는 유명한 낚시터. 붕어, 잉어, 동자개, 폐기 등 수많은 민물고기가 서식해 호수에서 잡은 어류로 요리를 내는 음식점이 많다. 특히 민물고기를 오랜 시간 곤 후 고추장, 고춧가루, 민물새우를 넣고 끓이는 어죽은 이곳만의 별미다.

어죽 한 그릇에 기운을 얻어 예당호, 예당호출렁다리, 예당호조각공원을 아우르는 예당국민관광지로 들어선다. 둘레 40킬로미터, 동서 길이 2킬로미터, 남북 길이 8킬로미터에 달하는 예당호는 장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얽힌 사연도 굵직하다. 예산과 당진에 걸친 예당평야에 관개하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저수지 공사를 착수했으나 광복, 한국전쟁 등으로 지연돼 35년 만인 1964년에 준공했다. 이름은 두 지역의 앞글자에서 따 왔다. 최근 이곳은 호수 깊이 잠든 수몰 마을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2019년에는 높이 64미터, 길이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타고 예산역까지 1시간 40여 분이 걸린다.

예당평야에 물을 대는 예당호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 출렁다리를 건너고 음악분수를 감상하고 느린호수길을 걸으며 호수를 누린다.





예당호출렁다리와 음악분수는  
 고요한 예당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여행지이기도 하다.  
**문의** 041-339-8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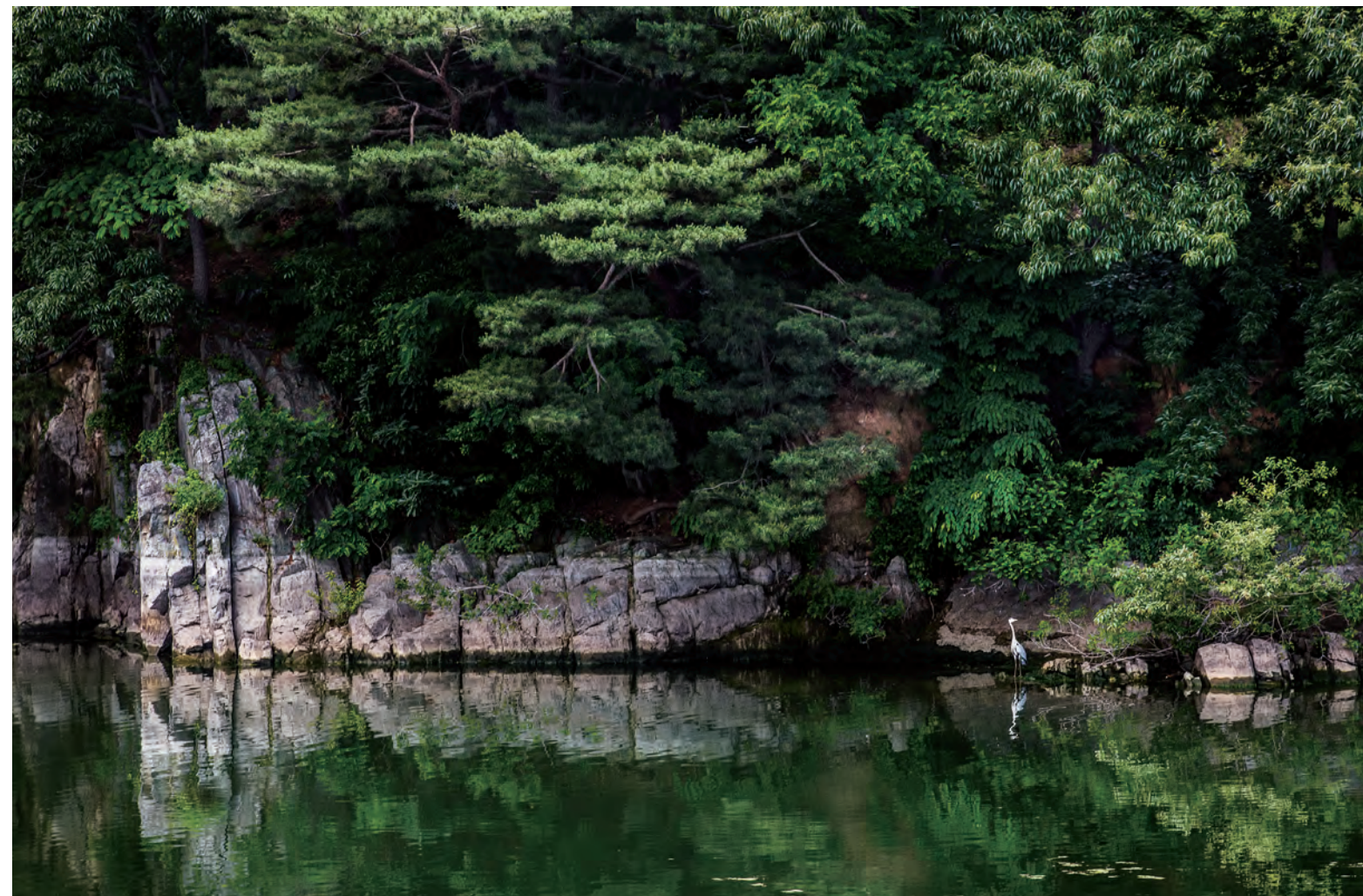
도심 속에서 종종대던  
 발걸음이 느린호수길에서는  
 한없이 느려진다. 속도가 더뎠지자  
 눈에 담은 풍광은 섬세해진다.  
 물에 반쯤 잠긴 아름다운 버드나무  
 균락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  
 민물고기가 산란하는 최적의 터다.  
 한 생명체의 생기가 다른 생명의  
 그늘이 되어 준다.

402미터의 예당호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을 개통했으며, 그 이듬해에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음악분수를 가동해 관광단지로 이미지를 탈바꿈했다.

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예당호출렁다리를 건넌다. 진도 7의 강진을 견디게 설계한 출렁다리를 가까이에서 보니 주탑 꼭대기가 황새 머리를 닮았다. 번식을 잇달아 성공시켜 고장의 상징이 된 천연기념물 황새를 모티브로 다리를 설계해 새가 날개를 펼쳐 상공으로 날아가는 모양새다. 마침 오후 2시, 가수 영탁이 부르는 '편이야'가 울려 퍼지자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분수가 크고 작게 솟아오르며 너울댄다. 여름날 신나는 춤사위 구경만으로도 시원하다.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후 2시·5시·8시·9시 등 네 차례, 주말에는 오후 7시 한 차례 더 운영해 총 다섯 차례 20분씩 가동한다.

물 위를 걷다, 느린호수길

예당호출렁다리가 자리한 응봉면 예당호수변공원에서 대흥면 예당호중앙생태공원을 잇는 7킬로미터 느린호수길에 자연스럽게 접어든다. 도심 속 봄비는 인파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종종대던 발걸음이 이 텍 길에서는 한없이 느려진



다. 속도가 더더지자 눈에 담기는 풍광은 섬세해진다. 호수 곳곳에 떠 있는 좌대를 보면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나 궁금해하다가 한가로이 오가는 민물고기를 발견하고, 이를 노리는 왜가리와 백로의 눈초리를 살핀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 눈치 보는 현장에 웃음이 나온다. 고요하고 즐거운 순간이다.

예당호중앙생태공원 경치는 또 다르다. 텍 길이가 가장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물위를 걷는 듯 착각에 빠지게 한다. 물에 반쯤 잠겨도 푸릇한 생명력을 뽐내는 버드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수변에는 농부가 곡식을 가꾼다. 아름다운 버드나무 군락은 민물고기가 뜨거운 햇빛을 피해 산란하는 최적의 터다. 한 생명의 생기가 다른 생명체의 그늘이 되어 준다.

### 청정한 자연을 닦다, 봉수산수목원

하늘에 다가선다. 예당호 서쪽에 보이는 해발 약 480미터 봉수산은 예산의 진산이다. 봉수산 자락에 2015년 개관한 봉수산수목원이 두 번째 목적지다. 봉수산수목원은 약 10만 제곱미터(3만여 평) 부지에 아열대식물이 자라는 전시 온실, 곤충생태관, 하늘데크,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해 지역 산천초목을 직접 느끼고 살피도록 돕는다. 산세를 인공적으로 다치지 않고 본래 지형을 살려가며 지었기에 봉수산 자연이 수목원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비탈진 초입에서는 잠깐 힘들지만, 곤충생태관 앞에서 경관을 내려다보는 순간 수고는 한순간에 잊힌다. 널리 펼쳐진 예당호가 한눈에 들어와 가슴이 후련하다.

곤충생태관은 봉수산에 서식하는 곤충은 물론, 곤충에 대한 상식을 배우는 전시관이다. 4억 3000만 년 전에 출현한 곤충이 지구 생명체 중 75퍼센트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입구부터 간단한 인포그래픽으로 배운다. 가장 흥미로운 공간은 봉수산에 사는 곤충을 보고 만지는 전시장. 이 꽃 저 꽃 오가며 수정을 돕는 뒤영벌이 날아다니는 전시장에 손도 넣어 보고 장수풍뎅이 애벌레도 만져 본다. 무엇보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박제 곤충 전시를 최소화한 것. 봉수



QR코드를 스캔하면  
예당호출렁다리 등  
예산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당호를 조망하는  
봉수산수목원은  
봉수산자연휴양림과  
이웃해 휴양하며  
머물기에 적당하다.  
문의 041-339-8936

곤충생태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박제한 곤충을 전시한다.  
곤충을 위하는 마음으로  
설립한 곳이다.



산 해발에 따라 서식하는 곤충의 모습을 알려 주어야 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박제해 놓았다. 곤충을 위하는 마음이 모여 설립한 생태관이다.

하늘을 산책하다, 하늘데크

곤충생태관 2층은 하늘데크가 연결한다. 명칭처럼 하늘 위로 길을 안내한다. 높이 20미터, 길이 222미터 텍 길을 소나무 숲 위를 고불하게 가로지르도록 세웠다. 굽이굽이 돌아가니 시야가 넓어진다. 유유자적 걸던 예당호를 조망하는 풍경이 다시 열리고, 곤충생태관 뒤편 유아숲체험원의 수많은 바람개비가 알록달록 수놓은 언덕이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비친다. 찬찬히 걸어가도 아쉬워 걷다 서기를 반복한다. 하늘데크와 이어지는 소나무 숲 산책길, 아이가 맑은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까지 한 바퀴 돌아도 좋겠다. 온화한 풍취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마음에 여유를 전한다.

느린 걸음 덕분에 더 멀리, 자세히 보았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자 마음으로 품는 세계가 확장된다. 속도보다 딛는 걸음에 담기는 진심이, 순간순간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행 막바지에 깨닫는다. 한 번 사는 인생, 자신의 속도대로 즐기면 그만이다. 찬찬히 해도 걸실은 뺏힌다. ☑

느린 걸음 덕분에  
더 멀리, 자세히 보았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자  
마음으로 품는 세계가  
무한히 확장된다.



# GEOJE

걷기 여행



## 남해가 품은 국가어항 능포항을 걷다

경남 거제의 국가어항 능포항에서 양지암 조각 공원까지  
삶과 예술, 자연이 조화로운 길을 걷고 왔다.

글. 진주영 사진. 박정우



무작정 걷고 싶을 때가 있다.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 쬐고, 푸른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길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조건을 충족하는 여행지를 찾아 경남 거제로 떠났다. 양지암 등대길이라는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해변과 숲길을 오가는 15.5킬로미터 길이의 길은 총 네 구간으로 나뉜다. 이번에는 거제의 국가어항인 능포항, 그 옆의 양지암 등대와 양지암 조각 공원까지 이어지는 양지암 등대길 3구간과 4구간 일부를 돌아보기로 했다.

삶의 정취를 낚아 올리는 능포항

양지암 등대길 4구간에 속하는 능포항에 다다르자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눈앞에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크고 작은 어선이 부지런히 항구에 드나든다. 저 멀리 수평



**해변과 숲길을 오가는 양지암 등대길을 부지런히 걷는다. 너른 바다가 안아 주는 넉넉한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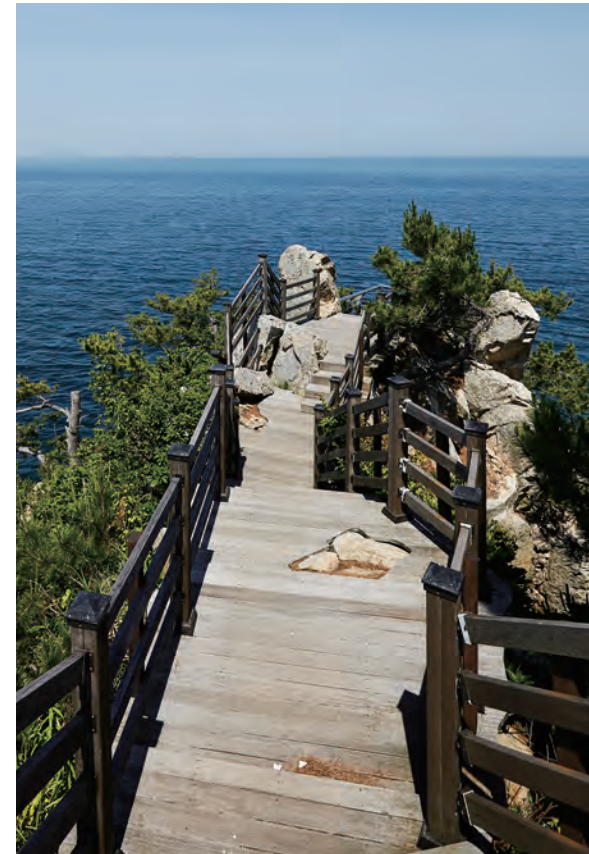
선을 향해 나아가는 어선의 행방을 눈으로 따라간다. 각기 다른 방파제 끝에 선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 사이를 유유히 통과하는 선박 뒤로 하얀 거품이 일었다가 이내 사라진다. 누군가에겐 일상이겠으나 여행자에게는 색다른 풍경이다.

보리새우가 맛있기로 유명한 능포항 일대에는 볼락, 도다리, 물메기, 우럭, 아귀 같은 어종도 많아 오랫동안 낚시 애호가에게 사랑을 받았다. 지난 5월에는 낚시 잔교, 수상 카페테리아가 오픈하면서 바다낚시에 특화된 항구로 거듭났다.

낚시를 하지 않더라도 바다 위에 놓인 잔교를 산책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기저기 낚시에 몰두한 사람들 걸을 조심스레 지나친다. 어떤 이는 팽팽해진 낚싯줄을 끌어 올리고, 또 다른 이는 빈손으로 돌아선다. 물고기 대신 저마다 사연과 세월을 낚으러 온 이도 있을 테다. 낚싯대가 없어 허전한 마음에 팬스레 손을 뻗어 살갑게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움켜쥐어 본다. 능포항과 남해의 정취가 손끝에 남았다.

삶의 냄새가 났던 항구를 뒤로하고 양지암 등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항구 옆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인 양지암엔 1985년 운영을 시작한 무인 등대가 자리한다. 항구에서 등대로 향하는 길목은 가파른 아스팔트 도로다. 경사로를 지나 한결 완만한 길을 걷다 보면 등대까지 400미터 남았다는 이정표가 나온다. 여기부터 나무 그늘이 포근히 안아 주는 아늑한 숲속 오솔길이다. 오랜만에 촉촉한 흙을 밟아서인지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진다. 양지암의 울퉁불퉁한 등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움직인다. 이마에

●●  
거제에서 가까운 기차역은 부산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까지 2시간 40여 분이 걸린다.





## 고래 꼬리를 형상화한 조각상 너머 거제 바다가 펼쳐진다. 예술이 자연에 스미는 순간이다.

맺힌 땀방울이 떨어질 때쯤 하얀 등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능포항에서 출발한 지 30여 분 만이다. 물에서 빠져 튀어나온 지형인 양지암 끝자락엔 망망대해를 밝히는 등대만 오롯하다. 늦은 밤 인근 능포항과 옥포항을 오가는 선박의 항로를 든든하게 비추는 길라잡이다. 등대 앞에 서서 바닷바람이 이끄는 대로 주위를 둘러본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바다뿐이다. 저멀리 파란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눈부신 풍광을 선사한다.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음악삼아 잠시 쉬어 간다.

### 바다가 내어준 땅, 그 안의 예술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가 양지암 등대길 3구간을 걸어 볼 차례다. 양지암 등대에서 양지암 조각 공원에 이르는 구간은 약 2.7킬로미터 거리로 한 시간가량 소요된다. 오솔길, 아스팔트 도로를 거쳐 다시 숲길이다. 힘이 들 땐 전망 쉼터에서 남해를 바라보며 숨을 고른다. 얼마나 걸었을까. 점점 짙어지는 녹음 사이로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2007년 20여 점의 작품으로 개장한 양지암 조각 공원은 현재 40여 점을 선보인다. 교감, 하늘, 명상, 바다를 주제로 네 가지 테마 정원을 조성했다. 예술이 흐르는 이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로 한다. 약 2만 제곱미터(6000평) 규모의 공원을 거닐면서 조각 작품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갈매기, 물고기, 파도 등 바다를 품은 도시다운 조각이 곳곳에 놓였다. 거제의 희망찬 앞날을 기원하는 작품도 여럿이다. 그중 고래 꼬리 위로 황금 도시를 형상화한 조각이 비상하게 느껴진다. 거친 풍량을 이기고, 이상적인 도시 거제에 도착한 고래의 환희를 표현한 것이다. 조각상 너머로 보이는 능포항과 인근 풍경이 뜻깊게 다가온다. 조각 사이사이 흔들리는 나뭇잎, 햇살에 반짝이는 꽃잎이 예술에 운치를 더한다.



삶의 온기가 가득한 항구부터 제 뭍을 다하는 등대, 예술이 스민 공원까지 실컷 걸었다. 모든 걸 내어줄 듯, 넉넉한 남해와 함께해 마음 편한 여정이었다. 마지막으로 공원 정자에 앉아 지친 심신을 달랜다. 고생한 다리를 주무르는 내내 귓가에 새소리가 맴돈다. 고마운 새를 찾으려고 고개를 든 순간,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간다. 하루 동안 애썼다고, 다음에 또 오라고 인사하는 것 같다. 미처 밟지 못한 거제의 길 위에 아쉬움을 남기고 서울로 돌아왔다. ☑

해양수산부 **FIPA** 한국어촌여행공단

**거제 능포항** 1971년 국가어항이 된 능포항은 지난 5월 낚시 간교, 수상 카페테리아 등을 오픈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주소 경남 거제시 능포동 480-42

문의 055-639-4178

홈페이지 [www.fipa.or.kr](http://www.fipa.or.kr)



QR코드를 스캔하면  
거제 능포항 등 여행지를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여름밤을 여행하는 방법

잠 못 드는 여름밤, 열대야를 달랠 야간 여행 프로그램을 모았다.

글. 진주영



## 영천\_별빛 나이트 투어

사랑하는 사람과 별 헤는 밤을 보내고 싶다면 영천으로 별빛 나이트 투어를 떠나자. 신라의 숨결이 가득한 화랑설화마을에서 미술 쇼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별자리 강좌를 들으며 밤하늘을 만끽한다. 아무리 별이 잘 보이는 곳이라지만 별만 보고 오긴 아쉽다. 낮에는 포은정몽주를 배향하는 임고서원을 둘러보고 상황버섯을 활용한 쿠키도 만들어 본다. 별처럼 반짝이는 하루다. 문의 054-330-6585



## 익산\_문화재 야행

달빛 아래 문화재가 영롱하다. 문화재청은 매해 전국 수십 개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축제를 개최한다. 그중 7월 말엔 백제 유적을 중심으로 익산 문화재 야행이 열린다. 백제 왕궁 후원을 산책하고 왕궁 리오층석탑 탐돌이를 하면서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느낀다. 활쏘기, 탕화 혹은 수묵화 그리기 같은 다양한 체험도 가능하다. 출출한 배를 달랠 야식은 주막과 야시장에 잔뜩 마련했다. 문의 063-859-5793



## 제주\_야밤버스

2층 버스를 타고 제주의 다채로운 밤 풍경을 누린다. 이호테우해변의 목마 모양 등대와 도두봉의 아름다운 일몰을 보고 산지천 분수 쇼도 감상한다. 제주올레 17코스에 속하는 어영해변은 야밤 피크닉 장소로 제격이다.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전문 DJ가 이벤트를 진행해 지루하지 않다. 제주동문재래시장 야시장에선 은갈치 김밥, 딱새우 롤 돈가스, 흑돼지 강정처럼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본다. 문의 064-741-8784



## 통영\_밤바다야경 투어

항구도시 통영은 밤에도 아름답다. 해상 택시를 타고 밤바다를 누비며 무더위를 잊는다. 도남항에서 출발해 연필 모양의 등대, 전혁림 화백의 그림이 있는 총무교, 통영운하를 빛내는 통영대교 등 눈부신 야경을 50분간 돌아본다. 가는 곳마다 포토 존이라 사진 찍는 손이 분주하다. 그사이 항해사의 맛깔나는 해설이 이어져 더욱 재미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 중 하나다. 문의 055-644-8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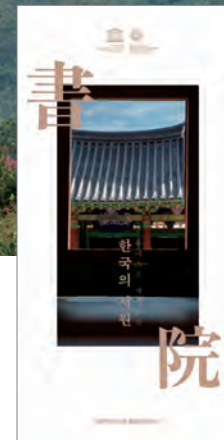
# 한국의 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주년

1543년 설립한 소수서원부터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 돈암서원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서원에는  
학문과 자연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  
<http://k-seowon.or.kr>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 통합 리플릿이 나왔어요.  
9개 서원에서 국문·영문으로 만날 수 있으니 방문하면 꼭 챙겨 보기!  
서원마다 다른 9종을 모두 모으기에도 도전해 보세요!



Buddhist Bell  
(reportedly excavated  
from Naksujeong Pavilion)  
of Goryeo Period,  
National Treasure  
No. 1325

## Buddhist Bell

In Buddhist chants, the sound of a Buddhist bell represents the voice of Buddha. The deep, lingering sound of the bell purifies both mind and body. This bell, which dates back to the Goryeo period, was donated to the Jeonju National Museum by a Japanese named Takahara Hamiko in 1999. Scrolling vine patterns are inscribed on the edges of the trapezoid-shaped *yeongwak* (ornamental lotus patch), which has nine protruding bud-like spheres called *yeolloe*. Between the two *dangjwa* (part where the rod strikes) are four apsaras kneeling on clouds with their hands clasped together. While the exact year of creation is unknown, the bell is presumed to have been made around the 11<sup>th</sup> century as its appearance, patterns, and composition ratio are consistent with artifacts from the Unified Silla period. It delivered peace to the people of Jeonju a thousand years ago, and continues to resonate in the exhibition hall of Jeonju National Museum today. ☒

Fine Arts Room, 2F of Permanent Exhibition Hall, Jeonju National Museum  
For inquiries, contact 063-223-5651

# culture

- 132  
광부가 된 화가, 황재형 화백
- 142  
세계를 사로잡은 K-뮤직비디오
- 146  
송일준 전 PD의 요즘 이야기



사진: 신규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황재형: 회천回天>전 전시실

# 막장 안의 진실함 화가 황재형



안락한 탄광 밖에서 붓질만 하고 싶지 않아  
황재형은 광부가 되었다.  
어둠을 파고들어 캐낸 진실을 그렸다.  
글. 김현정 사진. 신규철



사람은 옷을 입는다. 기성품일지언정 옷은 그 사람을 보여 준다. 화가는 옷을 그렸다. 푸르스름한 작업복과 흰 러닝. 세로 2미터 넘는 높이의 캔버스를 오로지 옷으로 채웠기에 관람객은 옷에서 눈길 돌릴 데가 없다. 누구 옷이라 이토록 크고 세밀하게 그렸을까. 해진 것, 올 풀린 러닝, 가슴께에 박음질한 '황지330'이라는 글씨를 거쳐 마침내 이름표를 발견한다. 그림자가 저 절반 이상이 어둠에 잠긴 이름표에는 옷 주인의 증명사진과 이름, 출입 유효기간이 보인다. 그림이 생생해 사실감이 도드라진다. 어느새 관람객은 벽에 작업복을 걸어 놓은 한 광부의 방에 서 있다. 작품 제목

이 '황지330'이다. 개인의 이름 대신 소속과 번호로 부르는 세상에서 저 작업복 주인의 삶을 생각한다. 1981년, 만스물아홉에 '황지330'을 그린 화가 황재형은 먼저 그 방으로 들어갔다. 광부의 삶을 보여 주고 싶어서, 본질을 그리고 싶어서다.

진실을 찾아 탄광 속으로

소년은 어려서 그림에 빠졌다. "초등학생 때 밀레의 '만종'을 보는데 그림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림이 단순히 그림만이 아닐 수 있구나. 공재 윤두서의

**막장의 노동, 막장의 시간을  
견딘 이 덕분에 우리의  
아랫목이 따뜻해졌다. 탄광에서  
황재형은 본질을 파악했고  
이를 그림에 옮겼다.**



‘자화상’이 지닌 힘도 대단했어요. 영혼이 담긴 그림은 종이를 뚫고 나오는 느낌이었지요. 이런 그림을 그려야겠다 했습니다.” 소리를, 공기를, 정신을, 진실을 말하는 그림이라는 방향은 정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그릴까가 소년의 치열한 과제였다.

청소년기부터 대학생 시절까지 황재형은 학교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림이 기술을 넘어 진실이자 정신이라 믿고, 이를 찾으려 삶의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물론 학비도 벌어야 했다. 서울과 경남 창원 등의 공업단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형님 누님 동생을 만났다. 그러다 탄광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한국을 제3세계라 불렀거든요. 공단이라는 세계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떠밀리듯 가는 데가 탄광이라 했어요. 제3세계에서도 제3세계. 그렇게 탄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통 새까만 곳. 탄가루가 날려 산, 집, 골목, 하천, 사람 모두가 검은 풍경은 충격이었다. 처음엔 관찰했다. 3교대로 돌아가는 탄광 출입구는 교대 시간이면 검은 광부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 분명 삶의 진실이 묻어 있었다. 이는 진실의 일부, 아마도 더욱 크고 강렬한 진실이 저 검은 구멍 안에 기다릴 것이었다. 황재형은 방학을 이용해 광부 일을 한다. '황지330' 속 작업복 주인이 그의 선배였다. “학기를 앞두고 저는 서울에 왔고, 이후 그분이 탄광 매물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까만 것 중에 가장 새까만 것. 죽음이 사람을 삼키고 작업복은 주인을 잃었다. 화가는 더 이상 이 옷을 못 입는 광부를 그림으로 추모했고, 미술대전에 출품해



상을 받았다.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선언이었지만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잠깐의 경험을 경험이라고 치부하고, 안락한 탄광 밖에서 붓만 잡아서야 내가 화가인가. 다음 해 대학을 졸업하고 짐을 꾸렸다.

“그러다 말걸.” 신혼의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서울을 떠나 태백에 자리를 잡자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다 말걸.” 탄광에 취업해 껥도에 들어갈 때도 그랬다. 매년 광부 사망자가 170여 명, 이틀에 한 명이 죽어 나가는 현실에서 타당한 얘기였다.

“그러다 말걸.” 안경 쓴 광부를 허용하지 않아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일하며 눈에 낀 탄가루 때문에 결막염이 심각해져 3년간의 광부 생활을 그만두고 나니, 생계를 위해서라도 태백을 뜨겠지 했다.

“그러다 말걸.”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수한 광산이 문을 닫고 마을은 비어 갔어도 그는 남았다. 그 세월이 40년. 사람은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할 수 없고, 황재형은 탄광촌에서 끝내 40년을 존재했다. 시간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삶은 누구도 그리지 못한 그림이 되었다. 1985년 작 ‘식사’에서는 껥도 안의 식사 모습을 보여 준다. 깊은 어둠 속, 빛은 오직 헤드 랜턴뿐이다. 같이 땀 흘려 일하다 상대의 헤드 랜턴에 의지해 먹는 밥은 숭고하다. 이것이 진실이다. ‘산업전사’라고 추켜세우면서 실상은 숨 막히는 땅속, 죽음의 코앞에 사람을 밀어 넣었으되 그들은 정직하게 자기 몫의 노

동을 감당하고 그만큼 밥을 먹었다. 막장의 노동, 막장의 식사를 견뎌 이 덕분에 우리의 아랫목이 따뜻해졌고 공장이 돌아갔다. 이것이 본질이다. 황재형은 스스로 겪어 먼저 진실을 알았고 미안해했고 이를 그림으로 옮겼다.

울어야 할 때는 저 밑까지 파고 내려가 거친 숨을 쉬지만, 그의 작품을 마냥 검은색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식사’의 헤드 랜턴처럼 여러 작품에 크고 작은 빛이 맺혀 있다. 검은 산 아래 검은 마을에 미세한 불이 켜진 창문은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화가가 이 공간을, 거기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느껴져 울컥한다. 탄광촌 개울에 황금빛 노을이 비치는 ‘작은 탄천의 노을’도 마찬가지다. “작가는 지나간 시간, 사회적·개인적 망각 너머에 서서 한 움큼의 빛살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시커먼 세상에 시커먼 물이어도 빛이 임하는 아름답고 쓸쓸한 순간을 기어이 포착해 낸 마음은 사랑이다. 진심 어린 그림이 관람객에게 화가의 진심을 전염시킨다.

#### 눈에 보이는 풍경을 넘어

변덕스러운 세상은 탄광촌을 그냥 두지 않았다. 온 나라를 데우던 석탄 산업이 ‘합리화’ 정책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도시는 급속히 쇠락한다. 그곳에 있었고 목격한 화가는 사람들이 떠난 탄광촌을, 강원도의 자연을 그린다. “인간이 사라진 풍경에도 인간은 존재해요. 탄광촌에는 노동자가 살았어요.” 산과 마을은 여전히 검다. 첩첩 능선의 자연이 유려하다 노래하고 지나치기엔 그 산 밑으로 구석구석 껥도를 뚫어 놓은 미안함



‘검은 산 검은 울음’, 162×227.3cm, 캔버스에 석탄과 먹, 1996-2006



**사람은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할 수 없고, 황재형은 탄광촌에서 40년을 존재했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삶은 누구도 그리지 못한 그림이 되었다.**



**황재형** 1952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제3세계의 제3세계'라 할 만한 열악한 환경의 탄광을 알게 되었고, 매물 사고로 사망한 광부의 작업복을 그린 '황지330'으로 1982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수상해 화단에 데뷔했다. 강원도 태백에 자리 잡고 광부로 일하며 그들의 정직하고도 고단한 세계는 물론 이후 탄광촌이 쇠락해 가는 모습까지 캔버스에 담아냈다. 사람, 연민, 존중, 본질이 40년을 일관한 주제. 2010년대에는 머리카락을 이용한 작품으로 문제의식을 새롭게 구체화해 화제를 모았다. 국내외에서 수많은 전시를 열었고, 주요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 너무 크다. 탄광 시대 자연을 다루면서 거기서 목숨 걸고 일한 광부를 잊어서도 안 될 노릇이다.

가로 5미터에 이르는 대작 '백두대간'을 비롯해 황재형의 풍경화에는 유장한 세월과 인간의 역사가 함께 담겼다. 눈에 보이는 풍경 이상을 질문하고 되새기게 한다. "그저 경치를 묘사하라면 아름다운 곳이 오죽 많아요. 저는 본질이라는 무서운 말 앞에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그림, 진실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그림을 꿈꿉니다." 고심하고 돌아보고 다시 현장을 방문하고 관찰해 캔버스에 겨우 붓칠을 하나 더한다. 그렇기에 여러 작품의 연도 표기가 '1984~2006' '1993~2004' '1996~2008'처럼 길다. 화가의 재능과 고민과 시간의 합작품이다.

그런 고민의 연장에서 머리카락이라는 재료 또한 사용하게 되었다. "머리카락은 사람 최초의 옷이자 최후의 옷이며, 사람의 생활과 신체·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삶의 필름이잖아요." 이미 그는 1980년대부터 석탄, 흙 같은 재료를 써서 그림에 본질을 심는 실험을 해 왔다. 이번엔 태백의 미용실을 순회해 얻어온 머리카락을 가지고 광부의 얼굴을, 탄광촌과 강원도 풍경을 '그렸다'. "작업하는 데 유화보다 세 배가 걸리지만, 머리카락이 지닌 힘이 있었어요." 세월호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도 몇 몇 휘둘러 표현할 수 없어 머리카락을 울울이 붙여 완성했다. 고통이 캔버스를 뚫고 나온다. 그리하여 그림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

누군가에겐 경각심을, 누군가에겐 위로를

황재형의 그림에서는 소리가 들린다. 모진 바람이 난한 집 지붕을 덜컹덜컹 건드리고, 방진 마스크를 쓴 선탄부의 숨소리가 귀에 생생하며, 고단한 작업 사이 한자리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의 웃음은 떠들썩하다. 어떤 그림은 화가가 일부러 소리를 지었다. 입을 꼭 다문 채 눈물 그렁그렁한 '아버지의 자리', 주름 가득한 얼굴이 고생스러운 한평생을 대변하는 '존엄의 자리' 같은 작품이다. 항의하지도,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는 착하고 평범한 얼굴이 아프다. 화가는 소원한다. "편안한 잠자리를 자는 이에게 경각심을, 불편한 잠자리를 갖는 이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고 싶어요." 그의 그림은 우리가 보고 듣고 기억해야 한다고 건네는 숙제다. 어디가 막장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곳이 막장이지요."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삼키고 산다. 귀 기울여야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는 무시된다. 황재형은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 '황지330'에서 지금까지 푸르게, 일관되게 무려 40년을.

**<황재형: 회천回天>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 '광부 화가' 황재형의 초기작 '황지330'부터 최근 작품까지 40년 세월을 망라하는 전시를 기획했다. 막장에서 일하며 그린 회화, 강원도의 대자연과 탄광촌을 담은 풍경화, 머리카락으로 표현한 작품 등 대표작 65점을 선보인다. 기간은 8월 22일까지. 문의 02-3701-9500



## Truth at the Dead End Painter Hwang Jai Hyung

The painter drew a miner's worn-out work clothes, filling the canvas that is over two meters in height. The wrinkled collar, the white undershirt with loose threads here and there, and the word "Hwangji 330" sewn above one of the pockets create an intense atmosphere, inviting viewers into the miner's room. The painting i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life of workers who were called by identification numbers instead of their names. In 1981, at the young age of 29, Hwang Jai Hyung completed the painting *Hwangji 330* as part of his search for human dignity. Fond of painting since childhood, Hwang firmly believed that art was a means of conveying truth. While looking for subjects, he came upon a mine, and

was shocked by the soot-covered landscape. Miners with black faces flooded out from the mine at the end of their shift. Their expressions and gestures hinted at the truth of life. A deeper, darker truth was likely to be waiting inside the pitch-black tunnel. Hwang worked as a miner during his school break. The uniform featured in the painting belonged to his colleague. "I came back to Seoul at the start of the semester, and later heard that he passed away in a mine explosion."

Hwang pondered over his role as an artist, and decided to join a coalfield himself. Upon graduating the following year, he settled in Taebaek with his wife and newborn child. Many mines have closed with

the changing times, but Hwang has been faithfully capturing the lives of miners over the past 40 years. This was made possible by his own experience as a miner.

The 1985 painting *Lunch* shows a group of miners having lunch in a dark mine shaft. The sole source of light is their headlamps, which they use to shine light on their colleagues' lunch boxes. Dubbed by the media as "industrial warriors," they faced a harsher reality that most cannot imagine. Even under tough conditions, they stuck to their duties, and ate only their share. Those who toiled at the dead end of mines have kept our houses warm and our factories running. This is the undeniable truth.

Hwang's works are not merely dominated by black. Like the headlamps in *Lunch*, many of his paintings convey hope through light. A lit window at the foot of a black mountain is more powerful and captivating than the fancy lights of the city. The artist's utmost respect for the village and its people strikes a chord within. He says, "An artist should be one who offers a ray of hope, transcending time, social differences,



and personal interests." His sincerity comes through in his heartfelt paintings.

"The human spirit can be felt even in landscapes without people. Workers used to live in coal-mining villages." The five-meter *Baekdu Mountains* and other landscape paintings record the passing of time and the changing society. "There are landscapes far more beautiful than what I've drawn. I hope for my paintings to be closer to the truth, to be consistent with the essence of the subject being portrayed."

Hwang hyperrealistic approach led to the use of hair as a new material. "Hair can be seen as the first and last piece of garment that we wear in life. It is a film that records our daily activities and emotions." He collected hair from salons in Taebaek, and drew miners, coal-mining villages, and the Gangwon landscape. "They take three times longer than oil paintings, but hair is what gives them life." And so, that which would have passed as a fleeting moment is transformed into eternity.

Hwang's paintings remind us to see, listen, and remember. "I want to alert those who go to bed comfortably at night, and to comfort those who can't." Everyone has something they would like to express, but not all can speak their mind. There are voices we should pay attention to, yet many remain unheard. From *Hwangji 330* to his current exhibition, Hwang has acted as a strong, active voice for the marginalized, and it is our turn to listen. 📖





MY DOCU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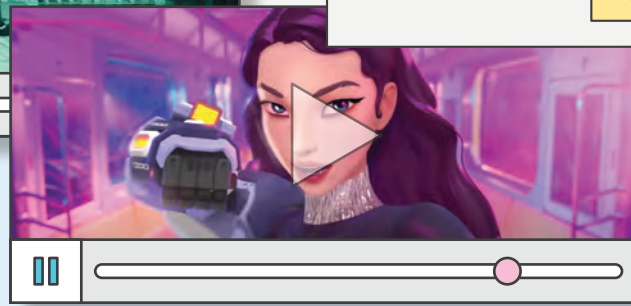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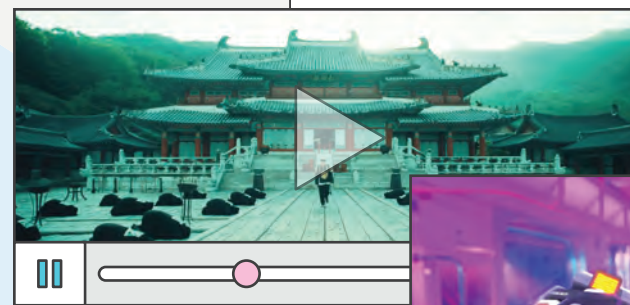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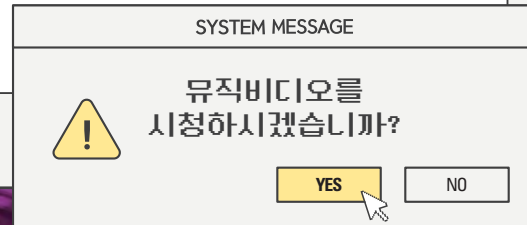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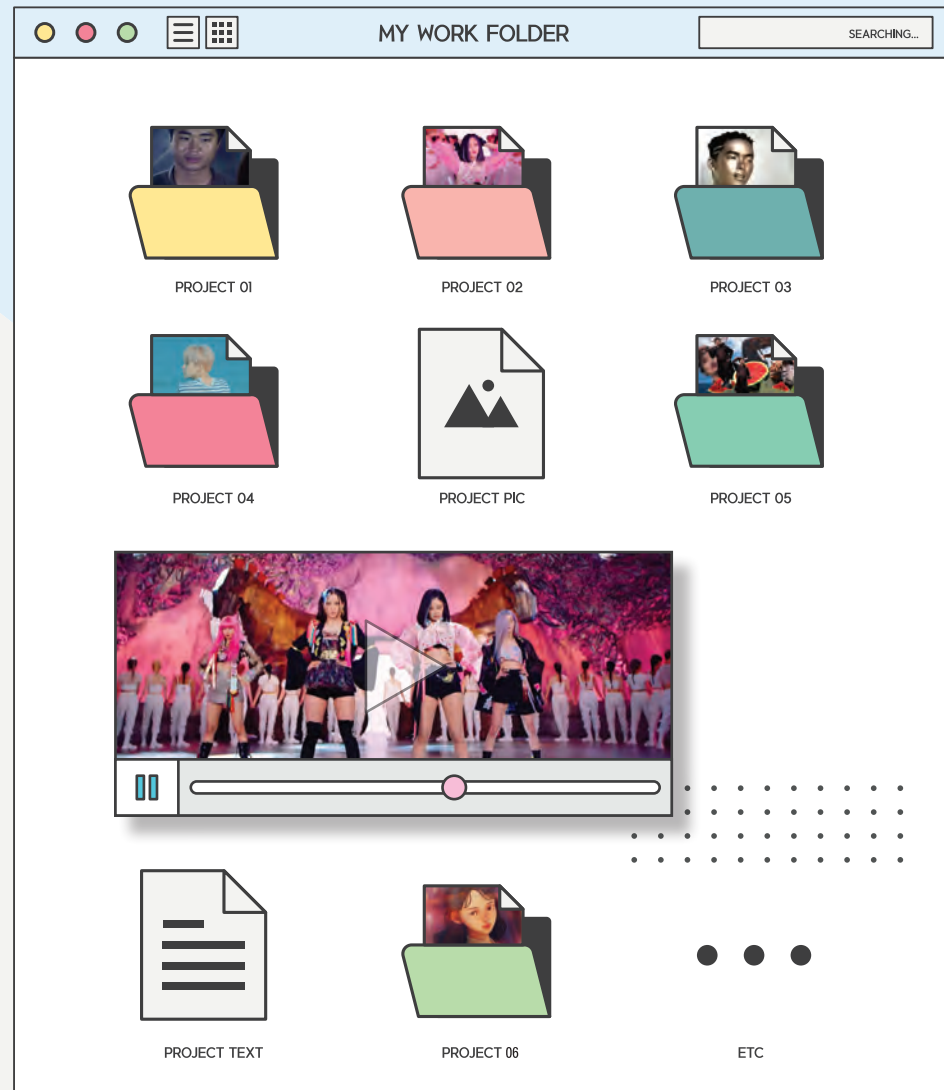
MAIL BOX



SHARE



MEMO



MESSENGER



# 세계를 무대로 K-뮤직비디오

30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온 K-뮤직비디오를 세계가 주목한다.

글. 이내경

“방탄소년단 〈버터〉 뮤직비디오 공개 21시간 만에 1억 뷰 돌파”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16억 뷰… K-팝 그룹 최초”. 잊을 만하면 업데이트되는 뮤직비디오 조회 수억 뷰 돌파 뉴스에 혼자 뒤처질세라 스마트폰을 들어 유튜브 앱을 터치한다. 댓글은 이미 수백만 개. 영어를 비롯한 각국 언어가 등장하는 세계적인 소통 공간이 된 창을 보며 K-팝의 인기를 실감한다. SNS에서 국경과 시간을 초월한 ‘팬심’은 하나다.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시각을 앞두고 카운트다운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 뮤직비디오의 지평을 연 MTV

뮤직비디오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에는 어땠을까? 당대도 마찬가지. 시간이 걸렸을 뿐 팬심은 태평양보다 넓었다. 1960년대 말 록 페스티벌에서 가수가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한 데서 시작된 뮤직비디오는 1981년 미국 음악 전문 채널 MTV가 개국하면서 세계로 퍼져 나갔다. MTV는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팝의 패러다임을 바꿨고 마이클 잭슨, 마돈나, 뉴 키즈 온 더 블록 등 스타를 배출했다. 특히 뮤직비디오 〈스릴러〉는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에서 좀비로 변한 마이클 잭슨이 절도 있게 춤춰 세계를 뒤흔들었고, 뉴 키즈 온 더 블록의 〈스텝 바이 스텝〉은 10대 소년 다섯 명의 앳된 얼굴과 자유분방한 모습이 소녀 팬을 울고 웃게 했다. 한국에 뮤직비디오가 도입된 시기는 1980년대. KBS 예능 프로그램 〈쇼 비디오 자키〉의 DJ 김광환이 뮤직비디오를 처음 소개했다. 1992년 KBS는 뮤직비디오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지구촌 영상음악〉을 기획해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영상을 모아 방영했다. 뮤직비디오의 인지도가 높아지던 1995년에는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시작과 함께 음악 전문 채널 Mnet, KMTV가 등장해 한국 뮤직비디오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다.

## 한국 뮤직비디오 성장의 주역, 서태지와 아이들·조성모

“난 알아요!”를 외치며 혜성처럼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은 잘 알았다. 뮤직비디오의 엄청난 홍보 효과를. 1992년 당시 한국 뮤직비디오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TV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는 가수의 영상을 편집한 형태였으나 서태지와 아이들은 달랐다. 세트장이나 야외에서 노래 부르며 역동적으로 춤을 추는 영상을 세상에 내놓았다.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데뷔와 동시에 최정상 가수가 되었다. 이 뮤직비디오가 반향을 일으키자 가요계는 앞

다투어 비용을 투자해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국 뮤직비디오 포문을 열었다면, 조성모는 음악에 스토리를 입혀 한 편의 영화처럼 만드는 드라마타이즈(dramatize) 영상을 제작해 뮤직비디오 세계를 넓혔다. 1998년 〈투 해븐〉 앨범은 발매 4일 만에 100만 장이 판매된 동시에 뮤직비디오 시장을 흔들었다. 제작비 수억, 수십억 원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가 유행하게 된 계기였다. 브라운 아이즈 〈벌써 일년〉, 김범수 〈하루〉 등 6~10분짜리 영화 같은 영상에 많은 이가 감동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시기는 길지 않았다. 2000년 중반 모바일 시대가 열리자 음악 산업이 음반에서 음원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조류와 맞닥뜨렸고, 음반 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졌다. 음반사는 더 이상 큰 자본을 투자하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작비를 절감하면서도 영상미를 담아내는 스튜디오 세트 촬영을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 대안으로 택했다.

## 세계가 주목하는 K-뮤비

2000년대 디지털 기술 발달은 뮤직비디오의 다양성을 증대시켰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유튜브 같은 매체에 유통하는 환경이 조성되자 독특한 기획이나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 저예산 작품이 대거 등장했다. 스튜디오 세트 촬영이 대세이던 한국 뮤직비디오 시장을 들썩이게 한 것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 포인트 안무인 말춤을 추며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고 외치는 중독성 있는 B급 감성에 전 세계가 매료됐다. 뮤비는 공개 후 52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했고, 패러디 영상과 리액션 영상이 줄을 이었다. K-팝 인기는 여전하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필두로 많은 아이돌 그룹이 세계에서 사랑받는다. 뮤직비디오 한 편에 3억 뷰 넘는 가수가 싸이, 빅뱅, 모모랜드 등 열 팀 이상이다.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에 줄지어 업로드되는 팬들의 리액션 영상도 인기의 증거다. 영상 출연자 대부분은 “오 마이 갓!”을 연발한다. 칼군무와 멋진 외모만 영광의 대상은 아니다. 독특한 세계관과 정교한 장치를 기반으로 스토리를 구상하고 치밀한 계획에 편입해 완성도를 높인 점도 찬사를 받는다. 캐나다 가수 저스틴 비버의 뮤직비디오를 편집하는 크리에이터가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기술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을 운영할 정도. 고작 30년 역사의 한국 뮤직비디오가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이제 감상하러 고고! ✎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 뮤직비디오 이모저모



**영화인지  
뮤비인지 모를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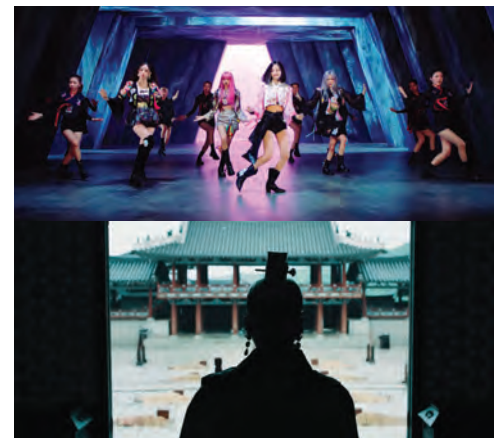
#조성모 #투헤븐  
#김범수 #하루  
#브라운아이즈  
#벌써일년

1990년대 영화 관계자는 분명 뮤직비디오의 발전에 위기감을 느꼈을 게다. 짧은 영상에 탄탄한 서사는 물론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배우가 출연하고 영상미까지 갖췄으니. 신인 가수 조성모가 쏟아 올린 작은 공은 한국 뮤직비디오 시장의 대변화를 이끌었다. 데뷔곡 <투 헤븐>의 하이라이트는 지하철을 타고 다리를 지나는 김하늘을 운전하다가 우연히 본 이병헌이 그다음 정거장에 먼저 도착해 반기는 장면. 부러우면 지는 거라지만, 볼 때마다 패했다. 이후 발라드 음악 뮤직비디오는 대부분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만들었다. 한류 스타 송혜교·송승헌·지진희가 애절한 이야기를 펼치는 김범수의 <하루>, 두 권투 선수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여인의 사랑과 우정을 영상화한 브라운 아이즈 <벌써 일년> 등 모두 주옥같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한국을 담은  
뮤직비디오**

#블랙핑크  
#HowYouLikeThat  
#AgustD #슈가  
#대취타

그동안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는 한국적 요소를 도입하는 실험을 계속해 왔다. "내가 제일 잘나가"라고 도도하게 노래하던 2NE1의 뮤직비디오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북춤이, 빅뱅의 <BAE BAE>에는 한복을 입은 여인들과 멤버가 강강술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최근 우리 것을 찾는 아이돌들의 시도는 더욱 과감해졌다. <하루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에서 개량 한복을 입고 격렬한 안무를 소화한 블랙핑크는 예뻐 뽐냈고, 방탄소년단 슈가는 국악 '대취타' 선율에 비트를 올린 곡으로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슈가가 <대취타>를 발표한 후 국립국악원이 유튜브에 4년 전 올린 '대취타' 관련 영상 조회 수는 수백 뷰에서 30만 뷰로 훌쩍 뛰어올랐다. 역시 좋은 것은 모두가 알아본다.



**혹시 천재?  
당신의 세계관이  
궁금한  
뮤직비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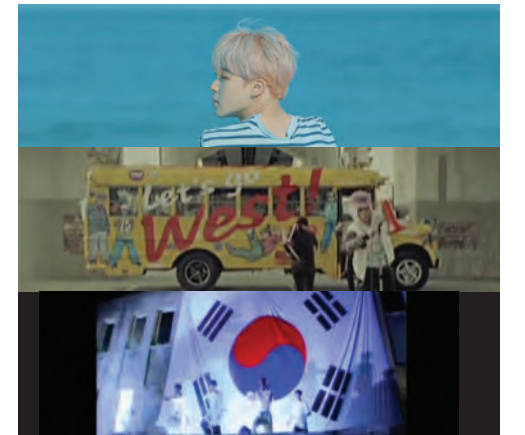
#조pd #MyStyle  
#에스파 #NextLevel

20년 전 이 뮤비를 본 순간 인상이 강렬하게 남았다. 누군가 'CHO PD' 얼굴 장난감을 영상 내내 조립해 완성한다. 수납장에 올려진 3D 그래픽 조pd 두상은 립싱크까지 한다. "내 스타일로 말하지/ 난 내 스타일로 웃지"라고 그가 수백 번 외친 '내 스타일'은 오늘날의 세계관을 연상시킨다. 시나리오를 이루는 시간, 공간, 사상적 배경을 아우르는 게임 용어인 세계관은 이제 영화·음악 등 문화 전반에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지난해 데뷔한 에스파가 아바타를 통해 보여준 메타버스 세계관은 독보적이다. 아바타 아이(ae)와의 연결을 방해하는 블랙맘바를 찾기 위해 광야로 떠나는 여정을 노래에 펼쳐낸다. <넥스트 레벨(Next Level)>에서는 사람과 아바타를 넘나드는 경계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할 말 있다!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뮤직비디오**

#방탄소년단 #봄날  
#빅뱅 #붉은노을  
#서태지와아이들  
#발해를꿈꾸며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을 외면하고 낭만만 노래할 순 없다. 몇몇 가수는 뮤직비디오를 통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다.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은 <발해를 꿈꾸며>에서 강원도 철원군에 남아 있는 옛 조선 노동당 건물에 커다란 태극기를 내걸고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음막만 들었을 때는 몰라도 영상을 보고서는 모를 수 없는 사건을 뮤직비디오에 담아 위로를 건네기도 한다. 사랑 노래라고 여길 법한 빅뱅의 <붉은 노을>은 발표 1년 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충남 태안으로 떠나는 취지를, 방탄소년단 <봄날>은 회전목마에 맨 수많은 노란 리본과 세탁기 앞에 붙인 스티커 같은 상징물로 세월호의 아픔을 떠올리며 잊지 말자 다짐한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이름,  
B급 뮤비**

#노라조 #사이다 #야채  
#싸이 #강남스타일

B급 감성에 진심인 가수를 하나둘 떠올려 본다. 싸이, 노라조, UV... 2001년 싸이는 데뷔곡부터 "나 완전히 새 됐어"라 공공연히 밝히고, 엽기 이미지를 꾸준히 갈고닦으며 외길을 걸었다. 그리고 2012년 말춤을 신나게 추는 <강남 스타일>로 월드 스타로 우뚝 섰다. 2인조 그룹 노라조는 데뷔 후 독특한 분장을 고수해 왔다. 삼각김밥, 사이다, 빵 등 변신의 귀재가 따로 없다. 목욕탕을 접수한 <사이다>는 B급 뮤직비디오의 결정체다. 가수 조빈이 사이다 강통을 헤어 롤처럼 활용해 머리를 돌돌 만 것은 기본, 탕에서 애크러백을 하는 등 영상에서 눈을 떼기 힘들다. B급 문화를 수준 이하의 것으로만 여기면 서운하다. 기발한 상상력, 호기심이 재미를 넘어 짜릿함까지 선사하니 말이다.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가  
그리는 또 다른  
세상**

#박재범 #사실은  
#피제이 #자이언티  
#나비야 #아이유 #에잇

캐릭터가 지나가자 나타나는 노래 제목 <사실은>. 뮤비 처음부터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박재범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못 잊어 잘나간다고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 솔직하게 보고 싶다고 고백하는 가사를 꺾직한 일러스트로 그려 귀엽다. 자신을 캐릭터로 등장시켜 스토리를 구상하는 뮤직비디오도 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뮤직 마켓 'SXSW(South by Southwest) 2018' 뮤직비디오 경쟁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피제이의 <나비야> 자이언티는 감각적 색감으로 고양이를 애타게 찾아다니는 탐정을 생동감 있게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한다. 그 탐정이 바로 자이언티. 똑 닮아 재밌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만든 아이유를 진짜 아이유와 함께 감상하는 아이유의 <에잇>도 특별하다.





## 달리는 인생, 제주에서 나주로

37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자신에게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선물한 송일준 작가를 전남 나주에서 만났다.

글. 진주영 사진. 신규철

제주도 한 달 살기. 누구나 꿈꿔 봤을 일이다.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선불리 떠나지 못하는 요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마친 이가 있다는 소식에 전남 나주로 달려갔다. 조선 시대 지방 관아인 금성관 앞에 바이크 한 대가 멈춰 섰다. 지난 3월, 37년 방송 생활을 마치고 제주도에 다녀온 송일준 작가다. 1984년 PD로 MBC에 입사한 그는 <인간시대> <아주 특별한 아침> 같은 다양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그중 <PD수첩>에 오래 몸담으며 전성기를 이끌었다. 2018년부터 3년간 광주MBC 사장으로 재임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그사이 여름휴가 한번 편히 가질 못했다. 퇴직 며칠 만에 제주도로 훌쩍 떠난 이유다. 37년 전 신혼여행지였던 제주에 아내와 34일간 머물면서 페이스북에 여행기를 연재했다. 그 기록을 묶어 <송일준 PD 제주도 한 달 살기>라는 여행 에세이집을 냈다.

### 일상이 여행이 되는 한 달 살기


송 작가 부부가 한 달간 거주한 집은 서귀포 남단인 법환마을에 자리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게 됐으니 동네를 탐방하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된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여유이니만큼 조금 천천히 가도 될 텐데 그는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몸이 한순간에 느슨해질 리 없다. 매일매일 제주도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돌아다녔다. 한 달 살기가 아니라 한 달 여행하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흔치 않은 기회를 마음껏 즐겼다. 성산 일출봉, 중문관광단지, 정방폭포 등 제주의 명소는 기본이고 제주4.3평화공원, 추사 유배지처럼 의미 깊은 곳도 잊지 않고 방문했다. 그중 어디가 제일 좋았느냐는 질문에 송 작가의 눈이 흔들린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모든 곳이 다 좋았다”라는 답을 내놨다. 내비게이션 입력 실수로 거문오름이 아니라 검은오름에 갈 뻔한 일, 입장 인원수 제한으로 헛걸음한 비자림에 훗날

다시 방문한 일, 한 달간 체력을 증진해 한라산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친 일 등 생생한 후일담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곳저곳 소중한 추억이 서려 한 군데 꼽기가 어렵다는 말에 진심이 느껴진다.

###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눈

방송국 PD로 오랫동안 일한 그는 어디에서든 훌륭한 콘텐츠를 찾아낸다. 궁금한 건 바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흥미로운 카페나 식당에 방문하면 주인장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본다. 그 덕에 그의 책엔 제주 사람들의 정다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특히 송 작가는 도시 재생에 관심이 크다. 오래된 가옥을 보존해 만든 주민 센터 '제주책방', 폐가를 리모델링한 카페 '풀베개' 등 제주의 여러 재생 공간을 눈여겨보았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MBC에 근무하면서 공간의 변화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확인했기 때문이다. 재임 당시 나주의 오래된 정미소를 리모델링해 콘서트홀로 만들고, 광주 양림동 평권마을 입구에 광주MBC 오픈 스튜디오를 열어 지역 주민과 소통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 된다는 믿음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나주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나주 이야기를 하는 송 작가의 눈이 반짝인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고장을 그리워한 그는 제주에서 한 달 사는 동안에도 나주에서 건너온 뱀 신을 모시는 토산2리 본향당과 조천리 새곶할망당을 찾았다. 토산2리 본향당은 현지인도 정확한 위치를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송 작가에겐 따스한 기억으로 남았다. 지난 6월엔 나주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나주 오래 살기에 나섰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총동원해 지역 발전을 도울 생각이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처럼 지금도 그의 머릿속은 다양한 기획으로 바쁘다. 한 달 살기는 쉽없이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되었다. 숨 가쁜 일상에 작은 쉼표 하나 찍었을 뿐인데 더 멀리 도약할 힘이 생긴다. 송일준 작가의 앞날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 <송일준 PD 제주도 한 달 살기>

MBC <PD수첩>에 오래 몸담은 송일준 작가가 지난 3월 퇴직 후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왔다. 그 한 달 동안 매일 페이스북에 올린 재미있는 일화를 모았다. PD의 눈으로 재구성한 제주의 역사와 생활상도 엿본다.

송일준 지음 스타북스 펴냄



이 수박을 들고 너를 찾아가고 싶다

김상혁

이 수박을 들고 너를 찾아가고 싶다.

어떤 소설은 50년, 100년 정도는 훌쩍 뛰어넘어, 선명한 줄무늬처럼, 사람의 성장을 한눈에 그리기도 하지만, 겨우 걷기 시작한 네 아이는 대체 언제 다 자랄까? 수박 씨는 우리 옆에서 땀 뻘 뻘 흘릴 네 아들이 다 컸을 때 여기 여름은 얼마나 더 더워질까? 마트에서 수박을 두드리며 너를 생각했다. 다 같이 배고픈 정오에 너를 찾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선명한 줄무늬처럼, 어떤 영화는 광활한 숲과 들판, 또 다른 숲, 들판을 훌쩍훌쩍 뛰어넘어,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같은 음식 먹는 장면을 그리기도 하지만, 너는 먼 곳으로 떠나는 일 같은 건 꿈도 못 꾸다. 시간은 네가 앉아서 쉴 자리에 자꾸만 물건을 쌓아 둔다.

나는 수박을 들고 무더운 길을 걷는다. 이 수박이 특별한 맛을 냈으면 좋겠다. 수박이 우리의 오전을 오후로 금방 바꾸어 주면 좋겠고, 그래서 네가 오늘과 여름을 미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예배의 지루한 순서처럼, 그래서 위안이 되는 익숙한 형식처럼, 현관에 서서 나는 너의 아이를 받아 안는다. 너는 아이와 바꾸어 수박을 들어 안는다. 서로에게 먼저 들어가라 권한다. 진짜 우리는 친구 같다. 거짓말같이 선명한 줄무늬처럼, 너와 나 사이에 흐르는 시간이 한눈에 그려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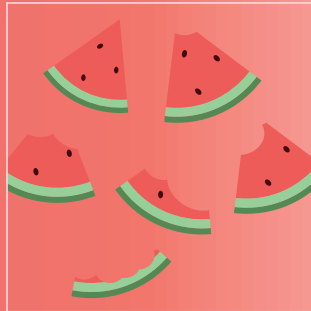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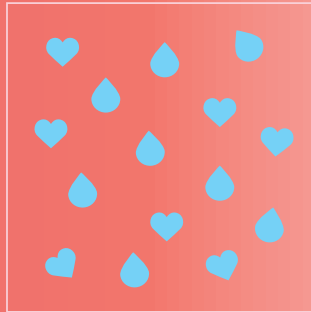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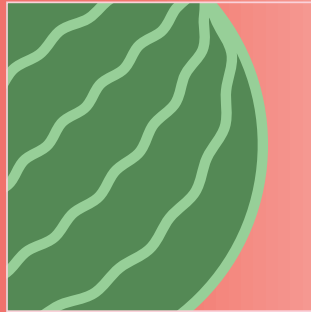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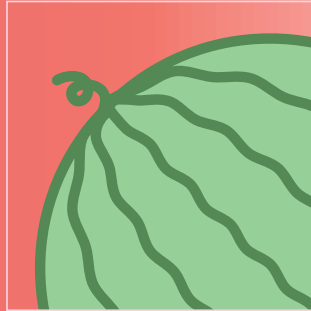
## 기다릴 것이다

‘너’가 시인으로 데뷔하는 날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을. 몇 년이 걸리든.

글. **이우성**(시인) 진행. **표다정**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김상혁 형을 처음 만났다. 우리는 문학청년이었다. 매주 한 번씩 책상에 앉아 각자 쓴 시를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둘만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명 더 있었다. 그중엔 이 시에 나오는 ‘너’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추정이다. 우리는 당연히 시인이 되고 싶었다. 어느 날 같이 모여서 놀다가, 정확하게는 시 이야기를 하며 놀다가. 아,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에게 노는 것과 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별개가 아니었다. 그렇게 놀다가 “너는 어떤 시인이 되고 싶어?”라고 형이 물었다. 그때 내 앞에 <신춘문에 당선시집>이 있었고, 이제니 시인의 작품이 실려 있었다. 나는 이제니의 당선작 ‘페루’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니라고 대답한 기억이 난다. 그때 상혁이 형도 “아, 그렇지. 이제니 정말 좋지”라고 대답을 했다(그렇지, 형?). 그날 우리 둘 다 이제니 같은 시인이 되고 싶었다. 형은 등단 전에도 시를 잘 썼고 당연히 머지않아 당선일 거라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했다. ‘너’ 역시 그랬다. 물론 추정되는 사람 ‘너’라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여전히 ‘너’가 시인으로 데뷔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폭염이 쏟아지던 어느 날, ‘너’가 써 온 시가 폭염보다 뜨거워서 ‘천재성’ 이외의 단어를 생각하기 어려웠다. ‘너’에게 이제 아이와 남편이 있어 시를 쓰기가 예전보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몇 년이 걸리든 아이가 커서 더는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나는 수박을 들고 무더운 길을 걷는다”라고 쓴 김상혁 시인의 마음이 나와 영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적는 것 역시 추정이다. 우리는 시인이 되고 싶었고 이제니 같은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시인이 될지 확신할 수 없었고 당연히 이제니처럼 멋진 시를 쓰는 게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이제니 시인, 자꾸 소환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해에 둘 다 등단했지만 어떤 일이 생기기 전까진 모든 게 상상에 불과하니깐. 김상혁은 이제니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멋진 시인이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쓰는지는 지금 이 시를 봐도 알 수 있으니 구구절절 설명은 생략하고, 나는 지금 김상혁 시인을 떠올리면 예전에 내가 형이라고 부르던 그 문학청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한 시점에서 다른 한 시점으로, 아니 한 장소에서 다른 한 장소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한순간에서 다른 한순간으로’가 더 적합하려나. 지금 이 글을 쓰는 내 감정 상태로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순간 이동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에 가깝다. 왜냐하면 모든 장면이 방금 일어난 것 같기 때문이다. “겨우 걷기 시작한 네 아이는 대체 언제 다 자랄까?”라는 물음에 대해 나는 형에게 우리가 겪은 시간의 장면들을 보여 준다고 대답하고 싶다. 아이를 안 키워 본 내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간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살아 있는 한. 우리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그의 시간 속에서 그의 삶을 살거나 역시 그러하니깐. 시간이 우리를 어떤 곳, 어떤 모습으로 데려갈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아이는 쿨 것이다. “먼 곳으로 떠나는 일 같은 건 꿈도 못 꾸다”라는 문장을 무색하게 느낄 날도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수박을 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이를 안는 모습 역시 시와 기억 속에만 있을 것이다. “선명한 줄무늬처럼” 시간은 기록되니까. 안타깝게도 주머니에 시간을 넣고 다닐 순 없다. 그러니 시간에 대해 생각하면 누구나 바람을 갖게 된다. 그 언젠가의 시간에서 우리가 다시 자주 만나면 좋겠다. 그나저나 김상혁 시인, 질투 나게, 수박 사면서 이런 시를 떠올렸다고?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시를, 수박이라는 생활 속에서 써냈다고? 나는 김상혁 시인보다 좋은 시를 쓰고 싶다. 그러나 이 시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순간, 나 혼자서, 이제니처럼 쓰고 싶다고 말하던 문학청년 이우성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의 저 방으로 돌아간 것 같다. 형은 오지 않는다. 형은 ‘너’와 아이와 함께 수박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기다리고 있다. 몇 년이 걸리든 기다릴 것이다. ☑



# 디자인이 숨 쉬는 도시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 도시’의 대명사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마주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다.

글. 이내경

도시 곳곳에 디자인과 예술이 파고들었다.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핀란드는 760여 년간의 식민 지배 흔적을 지우기 위해 디자이너에게 국가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후 자연환경, 문화, 건축에 디자인이 입혀졌고 디자인은 핀란드인의 삶이 되었다. 갤러리·디자인 숍·디자인 호텔 등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핀란드만의 독특한 거리를 이루고, 나라를 대표하는 캐릭터 무민과 핀란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브랜드 마리메꼬, 가구 회사 아르텍 등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다. 매년 9월에 열리는 ‘헬싱키 디자인 위크’는 북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디자인 축제로, 도시 전체를 디자인 전시장으로 변모시킨다.

사진 제공: 핀란드관광청



### ↑ 디자인 디스트릭트(Design District)

거닐기만 해도 예술적 영감이 샘솟는 거리다. 신시가지의 25개 거리에 200여 개 디자인 관련 상점이 골목골목 늘어섰다. 파리·뉴욕 패션 위크에서 컬렉션을 선보이는 패션 브랜드 이바나헬싱키, 스칸디나비아 텍스타일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직물 브랜드 요한나 글릭센 등 유명 브랜드 숍이 거리 분위기를 이끈다. 디자인 박물관도 놓치면 안 될 볼거리. 핀란드의 시대별 디자인 트렌드를 살피고 가구, 가전제품, 유리공예 등 전시품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 ← 템펠리아우키오 교회(Tempeliaukio Church)

1969년 건축가인 티모·투오모 수오말라이넨 형제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화강암 동산에 디자인했다. 제거하기엔 너무 커서 헬싱키 시민이 애물단지로 여기던 거대한 바윗덩어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변신했다. 바위를 파내면서 나온 암석은 외부에 쌓고 내부는 암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암석교회’라는 이름으로 흔히 부른다. 교회에 들어서면 돔 형태의 천장에 난 180개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진다. 약 3만 미터의 구리 선을 동글게 엮어 올린 돔 중심부는 울림 효과를 배가해 주어 콘서트가 자주 열린다.

### → 시벨리우스 기념비(Sibelius Monument)

19세기 제정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핀란드. 작곡가 시벨리우스는 음악으로 조국을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 교향시 <핀란드어>가 대표적이다. 유장한 음악에 핀란드 역사와 자연을 담아내, 음악이 핀란드라는 나라를 형상화한 느낌이다. 당시 인민의 투쟁 정신을 고취하기도 했다. ‘국민 작곡가’인 그를 기려 1967년 조각가 에일라 힐투넨이 기념비를 제작했다. 강철 24톤을 녹여 만든 600개 이상의 파이프로 이루어진 파이프로르간 기념비는 그의 음악처럼 강렬하다. 시벨리우스 공원에서 시벨리우스 두상 조각과 함께 볼 수 있다.





Film x Train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시드니 루멧 연출, 1974

## 질주하는 특급열차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애거사 크리스티의 명품 추리소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원작인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글. 전찬일(영화 평론가) 진행. 김규보



〈오리엔트 특급 살인〉,  
케네스 브래나 연출, 2017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전 세계에서 40억 부 이상 팔려 나가면서 〈성경〉과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품들 다음으로 널리 읽혔다는 ‘추리 소설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의 대표작이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프랑스 항구도시 칼레를 향해 달리던 오리엔트 특급열차 안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주요 내용이다. 열차는 폭설로 인해 전날 밤에 멈춰 섰다. 누가 들어오거나 나간 흔적은 없다. 따라서 범인은 기차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마침 열차에 탑승한 세계적 명성의 탐정 에르퀼 푸아로가 조사에 나선다. 그 결과 피해자는 몇 해 전 미국에서 벌어진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판명되고, 승객 중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이가 한둘이 아니다.

살인범의 의의성이나 범인이 밝혀지는 플롯의 정치함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할 당하나, 애거사의 작품 중 걸작이 워낙 수두룩해 외려 조명을 덜 받았다. 하지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다음으로 많이 팔린 애거사의 소설이며, 작가 본인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액크로이드 살인 사건〉(살인을 예고합니다)에 이어 네 번째로 좋아한다고 밝힌 작품이기도 하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은 스크린과 TV를 통해 여러 차례 각색되었다. 잘 알려진 것은 영국이 낳은 명배우이자 감독인 케네스 브래나가 극화한 2017년 작 〈오리엔트 특급 살인〉과 미국 출신 명장 시드니 루멧 감독의 1974년 작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이다. 영화를 깊이 있게 보게 마련인 시네필이라면 어느덧 고전(급) 영화로 자리매김한 구작을, 마음 편히 영화를 즐기는 관객층은 한층 감각적이면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근작을 더 좋아할 공산이 크다. 빈말이 아니라 두 영화를 비교해 보는 재미가 여간 쓸쓸치 않다. 193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의 전체 열개는 비슷하나, 43년의 시차만큼 두 영화의 ‘톤 앤드 매너’나 이런저런 디테일에서 적잖은 차이가 드러나는 것. 무엇보다 주인공 푸아로의 해석·구축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애거사가 그토록 열광·숭배했다는 설록 홈스와 쌍벽을 이루며 추리소설의 황금기를 대변한 그 유명한 탐정 캐릭터.

〈애거사 크리스티 자서전〉에서는 푸아로를 이렇게 묘사한다. “자그마한 덩치의 깔끔한 남자. 언제나 물건을 정리하고, 짝을 맞추고, 둥근 것보다는 네모난 것을 좋아하는 깔끔한 성격의 작은 남자가 눈앞에 섰다. 또한 매우 영리해야 했다. ‘작은 회색 뇌세포’가 있는 사람...” 영리함 면에서야 막스막하지만, 근작의 푸아로가 상대적으로 모던하고 세련되었다면 구작의 그는 고전적이며 교장교장하다. 음악 효과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재즈풍으로 현대적 느낌을 물씬 풍긴다면, 후자는 클래식풍으로 절제미가 인상적이다. 자신의 소설이 영화화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던 작가가 1974년 85세 노구를 이끌고 프리미어 시사에 참석하는 등 전적으로 만족한, 유일한 영화 각색작이었다고 전한다. 배우 앨버트 피니의 연기야말로 작가가 생각한 푸아로상에 가장 근접했던 것. 너무나도 단정한 수염은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어도. 나 역시 연기 측면에서는 앨버트 피니 쪽이다.

성격화(characterization) 면에서는 케네스 브래나 편이 좀 더 끌린다. 앨버트 피니의 푸아로는 지나치게 직업적·사무적·기계적인 데 반해 그는 인간적·감성적이며, 심지어 외면할 수 없는 센티멘털리티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인간은 일정 정도 감성적 동물 아닌가. 그는 문학 애호가로 찰스 디킨스를 즐겨 읽는다. 소설 〈두 도시 이야기〉를 읽으며 깎깎거릴 줄 알 만큼 유머 감각도 넘친다. 특유의 추리력으로 사건을 해결한 뒤 대응하는 선택에서도 둘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 선택이 궁금하지 않은가. 선택에 이르는 과정도. 크고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영화에는 일련의 공통점이 관류한다. 크디큰 덕목이 무엇보다 기차를 형상화하는 데서 표출된다는 점이다. 그만큼 작품에서 기차 비중이 절대적이다.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포착해 보여 주는, 질주하는 기차 이미지도 그렇거니와 달리거나 폭설로 인한 사고로 정차한 기차 안팎을 에워싸는 사운드가 어찌나 매혹적인지 마치 기차를 처음 목격·체험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자료에 따르면 내성적이고 공상을 좋아하며 10대부터 시를 쓴 애거사 크리스티의 열차 사랑은 각별했다. 고작 열한 살 때 잡지에 시를 기고하기도 했는데, 할머니가 살던 마을에 열차가 달리던 첫날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었다. 훗날 남편으로 맞이해 46년을 함께 산, 열네 살 연하의 고고학자 맥스 맬로윈과 사랑을 싹틔운 곳도 다름 아닌 기차 안이었다. 그런 애거사의 기차 사랑을 두 영화는 더 할 나위 없이 효과적으로 구현·제시하는 데 성공한다. 사운드 이펙트로서 달리는 기차 바퀴 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감돌고 있다. 이 영화들에서 기차가 지니는 질적 함의나 양적 비중은 그간 다뤄 온 그 어떤 영화 속 기차 못잖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좀 더 일찍 소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는 법. 코로나19로 슬한 제약이 있어도 여행하기 제격인 7월에, 사연 가득한 십수 명의 인물이 장거리 여행을 하며 살인 사건과 얽히고설키고, 마침내 깨닫기 풀리는 범죄 미스터리물과 만나다니 이 어찌 흥미롭지 않겠는가. [K]



# 사람에게, 풍경에 스며드는 사진가 양해남

여유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가장 좋은 순간을 담기 위해 오랜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는 사진가 양해남을 만났다.

글. 이내경

● **시인, 다큐멘터리·조경 사진가, 한국 영화 자료 수집가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시네요.** 모두 좋아서 시작한 일이에요. 글자를 깨치지 못한 어린 시절에 영화가 마음에 들어 영화관에 가곤 했어요. 영화 포스터를 수집한 지 30여년, 이제 자료가 2400여 점에 달해요.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은 2019년에는 248점을 골라 한국 영화 포스터 컬렉션 책 <영화의 얼굴>을 냈어요. 영화 줄거리는 물론 감독과 배우에 얽힌 일화, 포스터 디자인과 제작 방식, 레터링의 변화 등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담았죠. 지식의 궁극적 목적은 혼자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2018년 첫 시집 출간에 이어 지난해에는 두 번째 사진 시집 <바람을 찍는 법>을 출간하셨어요. 사진을 찍고 시를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시를 쓰며 사진을 찍게 된 이유도 영화 자료를 수집한 맥락과 같아요. 글자를 어떻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를 떠올렸고, 이미지를 어떻게 멋지게 남길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시간을 시와 사진에 기록하는 거죠. 누군가는 글을 쓰면서 사진 찍기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지와 글이 하나거든요. 제겐 즐거운 작업이고, 좋은 것은 공유해야죠.

● **작가님 사진에는 시골 풍경과 인물이 참 많아요. 모두 진솔해 보이고요.** 저는 충남 금산 토박이예요. 동네 마실 가듯이 카메라 하나 들고 정처 없이 걷다가 끌리는 순간 멈추고 대화를 청하죠. 인생 이야기가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극적이지 않아도 저는 그분의 삶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 가요. 그렇게 서터 한 번 누르기 전까지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가 걸려요. 마음이 통해야 하거든요. 마음이 맞달기에 사진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기는 거죠.

●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네요.** 미련한 방식이죠. 끊임없이 헤아리고 좋은 순간을 포착하려고 기다려요. 매 순간 열심히 하면서도 끝을



© 양해남

보는 성격이에요. 한번은 사람들이 소원을 비느라 쌓은 돌탑을 찍으려 계속 맴돌다가 신고를 당했더니깐요. 이상한 사람이 자꾸 서성거린다고요.

● **조경의 대가 정영선 선생의 정원을 찍은 지도 오래되었다면서요.** 22년 전 처음 연을 맺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정원을 사진으로 담아 오라고 하셨어요. 매일 동네에 나가 사람과 풍경을 촬영한 터라 편안하게 다녀왔는데, 자연스럽게 찍힌 풍광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이후 선생님과 계속 작업했어요. 그 덕분에 한국 정원의 우수함을 알게 됐죠. 한국 정원은 사람과 함께해야 완성돼요. 정원을 거닐 사람의 동선을 떠올리며 구상하고, 대청에 앉아 울타리 너머 자연과 정원을 감상할 때의 어울림을 계산해 설계하죠. 그래서 매번 꽃밭을 노닐 사람을 상상하며 촬영해요. 몇 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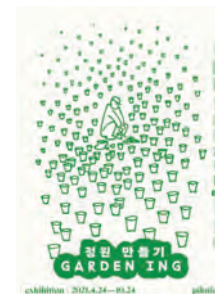


흐르고 나서도 계절마다 찾아가 사진을 남겨요. 나무와 꽃이 자라 풍경이 계속 변하기도 하고 사람이 가꾸면서 점점 더해지는 기쁨이 있거든요. 현재 서울 남창동 복합 문화 공간 '피크닉'에서 진행되는 전시 <정원 만들기>에서 정영선 조경가 색선에 제 작품을 전시했으니 방문해 보세요.

● **여행할 만한 정원을 추천하신다면요?**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회원이 떠오르네요. 회원은 한국 궁중 전통 정원을 잘 구현한 곳이에요. 그곳의 연못 법연지는 사각형인데요, 조선 시대 선인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여겨 그리 만들었죠. 땅에 자리한 연못이 니까 당연히 사각형으로요. 꽃 계단도 주목해야 해요. 궁중에서는 비탈에 키 작은 꽃을 층층이 울망쭈람 심어 경치를 극대화했어요. 지금 참 예쁘게 필 때네요.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으나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정원은 차경(借景) 원리를 제대로 보여 주죠. 정원 너머 보이는 도심의 뾰뾰한 빌딩 숲과 묘하게 어우러지거든요.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숲속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거요. 많은 이가 즐거워하는 일이니만큼 계속 소통하길 바라고요. 독자에게 연락 받는 게 무섭고도 기쁘거든요. 예전에 독자 한 분이 손톱에 새까맣게 때가 낀 나뭇다듬는 할머니의 손을 찍은 '머위 나물'을 보고 평평 울고 나서 위안을 받았다는 메일을 보냈어요. 그때 슬픔도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최근에는 한국 가요 서적을 준비 중이에요. 제가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음악 잡지에 글을 기고했고, 가요 LP를 7000장 정도 수집했거든요. 음질, 리코딩 환경 등을 분석한 특이한 책이니 기대해 주세요. ☑

## INFORMATION



<정원 만들기>전 모두가 자신만의 한 평 정원을 만드는 꿈을 꾸도록 독려한다. 미술가 최정화, 영화감독 정재은을 비롯해 여러 분야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소설가 박경리, 헤르만 헤세 등 작가를 소개한다. 갤러리 외부에는 한국 조경 선구자 정영선과 자연주의

정원 트렌드를 이끄는 정원가 김봉찬이 정원을 가꿔 도심 속 여유를 전한다. 서울 복합 문화 공간 '피크닉'에서 10월 24일까지.

문의 02-318-3233





<아주 사적인 궁궐 산책>

교과서에 등장하는 장소나 유물은 거룩하고 위대해서 '공적인' 면으로 기억하기 쉽다. 바꿔 말해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뜻이다. 조선 궁궐도 그렇다. 아름다운 건 인정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은 이미지다. 유물 해설가인 저자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광화문 앞 해치상을 방석 깔고 앉은 강아지라 상상하고, 궁궐 내 진달래나무를 보고는 화전 부처 먹고 술 담가 마셨을 선인을 떠올리는 발랄한 설명을 따라가노라니 궁궐이 친구 집처럼 친숙하게 다가온다. **김서윤** 지음 **놀 펴냄**



<걷는 독서>

시인은 걸었고 읽었다. 평생을 그리했다. 걷는 독서가 그를 키웠고 깨어 있게 했으며 시인으로 만들었다. 엄혹한 시절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고 수감되었을 때 그는 마음껏 걸을 수 없다는 사실에 갇혔음을 실감했다. 감옥을 나와서는 20여 년간 국경 너머 가난과 분쟁의 땅을 다니면서 걷는 독서를 지속했다. 머리와 다리가 길 위에서 만나 통찰의 문장을 낳았다. 그 문장을 모으고 옆에는 그가 찍은 사진을 배치했다. 어느 페이지를 펼쳐든 간결하고도 여운이 깊다. **박노해** 지음 **느린걸음 펴냄**



<오늘부터 공구로운 생활>

아버지가 쓰러진 뒤 가업을 잇기로 했다. 힙스터의 성지 서울 성수동에서 일하던 저자는 하루아침에 공구상으로 직업을 바꾼다. 생소한 사업에 뛰어들어 좌충우돌 배우기 시작했다. 일을 익히는 한편 공구상이 사용하는 언어, 보람차 하는 순간, 산업용품 다루는 자세를 관찰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대부분 사람이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졌다. 그들의 일상을 듣는 중 공구와 공구상에 대해 없던 관심도 생겨난다. 다양한 공구 사용법도 알차게 실었다. **정재영** 지음 **라이킷 펴냄**



<우리 동네 한의사>

믿을 만한 의사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진료 시간은 짧고 전문 지식은 부족해 의사 앞에서 증상을 우물거려다 나오는 경우도 많다. 저자도 스무 살 무렵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자신을 대충 훑고는 성의 없이 처방하고 내보낸 의사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가 환자와 소통하는 의료인이 되겠다 결심한 이유다. 한의원을 열고 1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켰다. 동네 주민 주치의로서 환자를 고치고 환자에게 배운 이야기를 담았다. 미소어리는 글에 건강 정보까지 덩으로 얻는다. **권해진** 지음 **보리 펴냄**



도심 속 힐링 공간  
달서별빛캠핑장

대구 달서구의 대표 여행지인 달서별빛캠핑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달빛이 쏟아지는 캠핑장에서 힐링을 누리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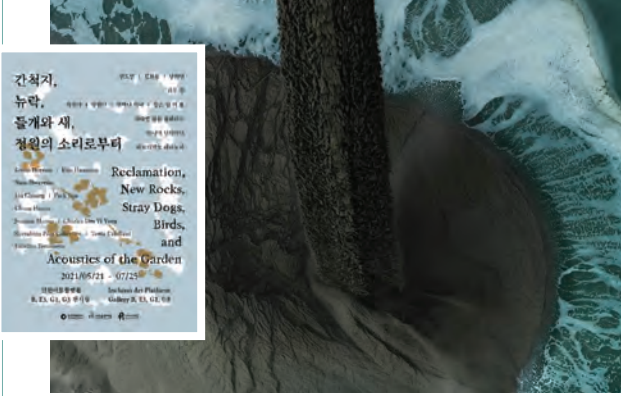




# EXHI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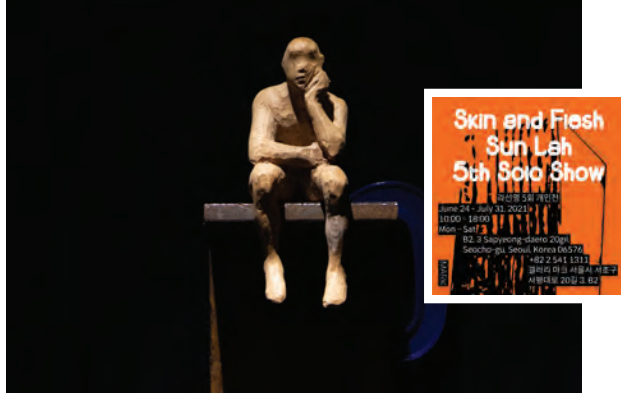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웹스립 이 용, 씨 스테이트 9: 신인(Sea State 9: Proclamation), 2018, 단채널 HD 영상, 컬러, 6분 43초



### <간척지, 뉴락, 들개와 새, 정원의 소리로부터>

인간은 스스로 초래한 생태 위기를 성찰하고 공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권도연,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등 7개국 11명(팀)이 영상·설치·사진 작품 30여 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질문한다. 그들은 인천 해변에서 찾아낸 플라스틱 암석인 뉴락이나 해외의 가상화폐 채굴 공장을 보여 주며 도시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가 인류 생존에 직결된 문제임을 은유한다. 모든 생명이 함께이기에 운명 공동체라는 진실이 확연해진다. **기간** 7월 25일까지 **문의** 032-760-1000(인천아트플랫폼)



### <Skin and Flesh-Sun Lah 5th Solo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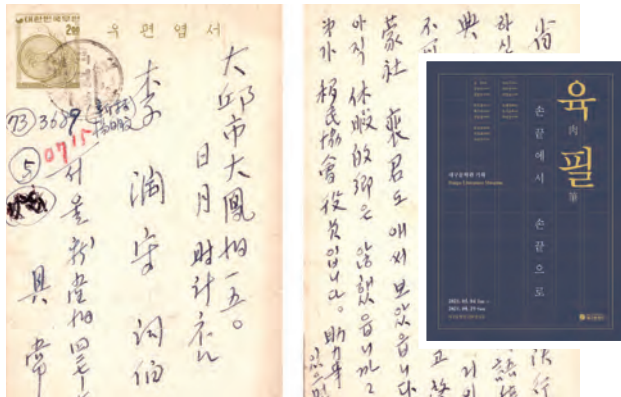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것이 과연 세상의 전부일까. 사물의 속성과 가치를 탐구하고, 그것을 질적으로 심화해 목재라는 소재에 투영하는 라선영 작가의 개인전이다. 2018년 전시에서 사람을 인형 크기로 축소한 작품으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작가는 이번에 더 깊어진 예술 세계를 내보인다. 언어로 해석되기 이전의 사물과 선입견이 개입되기 이전의 본질을 통찰해 완성한 37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재의 세계를 들여다보도록 이끈다. **기간** 7월 31일까지 **문의** 02-541-1311(서울 갤러리마크)

© DongiLee/ PIBI Gallery



### <펜타곤>

현대미술에 만화 이미지를 도입한 1세대 작가 이동기가 그동안 작업한 '절충주의' 시리즈와 신작 등 9점을 선보인다. 작가가 화두처럼 탐구하는 '절충주의'는 캔버스 안에서 서로 다른 요소를 충돌시키고 중첩하면서 시대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추출한 단어와 이미지를 뒤섞은, 낯설지만 낯익고 유쾌한 동시에 진중한 팝아트 작품이다. 길이 10미터의 '펜타곤'을 비롯한 작업들이 우리가 지나친 소비문화 현상을 암시한다. **기간** 7월 17일까지 **문의** 02-6263-2004(서울 피비갤러리)



### <육필-손끝에서 손끝으로>

한 글자씩 눌러 쓴 육필은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곤 한다. 반듯하거나 삐뚤빼뚤하고 깨알 같거나 휘갈긴 글씨엔 쓴 이의 몸과 정신이 투영됐기 때문이다. 대구문화관이 문인들의 육필을 모아 펼쳤다. 구상, 김동리, 김춘수, 박목월, 유치환, 이육사, 조지훈 등 문학사를 수놓은 작가의 편지와 엽서 31점, 육필 원고 40점, 필적 1점이다. 문인의 손끝에서 관람객의 손끝으로 전해지는 창작의 숨결이 생생한 영감을 일으킨다. **기간** 8월 29일까지 **문의** 053-421-1231(대구문화관)

구성이 이윤수에게 보낸 엽서. 대구문화관 소장.



### ▶ 공모대상

· 충청남도를 사랑하는 누구나

### ▶ 공모일정

· 접수기간: 2021년 5월 17일(월) ~ 10월 29일(금)  
· 결과발표: 2021년 11월 중

### ▶ 공모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신청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영상 분야의 경우, 접수신청 시 유튜브 업로드 후 기재 (비공개 영상일 경우 심사 불가)

### ▶ 시상내역

사진 분야	대상	1점	상금 200만원 및 상장
	금상	1점	상금 150만원 및 상장
은상	2점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동상	3점	상금 각 50만원 및 상장	
입선	30점	상금 각 20만원 및 상장	
영상 분야	대상	1점	상금 300만원 및 상장
	금상	2점	상금 200만원 및 상장
	은상	3점	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동상	8점	상금 각 50만원 및 상장

### ▶ 문의

· 운영사무국 TEL. 0505-300-5117(평일 10시~18시)  
· 충남관광 홈페이지: <https://tour.chungnam.go.kr>

### ▶ 공모부문

사진 분야	
공모주제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 사진 - 충남의 관광자원(관광지, 문화유적지, 축제 등) - 충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 나만 알고 있는 충남의 숨은 관광 명소
출품한도	1인 5점 이내 개인으로만 접수 가능
규격	해상도: 2000X3000(pixel) 이상 파일형태: JPG파일 * 사진 분야의 경우, 1차 심사 통과자는 원본 사진 제출 필요
UCC(동영상) 분야	
공모주제	충남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 영상 - 충남의 다양한 소재(문화, 축제, 음식, 체험 등)를 활용한 영상 - 충남 여행의 테마와 스토리가 담긴 영상 - 여행 장소별 특성과 체험이 잘 드러나는 영상
출품한도	1인 (팀) 3점 이내 개인 및 팀(5인 이내) 접수 가능
규격	영상 콘텐츠 (광고, 패러디, 드라마, 다큐 등 자유형식) 해상도: 1280X720(pixel) 이상 분량: 30초이상 3분 내외 파일형태: avi, wmv, mp4 등의 고화질 영상 * 수상작 발표 후, 원본 제출 필요

주최: 충청남도

# SHOW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통음악 전곡 시리즈>

국악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요즘, 전통 본연의 가치를 공유한다. 풍류 음악의 대표 기악곡 '평조희상'은 야외에서 주로 연주한 곡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악기 편성을 달리했다. 이번 공연은 세피리 대신 향피리로 바꿔 음량을 키우고 아쟁, 소금, 좌고 등을 추가해 더욱 화려하고 웅장하게 궁중음악을 선보인다. 90분 동안 귀가 호강한다.

일시 7월 15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문의 042-270-8585



###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제목 그대로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만으로 배우가 연기한다. 관객이 즉석에서 던지는 단어 중 작가가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칠판에 적으면서 공연이 막을 연다. 칠판에는 이미 제목·장르·장소·주요 인물 등이 적혔는데, 그 칸을 모두 채우는 순간 배우가 즉흥적으로 무대를 만들어 간다. 진짜 대본 없는 뮤지컬이다.

기간 7월 23일~24일 장소 경기도 이천아트홀 문의 031-636-2202



### <2021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예술의전당이 올여름에도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을 알차게 기획했다. 총 세 편의 작품으로 구성된 축제는 지난해 서울어린이연극상에서 대상, 관객인기상, 연출상 등 3개 부문을 수상한 연극 <우산도둑>으로 시작한다. 이야기꾼이 등장하는 공연은 관객이 극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몰입도를 높인다. 이후 이어지는 인형극 <하얀 산>, 음악극 <리틀 뮤지션> 모두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좋다.

기간 7월 15일~8월 22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580-1300



### <네버 기브 업>

어둠이 내린 세상에 한 젊은이가 따스한 빛이 새어나오는 듯한 곳을 향해 힘겹게 꿈틀대며 나아간다. 그러나 희망의 불빛이라 믿고 찾았던 장소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승진이나 합격을 위한 경쟁에서 생존하고자 기계같이 달릴 뿐이다. 오늘날의 청년 이야기를 재즈, 클래식, 현대 음악에 맞춰 안무로 풀어낸다. 대사를 걸들인 발레가 색다르다.

기간 7월 16일~17일 장소 인천문화예술회관 문의 010-8472-7966



Good morning & Good night.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떠 하얀 세면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과가 끝난 저녁엔 피로를 씻어내는 샤워로 하루를 마무리 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 LEEHYUN BATH

**'시스템욕실(System Bathroom)'이란?**  
욕실의 모든 구성부재 및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가공하여 현장설치/완성하는 건식 공법

TPR방수판 열융착공법 열가스성수지를 열융착 방식으로 제작하여 욕실의 다양한 형상 및 크기에 적용 가능  
PU복합판벨 접착성이 우수한 PU와 타일을 일체화시켜 방수, 단열, 차음, 방균 성능이 뛰어난 벽판넬  
천장 독특하고 다양한 디자인, 세련미와 편안함이 어우러진 인테리어 욕실 천장

TEL. 02-923-3855-7



**건식 욕실 시공의 장점**  
습식공법의 방수성능 저하 해결, 공간간 비간섭, 인력수급문제 등 해소, 복잡한 공정의 단순화, 격조있는 고품격 욕실 구현

**특허 및 인증 현황**  
기술연구소 인정서, INNObiz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관련 특허 21건, 디자인 32건 보유

# MOVIE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물카페, 온정>

중군 사진기자 현재는 지우기 힘든 상처를 받아 일을 그만둔다. 그 후 할아버지의 수목원에 갔다가 어린 시절 식물과 교감한 순간을 떠올리곤 식물 카페 '온정'을 오픈한다. 아픈 식물에 처방을 내리는 한편, 사람에게도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곳이다. 오랜 고시 공부를 포기한 사회 초년생,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20대, 출산을 앞두고 퇴사를 결심한 30대 등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손님들이 찾아와 저마다 고민을 털어놓는다. 6월 24일 개봉. **감독** 최창환 **출연** 강길우, 김우겸



<웬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고전 <피터팬>을 웬디의 시점으로 그린 실사영화다. 기차길 옆 작은 식당에 사는 웬디는 피터팬을 따라 어린이만 살 수 있는 섬으로 모험을 떠난다. 영원히 소년이기길 바라는 피터팬과 달리, 나이를 이해하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다. 2012년 장편 데뷔작 <비스트>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카메라상, 선댄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벤 제틀린 감독이 연출과 각색을 맡아 보다 주체적 성격의 웬디를 구현해 냈다. 6월 30일 개봉. **감독** 벤 제틀린 **출연** 데빈 프랑스, 아슈아막



<미션 임파서블: 루벤>

심리 치료사 루벤은 영화 속 주인공에게 공격당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린다.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환상들과 함께 꿈에 나온 그림 13점을 훔치기로 한다. 세계 곳곳의 미술관을 대상으로 거대한 규모의 작전이 펼쳐진다. 고공 액션, 자동차 추격전 등 스릴 넘치는 장면과 기발한 전개로 2019년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19개 국제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은 애니메이션이다. 7월 8일 개봉.

**감독** 밀로라드 크르스틱 **목소리 출연** 가브리엘라 하모리, 이반 카마라스



<랑중>

광활한 자연에 둘러싸인 타이 북동부의 산골 마을, 대대로 조상신을 모시는 가문의 무당(랑중)인 님은 조카 밍의 신내림을 감지한다. 님을 취재하러 온 촬영 팀이 이 현상을 카메라에 담는다.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타이 샤머니즘을 신비롭게 풀어냈다. 영화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이 기획·제작했고, 2004년 영화 <서터>로 천재 감독이라 칭송받은 타이의 반종 피산다나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7월 개봉.

**감독** 반종 피산다나운 **출연** 나릴야 군몽콘켓, 싸와니 우툼마

# 국가어항 제3회 디지털 사진공모전 ~ 2021. 8. 31.

<b>참가 자격</b>	대한민국 국민 (등록외국인 포함)	
<b>공모 부문</b>	부문	공모소재
	경관	국가어항과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를 담은 사진
	인물	국가어항을 배경으로 사람을 소재로 담은 사진
	기능	기능적 측면에서 국가어항의 고유 가치를 표현한 사진

- 공모 일정**
- 작품 접수 : ~ 2021년 8월 31일 (화)
  - 수상자 발표 : 9월 중
  - 수상작 전시 : 10월 중

- 응모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www.국가어항디지털사진공모전.kr
  - 출품대상 : 2020년 1월 ~ 접수 마감 시까지 촬영한 사진
  - 출품양식
    - 파일명 : 성명\_작품명
    - 크 기 : 장축 기준 3,000Pixel 이상의 JPG 파일
    - 정 보 : 사진촬영 장소, 시간, 작품에 대한 설명
  - 출품제한 : 1인당 최대 5매

**상 금** 총 상금 600만원 (단위:만원)

구분	상금	인원	비고
대상	200	1	해양수산부 장관상 / 기념품
최우수상 (부문별 1명)	50	3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상 / 기념품
우수상 (부문별 2명)	20	6	기념품
장려상 (부문별 3명)	10	9	
참가상	5	8	

※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어항 디지털사진공모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국가어항이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 현재 113개 지정되어 있다.

문의 : 국가어항 디지털사진공모전 운영사무국 02-890-0947

검색창에 '국가어항 사진공모전'을 검색하세요!



# Gyeongju, the Golden City

Article and photos by **Nguyen Thi Huyen Tram** (Korea Travel Qrator, Vietnam)



Gyeongju is known as the “Golden City” because it is home to many religious and cultural sites, and boasts a rich history of over 1,000 years. Gyeongju was the capital city of Silla for 992 years. The wealth of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remaining to date makes this city a true open-air museum. There are no high-rise buildings here, and many people live in traditional Korean houses known as *hanok*.

My itinerary began at Gyeongju Oreung, which literally means “five royal tombs.” As the name implies, the site features five tombs: the final resting places of four kings and one queen from the Silla Kingdom. My next stop was Cheomseongdae Observatory, the oldest astronomical observatory in East Asia. The people of Silla observed astronomical movements to make farming decisions. The number of stones and floors of Cheomseongdae represent altitude.

Another place not to be missed in Gyeongju is Daereungwon. As you know, Gyeongju is the city of ancient tombs. Among them, the Daereungwon Tomb Complex is the largest, consisting of 23 tombs from the Silla period. In the evening, I stopped by Donggung Palace and Wolji Pond, which are famous for their night view. The structure was beautifully lit, and the gorgeous reflection of the palace in the water below added to the charming, mysterious atmosphere. In Gyeongju, the spirit of Silla has been alive for close to a thousand years. It can be felt in each temple, royal tomb, palace, old house, street corner, and in each Gyeongju citizen, making the city a truly golden city. ✉

## Traveler's Room

**Gyeongju Suhojeong** At 10 a.m., I received a text message asking me about my arrival time. It was my host in Gyeongju. I anxiously asked her if I could check in or leave my luggage earlier. She replied, “It is fine if you come early.” As soon as I arrived at the guesthouse, a woman cheerfully greeted me, and led me to my room. She rushed in first to turn on the heating and hot water systems. Being a modified *hanok*, Suhojeong is well-equipped with bathrooms and a kitchen. Even with its modern facilities, the place retains the beauty of a traditional *hanok*. The host lives in the same building, and makes sure that the rooms are kept tidy and clean. Thanks to the host's warm welcome and convenient facilities. **054-772-5871** [www.경주한옥민](http://www.경주한옥민)

\* Korea Quality, certifi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is a certified designation system that helps tourists select high-quality facilities and services.



'KTX매거진 NEW' 앱을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 KTX매거진 앱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KTX매거진>을 **E-BOOK**은 물론 **웹·모바일 페이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KTX매거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도 만나요~





자료 합조. 한빛에듀

- 미션1 서로 다른 그림 10개를 찾아보세요.
- 미션2 두 그림 속 파라솔은 모두  개일까요?



**INFORMATION**  
**<똑똑한 두뇌 연습-세계 여행 다른 그림 찾기>**  
 책으로 세계 여행지를 만난다. 공항에서 출발해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그리스 산토리니,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 슬로바키아 보이니체성, 몽골 초원을 여행한다. 여행자처럼, 때로는 탐험가처럼 세계를 유람하며 다른 그림을 찾아보자. 그곳에 사는 사람들, 건축물, 자연, 동물과 식물을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다.  
 제니 에스피노사 지음 한빛에듀 펴냄



\*정답: 파라솔은 모두 7개

### 휘닉스 평창

#### 맑은 공기가 가득한 포레스트 쉼터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청정 자연에 둘러싸인 휘닉스 평창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휴식을 취하자. 휘닉스 평창엔 자연 속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포레스트 파크가 자리한다. 특히 조용히 쉬어가기 좋은 포레스트 쉼터에는 삼각형의 캐빈을 설치했다. 피톤치드 풍부한 숲속 캐빈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선선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온갖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쉼터 앞 지압로에서 발 마사지를 하며 건강도 챙긴다. 투숙객을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오일장 버스 투어에 참여해 지역 전통시장을 탐방해 봐도 재밌겠다.

☎ 1577-0069 www.phoenixnr.co.kr



### 시그니엘 부산

#### 브라이덜 샤워 패키지

프리미엄 랜드마크 호텔 시그니엘 부산이 예비 신부와 친구들을 위해 '브라이덜 샤워(Bridal Shower) 패키지'를 선보인다. 4인 1박 기준으로 시그니엘프리미어 등급 객실 2개와 4인 조식 이용권을 제공한다. 쾌적한 객실에서 축하 파티와 더불어 편안한 호캉스를 누린다. 호텔에서 준비한 핑거 푸드, 뷔브 클리코 로제 샴페인 1병, 플라워 센터피스, 달콤한 케이크가 파티 분위기를 돋운다.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딕티크' 어메니티 5종(4세트)도 추가로 비치한다. 소중한 추억을 남기도록 즉석카메라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를 대여해 준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

☎ 051-922-1000 www.lottehot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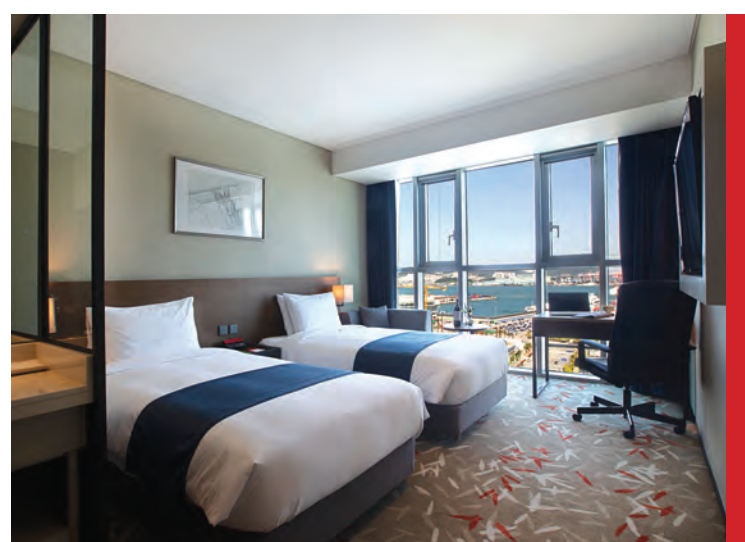


### 아스티호텔 부산

#### 부산역 바로 옆 패키지

아스티호텔 부산이 부산역 인근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얼리 체크인 혹은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을 주는 '부산역 바로 옆 패키지'를 내놨다. 부산역을 이용해 여행하는 숙박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두 가지 타입의 패키지로 일정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먼저 '부산역 바로 옆 얼리체크인'은 오전 11시부터 체크인할 수 있다. 이른 일정을 시작하려는 여행자에게 안성맞춤이다. '부산역 바로 옆 늦 체크아웃'은 오후 3시까지 레이트 체크아웃이 가능해 이틀날 여유롭게 움직인다. 스탠더드 더블과 트윈, 마루 스위트 같은 객실 타입에 적용한다. 기간은 8월 31일까지.

☎ 051-409-8888 www.astihotel.co.kr



<KTX매거진> 6월호를 보고 나서



삼색 매력 원주 산 강원도 원주시 <KTX매거진> 표지를 장식하다니요! KTX-이음 개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 여행지를 방문하고 복숭아불고기와 뽕잎밥을 꼭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김진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칙칙폭폭 그때 그 기차 이야기 “우레와 번개처럼 달리고 비와 바람같이 날뛴다”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120년 후 철도의 날에는 KTX와 그때의 기차를 비교하겠지요? 이지원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구멍가게라는 소유주 이미경 작가가 진솔한 마음으로 그린 구멍가게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구멍가게뿐인지, 저 자신에게 오래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목현정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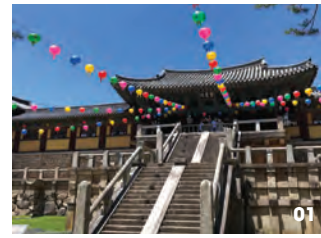
기차로 여행하면서

01 결혼한 지 5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연차를 내고 떠난 곳은 수해여행 이후엔 찾은 적 없는 경북 경주입니다. 2박 3일 동안 거의 비가 왔어요ㅠㅠ 그래도 아름다운 경주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주하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02 기차를 좋아하는 첫째 아이와 강원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양양에서 정동진까지 차로 이동했는데 훌륭한 기차 뷰를 발견했어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면서 <KTX매거진> 이 생각났습니다. 어때요~ 멋지죠?

김민재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25길

03 1년에 한두 번은 고등학교 친구와 여행을 다녀요. 이번 목적지는 남만의 도시 전남 여수. 불나방이 되어 먹고 놀며 힐링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왔어요. 사진은 <KTX매거진>처럼 좋은 친구들♥ 최선희 전북 익산시 인북로32길



01 기사를 읽은 소감과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02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 (사진은 600KB 이상).

03 이메일 주소는 ktx@swadcom.co.kr입니다.

04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05 마감은 7월 15일입니다.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코웨이 뷰티 브랜드 리엔케이(Re:NK)의 '셀 루미너스 안티폴루션 UV 실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선블록은 사계절 필수 제품입니다. 셀 루미너스 안티폴루션 UV 실드는 밀착력이 좋아 산뜻하게 발리며, 피부 톤을 맑게 가꿔 줍니다. 또 피부를 지키는 스킨 프로젝트 효과로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제7회 철도사진공모전 수상작 '영산강을 굽이 돌아'

- 172 한국철도 소식
- 178 시간표
- 188 편의시설 및 부가서비스
- 190 열차이용안내
- 192 비상시 행동 매뉴얼

KORAIL 한국철도  
Information

# 한국철도 소식 KORAIL NEWS



## 한국철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 위해 소방청과 업무 협약

한국철도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악천후로 헬리콥터가 날지 못하자 KTX로 장기를 수송, 이식 수술을 기다리던 한 소방관의 생명을 살린 두 기관의 협력 사례가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지역 단위로 이뤄지던 소방과 철도 분야의 단발 협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체계를 공고히 하고, 응급 환자 구조와 구급·긴급 이송 등 비상시 힘을 모아 재빠르게 초기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이와 더불어 소방청은 철도 시설과 열차의 소방 안전 점검, 화재 예방, 인명 구조, 재난 대응 등 교육 훈련을 지원해 철도 전반의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국철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두 기관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5만여 명이 하나 된 '한국철도 걷기 기부 챌린지'

5만여 명의 걸음이 모여 마련한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비혼모 가정에 기부했다. KTX를 이용한 승객 8억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기획한 '비혼모 가정'을 지원하는 '걷기 챌린지'는 참여형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한 달간 8억 보를 함께 걸으며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비혼모 가정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자는 취지로 진행했다. 한국철도 임직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캠페인 관련 팸플릿 들고 걷기, 걸음 수 인증 화면이나 길 위에서 찍은 셀카를 공유하며 걷기 기부 챌린지에 동참했다. 걷기 챌린지는 시작한 지 4일 만에 8억 보를 돌파했고, 총 5만여 명이 참여해 목표치의 열두 배인 100억 보를 기록했다. 한국철도는 국제 아동 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전국 8개 지역본부별로 500여 비혼모 가정을 선정해 체온계, 기저귀 가방 등 육아용품 전달했으며, 향후에도 놀이용품 후원, 온라인 교육 등 나눔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 한국철도, 폭염 대비 KTX 고속선 현장 점검

지난 6월 한국철도가 폭염을 대비해 KTX 고속선 자동 살수장치 등 열차단 설비를 집중 점검했다. 자동 살수장치는 여름철 레일 온도가 48도를 넘어설 때 선로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 열기를 식힌다. 올여름 한국철도는 레일 온도 상승으로 열차가 서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선로 모니터링 강화, 고속선 자동 살수장치 점검, 외부 열기를 막아 레일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차열성 페인트 도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열을 차단할 계획이다.

# 역·열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꼭 지켜주세요!

위반시 최고 10만원 과태료 부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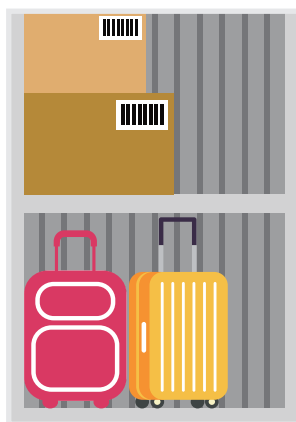
# 열차 내 휴대품 승차 기준

## 휴대품 승차 기준



고객 1인이 스스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가지고 열차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신 수화물은 객실과 객실 사이에 있는 수화물 보관함 또는 객실 내 선반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반려동물은 별도 운반 케이스에 넣어서 승차하셔야 합니다.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몸무게 10kg 이내의 개·고양이·새 등으로 길이 100cm(45×30×25cm) 이내 운반 용기에 넣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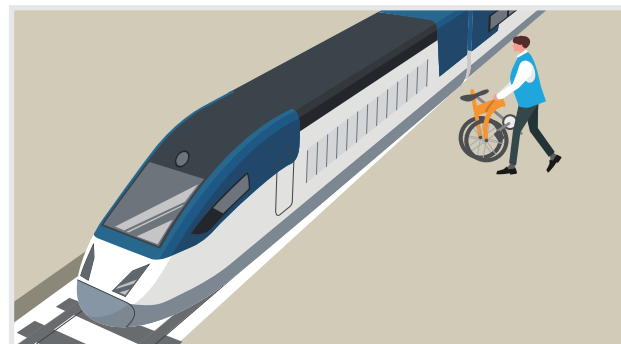
반려동물은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맹수, 맹금류 등은 탑승을 제한합니다.

## 자전거



반드시 접어서 열차에 승차해야 합니다. 일체형 자전거의 경우 완전 분해해 가방에 넣어야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록이 철도 역사입니다.

# 철도사랑 철도인 유물 모으기 운동

기간 2021년 6월~9월

참여 대상 철도 관련 직원(퇴직자) 및 누구나

수집 대상 철도 역사·문화·생활사에 관한 모든 것

기증자 예우

- 유물기증서 수여 및 철도박물관 무료 관람권 제공
- 가치가 크거나 다수의 유물 기증자는 표창(예정)

문의 철도박물관 담당자(031-460-4360)







## 천혜의 풍광에 동화하는 삼척 여행

### 자연이 만든 절경, 환선굴

무더운 여름에 더없이 좋은 피서지다. 동굴에 들어서기 전부터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싼다. 약 5억 3000만 년 전부터 형성된 석회암 동굴로 한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환선굴은 모노레일을 타거나 걸어서 올라간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10분 정도 걸리는 모노레일이 제격. 동굴 내부는 스님이 도를 닦다가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올 만큼 신비롭다. 곳곳에서 폭포가 기세 좋게 흘러내리고, 자연과 시간이 조각한 미녀상, 마리아상, 도깨비방망이, 옥좌대 등 다양한 종유석, 석순, 석주가 사방에 펼쳐진다. 감상하느라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는다. 운 좋으면 동굴에 사는 희귀 동물도 목격할 수 있으니 주위를 잘 살펴보자.



### 삼척 관광의 랜드마크, 삼척해상케이블카

바다 위를 가로질러 가는 케이블카가 올망졸망 귀엽다. 삼척해상케이블카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손꼽는 용화해변과 장호해변을 연결한다. 해저를 투영할 정도로 맑은 바닷물과 기암괴석, 백사장이 어우러져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장호해변에 자리한 장호역에서 탑승한다. 케이블카 사면에 창이나 해안과 심해 풍광이 동시에 들어온다. 연안에서 카약을 타고 유유자적 노니는 이들과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가 어우러져 가슴이 뻥 뚫리고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투명한 바닥을 통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넘실대는 파도가 정신을 아득하게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난 후 삼척해양레일바이크, 해신당공원 등 인근 여행지를 둘러도 좋겠다.



1939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신기역은 환선굴, 대금굴 등 명소와 가까워 사람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MBC <손현주의 간이역>에서 신기역을 소개해 무궁화호 타고 찾는 이가 부쩍 늘었다. 신기역에 내리자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손현주·임지연, 개그맨 김준현, 배우 소이현·인교진 부부가 만든 안내문과 온도계 가림막이 반긴다. 방영을 기념해 한국철도 강릉역 강원권여행센터에서는 KTX 왕복 열차표와 24시간 렌터카 이용권을 결합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1인당 1만 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증정하고 자차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7월 31일까지. 문의 033-520-8376(한국철도 강원권여행센터)

### 새천년 소망이 숨 쉬는 장소, 새천년해안유원지

기암괴석, 소나무 숲, 쪽빛 동해가 한데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온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이름을 올린 이사부길은 경치가 빼어나 드라이브하다가 절로 멈추게 되는 해안 도로다. 삼척시가 지난 2000년 밀레니엄을 기념해 삼척항에서 삼척해변까지 해안 절벽을 따라 4.6킬로미터에 걸쳐 조성했다. 도로 중간에 위치한 새천년해안유원지에는 소망의 탑과 비치조각공원이 있어 쉬었다 가기 좋다. 언덕 위 소망의 탑도 당시에 건립했는데, 하늘을 향해 가지런하게 모아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했다. 탑 아래에는 100년 후를 기약하며 삼척시 관련 기록과 자료를 보관한 타임캡슐을 묻었다. 새천년의 희망과 환희가 전해진다.



### 관동팔경 제1의 누각, 죽서루

오랜 역사를 가진 보물 제213호 죽서루에 오르는 기분이 황송하다. 보통 오래된 유적은 출입하기 힘들으나 이곳은 가능하다.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지은 널찍한 누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예부터 관동 팔경으로 칭송받은 여행지답게 황홀하다. 누각에 관동제일루라는 현판도 걸려 있다. 녹음 사이로 오십천이 유유히 흘러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진다. 누각 근처 웅문바위, 선사 암각화는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다. 선사시대 바위 위에 구멍 일곱 개를 뚫어 놓은 성혈 암각화는 신기하고, 바위 중간에 동그란 구멍이 뚫린 웅문바위는 호국 용이 된 문무왕이 동해를 지키다가 오십천에 뛰어들 때 죽서루 옆 바위를 뚫고 지나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와 흥미롭다.



KTX/KTX-산천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爾 Seoul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亞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대전 大田 Daejeon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울산 蔚山 Ulsan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		05:15	05:32			06:14		06:57	07:15	07:28	07:49	
161		05:20	05:37			06:19		07:02	07:15	07:28	08:14	월
3		05:30	05:47	06:09		06:34	06:58	07:23	07:41	07:54	08:15	
5		06:00	06:17	06:39		07:04		07:47		08:12	08:33	
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금토일 KTX-산천
1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2		08:27	08:48	월화수목 KTX-산천
7	06:13	06:35	06:52			07:34	07:58	08:23	08:41	08:54	09:15	
9		07:00	07:17	07:39	07:52	08:09		08:52		09:17	09:38	
11	07:08	07:30	07:47		08:15	08:34	08:58	09:23			10:03	
13		07:52	08:09			08:49		09:32			10:12	
15		08:00	08:18			09:00	09:24	09:48	10:07	10:20	10:41	
121		08:14	영등포 08:24	수원 08:47		09:57		10:40			11:20	
17	08:30	09:00				09:52		10:35			11:15	
19		09:30	09:47		10:16	10:35	10:59	11:23	11:42	11:55	12:16	KTX-산천
101		09:45	10:02	10:25		10:50		11:33	밀양 12:06	구포 12:32	12:45	
21		10:00	10:17	10:39		11:04		11:47	12:06	12:19	12:40	
123		10:14	영등포 10:24	수원 10:48		11:59		12:42	13:00	13:13	13:34	
163		10:20		10:54	11:07	11:24		12:07	밀양 12:40	구포 13:06	13:19	금토일
23		10:30	10:47	11:09	11:22	11:39	12:03	12:27		12:52	13:13	
25		11:00	11:17	11:39		12:05		12:48	13:07	13:19	13:41	
171		11:33	영등포 11:43	수원 12:07		13:17	13:41	14:05			14:49	토일
27		12:00	12:17	12:39		13:05		13:48	14:07	14:19	14:41	
29		12:27	12:44	13:06		13:32		14:16		14:41	15:02	
3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5:01	15:19		15:47	KTX-산천
103		13:10	13:27	13:49		14:15	14:39	15:04	밀양 15:37	구포 16:03	16:16	
33		13:20	13:37	13:59	14:12	14:29		15:12		15:36	15:58	
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금토일
183	13:30	13:52	14:09			14:51	15:15	15:39		16:04	16:25	월화수목
35		14:00		14:35	14:48	15:05		15:48	16:06		16:34	
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금토일
185	13:55	14:17	14:34			15:14		15:58			16:38	월화수목 KTX-산천
37		14:21	14:38		15:06	15:25		16:08			16:49	
39		14:30	14:47	15:09		15:34		16:18	16:37	16:50	17:11	KTX-산천
87		14:43	15:00	15:22	15:35	15:52		16:35	16:53		17:21	금토일
41	14:38	15:00	15:17	15:39	15:52	16:09		16:53		17:18	17:39	
89		15:25		16:00		16:23		17:06			17:46	토일 KTX-산천
43		15:40	15:57		16:25	16:44		17:27		17:52	18:13	
45		16:00	16:17			16:57	17:21	17:45	18:04		18:32	
125		16:04	영등포 16:17	수원 16:41		17:51		18:34		18:59	19:20	
47		16:30		17:04		17:29		18:12		18:37	18:58	
49		17:00	17:18		17:46	18:05	18:29	18:54		19:19	19:40	
105	16:48	17:15	17:32			18:15		18:58	경산 19:09	밀양 19:36	구포 20:02	20:15
51		17:25	17:42	18:05		18:30		19:13	19:31	19:44	20:05	
53		18:00		18:34		19:00	19:24	19:49		20:14	20:35	
55		18:15	18:32		19:00	19:19		20:02		20:27	20:48	
57	18:08	18:30		19:05	19:17	19:34		20:17	20:36	20:48	21:10	
107		18:43	19:00	19:22	19:35	19:52	20:16	20:40	밀양 21:13	구포 21:39	21:52	
127		18:55	영등포 19:08	수원 19:33		20:44		21:27	21:45		22:13	
59		19:00	19:17	19:39	19:52	20:09		20:52		21:17	21:38	
91		19:22	19:39			20:19		21:03		21:28	21:49	금토일
61		19:37			20:17	20:34	20:58	21:23		21:48	22:09	
165		19:46	20:03	20:25		20:49		21:32	밀양 22:05	구포 22:31	22:44	금토
173		19:50	영등포 20:00	수원 20:23		21:33		22:16	22:34		23:02	금토일
93		19:56	20:13	20:35		20:58		21:41	22:00		22:28	금토일
63	19:38	20:00	20:17	20:39	20:52	21:09		21:51		22:16	22:37	
95		20:15	20:32	20:55		21:18		22:01			22:41	금토일
65		20:30				21:22		22:05			22:45	
109		20:50	21:07	21:29		21:54		22:39	밀양 23:12	구포 23:38	23:51	
67		21:00	21:16	21:39		22:04	22:28	22:53		23:18	23:39	
69		21:30	21:47		22:16	22:35		23:18	23:36	23:49	00:10	
111		21:35	21:52	22:14	22:27	22:44		23:27	밀양 00:00	구포 00:26	00:39	
71		22:00	22:17	22:39		23:04		23:47		00:12	00:33	
73		22:30	22:47	23:09		23:34		00:17		00:42	01:03	
97		22:51	23:08			23:48		00:31			01:11	금토일
117		23:00	23:17	23:39	23:52	00:09	00:33	00:56				
119		23:30	23:47	00:09	00:22	00:37						

KTX/KTX-산천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7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울산 蔚山 Ulsan	신경주 新慶州 Sin gyeongj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김천(구미) 金泉(龜尾) Gimcheon (Gumi)	대전 大田 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亞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서울 首爾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116						05:55	06:12	06:25	06:51	07:07		
82	04:45	05:08	05:20	05:38		06:20		06:44	07:10	07:26		월
118						06:34	06:52	07:05	07:30	07:46		화수목금토일
166	04:39	구포 04:53	밀양 05:19	05:52		06:34	06:52	07:05	07:30	07:46		월
2	05:10	05:33		05:58	06:21	06:45		07:09	07:35	07:51		
4	05:20		05:48	06:07		06:49	07:07		07:39	07:55		
6	05:40	06:03		06:28		07:10	07:27	07:40	08:06	08:22		
120				06:42	07:05	07:29	07:47	08:00	08:25	08:41		
8	06:10	06:33	06:45	07:03	07:26	07:51	08:08	08:21	08:47	09:03		
84	06:30	06:53	07:05	07:24		08:06	08:24			09:07		금토일
170	06:42		07:10	07:30		08:14		수원 09:25	영등포 09:47	09:56		토일
102	06:16	구포 06:30	밀양 06:56	경산 07:22	07:33	07:56	08:20	08:38	08:51	09:16	09:32	
10	07:00	07:23		07:48	08:11	08:35	08:53		09:25	09:41		
12	07:30	07:53	08:05	08:23		09:06		09:31	09:56	10:12		
86	07:50	08:13		08:38	09:01	09:25	09:43	09:56	10:22	10:38		금토일
14	08:10	08:33		08:58	09:21	09:46		10:10		10:46		
122	08:20	08:43		09:08		09:51		수원 11:01	영등포 11:23	11:32		
104	08:15	구포 08:29	밀양 08:55	09:28		10:10	10:28		11:01	11:17		
16	08:40	09:03	09:15	09:33		10:16	10:33		11:06	11:27	11:44	
18	08:50	09:13		09:38	10:01	10:26		11:10	11:10	11:26		
20	09:06	09:29		09:54		10:36	10:53	11:06	11:31	11:47		
22	09:36			10:17		10:58				11:51		
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금토일 월화수목 KTX-산천
188	09:44	10:07		10:32		11:14			11:57	12:13		
24	10:03			10:44		11:26		11:50	12:15	12:31		
26	10:20	10:43	10:55	11:13		11:55	12:13		12:46	13:02		
162	10:06	구포 10:20	밀양 10:46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8	11:00	11:23		11:48	12:11	12:37	12:54		13:27	13:43		
30	12:00	12:23		12:49	13:12	13:37	13:55	14:08	14:33	14:49		
32	12:30	12:53	13:05	13:23		14:06	14:23		14:56	15:12		
34	13:10	13:33		13:58		14:40	14:57	15:10		15:46		
124	13:25			14:06		14:48		수원 15:58	영등포 16:20	16:29		
90	13:30			14:11		14:53	15:10	15:23	15:49	16:05		금토
106	13:29	구포 13:43	밀양 14:09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36	14:00	14:23		14:48	15:11	15:36	15:53	16:07		16:48	17:05	
38	14:20		14:48	15:07		15:49	16:07			16:50		
40	14:30	14:53	15:05	15:24	15:47	16:12			16:55	17:23	17:43	
42	15:10			15:51		16:32				17:25		
92	15:20			16:01		16:43			17:26	17:42		금토일
172	15:25			16:06		16:48		수원 17:58	영등포 18:20	18:29		금토일
44	15:45	16:08		16:33		17:15		17:39	18:04	18:20		
108	15:35	구포 15:49	밀양 16:15	16:48		17:30	17:48					

**KTX/KTX-산천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Masan-Jinju**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밀양 密陽	진영 進永	창원중앙 昌原中央	창원 昌原	마산 馬山	진주 晉州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Miryang	Jinyeong	Changwonjungang	Changwon	Masan	Jinju	Remark
201		05:05	05:22			06:04		06:50	07:23	07:41	07:53	08:01	08:08	08:32	KTX-산천
203		05:40	05:57	06:19	06:32	06:49		07:35 경산 07:46	08:13		08:39		08:51	09:15	KTX-산천
281		06:05	06:22	06:44	06:57	07:14	07:38	08:05	08:38	08:57		09:13	09:20	09:44	금토일 KTX-산천
205		08:25	08:42	09:10	09:29			10:12	10:45		11:11			11:47	
207		09:06	09:23	09:45		10:10	10:34	10:59	11:32	11:50		12:07	12:12		
285		09:30	09:47		10:16	10:35	10:59	11:26			12:22		12:34	12:58	금토일 KTX-산천
209		10:05	10:22	10:44		11:09	11:33	11:58	12:31		12:57		13:09	13:33	
211	12:28	12:50	13:07		13:36	13:55		14:38		15:26	15:37	15:46	15:51		
213		13:40		14:14		14:39		15:22	15:55		16:21		16:33	16:57	
287		14:30	14:47	15:09		15:34		16:21	16:54	17:12	17:24	17:34			금토일 KTX-산천
283		15:11	15:28		15:56	16:15		17:01	17:34		18:00	18:09	18:16	18:40	금토일 KTX-산천
215		16:20	16:37		17:05	17:24		18:10	18:43	19:02	19:14		19:24		KTX-산천
217		17:35	17:52		18:20	18:39	19:03	19:31			20:32	20:37			KTX-산천
219	17:36	18:05	18:22	18:45		19:10		19:53	20:26		20:52	21:02			금토일 KTX-산천
22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5		23:24	23:35	23:44	23:51	00:15	KTX-산천
223		22:10	22:27			23:09	23:33	23:57	00:30			01:02	01:07		KTX-산천

**KTX/KTX-산천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2021년 7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진주 晉州	마산 馬山	창원 昌原	창원중앙 昌原中央	진영 進永	밀양 密陽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Jinju	Masan	Changwon	Changwonjungang	Jinyeong	Miry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02		05:00	05:06	05:14	05:25	05:42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04	06:16	06:41	06:47		07:03	07:20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06	08:58	09:24		09:36	09:47	10:04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08	10:06	10:32	10:38	10:46		11:11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82	11:24	11:50		12:02	12:26	13:00	13:23	13:47	14:12	14:37	14:53				금토일 KTX-산천
210		12:40		12:52	13:16	13:51		14:33			14:57	15:22	15:38		
212	12:52	13:18	13:24	13:32	13:43		14:30	14:53	15:17	15:35		16:07	16:35	16:55	
214	14:34	15:00		15:12		15:36	16:10		16:52			17:35	17:51		
284	15:25	15:51		16:03	16:27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금토일 KTX-산천
216		16:50	16:56	17:04	17:15		18:02	18:25	18:49		19:13	19:39	19:55		
218	17:45	18:11		18:23	18:47	19:21		20:03			20:46	21:02			
286	18:21			18:33	18:43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20		20:00	20:06		20:22	20:39	21:12	21:35	22:01	22:19		22:51	23:07		KTX-산천
288	20:05	20:31		20:43	21:07	21:41	22:04	22:28	22:46	22:59		23:35			금토일 KTX-산천
222		21:08		21:20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224		21:43	21:49			22:19	22:52		23:34		00:18	00:34			

**KTX/KTX-산천 동해선 하행 From Seoul to Pohang**

열차번호 列車番號	행신 幸信	서울 首爾	광명 光明	천안아산 天安牙山	오송 五松	대전 大田	김천(구미) 金泉(龜尾)	동대구 東大邱	포항 浦項	비고 備考
Train NO.	Haengsin	Seoul	Gwangmyeong	Cheonan-Asan	Osong	Daejeon	Gimcheon(Gumi)	Dongdaegu	Pohang	Remark
297		05:05	05:22			06:04		06:47	07:22	금토일 KTX-산천
231		05:40	05:57	06:19	06:32	06:49		07:32	08:07	KTX-산천
233		06:45	07:02	07:25		07:50		08:33	09:08	
235	07:48	08:10	08:28	08:51	09:03	09:20		10:04	10:39	KTX-산천
237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월화수목 KTX-산천
291		09:25	09:42		10:10	10:29		11:13	11:48	금토일 KTX-산천
239	10:23	10:45	11:02	11:24	11:37	11:54		12:37	13:12	KTX-산천
243		12:41			13:22	13:39		14:22	14:57	
241		13:00	13:17	13:39	13:52	14:09	14:33	14:57	15:33	KTX-산천
245	14:13	14:35	14:52	15:14		15:39	16:03	16:28	17:03	
293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금토일 KTX-산천
295		15:11	15:28		15:56	16:15		16:59	17:34	월화수목 KTX-산천
247		16:20	16:37		17:05	17:24		18:07	18:43	KTX-산천
249		17:35	17:52		18:20	18:39	19:03	19:28	20:03	KTX-산천
251		20:40	20:57	21:19	21:32	21:49		22:32	23:07	KTX-산천
253		22:20	22:37		23:05	23:24		00:08	00:43	KTX-산천

**KTX/KTX-산천 동해선 상행 From Pohang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포항 浦項	동대구 東大邱	김천(구미) 金泉(龜尾)	대전 大田	오송 五松	천안아산 天安牙山	광명 光明	서울 首爾	행신 幸信	비고 備考
Train NO.	Pohang	Dongdaegu	Gimcheon(Gumi)	Daejeon	Osong	Cheonan-Asan	Gwangmyeong	Seoul	Haengsin	Remark
232	05:37	06:18		07:00			07:42	07:59		KTX-산천
234	07:15	07:57	08:20	08:44	09:02		09:34	09:50		KTX-산천
236	09:59	10:40		11:22			12:07	12:28	12:45	KTX-산천
238	10:15	10:52		11:34	11:51	12:04	12:30	12:46		
298	10:41	11:22	11:45	12:10			12:53	13:09		금토일 KTX-산천
240	11:04	11:45		12:28		12:53	13:18	13:34		KTX-산천
24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월화수목 KTX-산천
292	12:37	13:14	13:37	14:02	14:19			15:03		금토일 KTX-산천
244	14:04	14:45		15:27	15:45	15:58	16:23	16:39		KTX-산천
246	15:37	16:14		16:56			17:39	17:55		
248	16:23	17:04	17:27	17:51	18:09		18:41	18:57		KTX-산천
250	18:00	18:37		19:19	19:36	19:49	20:15	20:31		
294	18:56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금토일 KTX-산천
296	19:00	19:37	20:00	20:24	20:42		21:14	21:30		월화수목 KTX-산천
252	19:22	20:03		20:45	21:02	21:15	21:41	21:57		KTX-산천
254	21:36	22:17		22:59		23:23	23:48	00:09	00:26	KTX-산천

**KTX-산천 강릉선 하행 From Seoul to Gangneung-Donghae**

열차번호 列車番號	서울 首爾	청량리 淸凉里	상봉 上鳳	양평 楊平	만종 萬鍾	횡성 橫城	둔내 屯內	평창 平昌	진부(오대산) 珍富(五臺山)	강릉 江陵	묵호 墨湖	동해 東海	비고 備考
Train NO.	Seoul	Cheongnyangri	Sangbong	Yangpyeong	Manjong	Hoengseong	Dunnae	Pyeongchang	Jinbu(Odaesan)	Gangneung	Mukho	Donghae	Remark
801	05:11	05:32	05:38		06:23			06:45		07:08			
803	06:01	06:22		06:49	07:12		07:28	07:38	07:48	08:05			
841	07:01	07:22	07:28	07:51	08:14	08:22		08:38	08:47	정동진 09:14	09:35	09:42	
851		07:50	07:56		08:39			09:00	09:09	09:26			토일
805	08:01	08:22		08:48	09:11	09:20	09:29	09:40		10:01			
853		08:45	08:51		09:34	09:43	09:53		10:08	10:25			토일
807	09:01	09:22	09:29		서원주 10:19	10:21		10:40		10:57			
881		09:45		10:11	서원주 10:30			10:55		정동진 11:27	11:48	11:55	금토일
809	10:01	10:22		10:48	11:11		11:26	11:37		11:58			
843	11:01	11:22	11:28	11:51	서원주 12:10	12:21		12:41		정동진 13:10	13:31	13:38	
855		12:05			12:53					13:30			금토일
883		13:00	13:06		13:49		14:04			정동진 14:45	15:06	15:13	금토일
811	13:01	13:22	13:28		14:11	14:20		14:36	14:45	15:02			
813	13:31	13:52		14:18	14:41		14:56			15:23			
815	14:01	14:22		14:48	서원주 15:07	15:19		15:34		15:56			
857		15:10		15:37	16:00					16:37			금토일
845	15:01	15:22	15:28		16:11	16:20	16:30		16:45	정동진 17:12	17:33	17:40	
859		15:50			16:37					17:14			금토일
817	16:01	16:25		16:51	17:14	17:23		17:38	17:47	18:04			
861		18:13	18:19		서원주 18:58			19:26		19:43			금토일
819	18:01	18:22		18:48	19:11	19:19	19:29	19:39	19:47	20:04			
847	18:31	18:52	18:58		19:41	19:56	20:06			정동진 20:38	20:59	21:06	
821	19:01	19:22	19:28	19:51	20:14	20:23	20:34	20:44		21:06			
863		19:55		20:22	20:45			21:09		21:26			금토일
885		20:15			21:03								

**KTX/KTX-산천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尔 Seoul	용산 龍山 Yong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익산 益山 Iksan	정읍 井邑 Jeongeup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401			05:10	05:25		05:55		06:23	06:39	06:58		07:29	KTX-산천
403			05:50	06:05	06:28	06:40		07:08	07:24	07:43	07:55	08:21	KTX-산천
471			06:12	06:27	06:50	07:02	계통 07:37	논산 07:55 08:18					KTX-산천
405	06:02	06:24	06:31	06:47		07:16 공주 07:33		07:51	08:07	08:26	08:36	09:01	
473		06:49	06:56	07:11	07:34	07:46	08:03						
491			07:40	07:55		공주 08:37		08:55		09:22			금토일
407	07:20	07:42	07:49	08:04		공주 08:46		09:04	09:20	09:39	09:49	10:14	KTX-산천
409			08:22	08:37	08:55	09:07		09:35	09:51	10:11	10:21	10:46	
411			09:22	09:37				10:30		10:57			
475			09:36	09:52	10:14	10:27	계통 11:01	논산 11:19 11:45	김제 11:57 12:13	장성 12:31 12:45	12:57	13:23	KTX-산천
477			10:10	10:26	10:48	11:01	계통 11:38	논산 11:56 12:21					KTX-산천
413		10:34	10:41		11:14	11:26		11:54	12:10	12:29	12:39	13:04	
415			12:20	12:35	12:58	공주 13:22		13:40	14:09	14:19	14:19	14:44	KTX-산천
417	12:18	12:40	12:47			13:27		13:55	14:11	14:30		15:01	KTX-산천
419	13:05		13:32	13:47	14:10			14:45	15:01	15:21	15:31	15:56	KTX-산천
421			14:49	15:04	15:27	공주 15:56		16:14	16:30	16:49		17:20	
423			15:36	15:51		16:21		16:49		17:18	17:28	17:53	
425			16:10					17:13		17:40			
427		16:38	16:45	17:00	17:23	공주 17:47		18:05	18:21	18:40	18:50	19:15	KTX-산천
481			17:12	17:28			계통 18:27	논산 18:45 19:10	김제 19:22 19:37	장성 19:56 20:10	20:22	20:48	
429		17:38	17:45			18:25		18:53		19:22	19:32	19:57	KTX-산천
483			17:50		18:23	18:48							
431			18:35	18:50	19:13	공주 19:37		19:55	20:11	20:29			
433		19:36	19:43	19:58		공주 20:44		21:02	21:18	21:37	21:47	22:12	
435			20:35	20:51	21:13	21:26		21:54	22:10	22:29	22:39	23:04	KTX-산천
485			21:11	21:27	21:49		계통 22:31	논산 22:49 23:13					KTX-산천
437			21:23	21:36		공주 22:18		22:36		23:03			
439	21:59		22:25	22:41	23:03	23:16		23:44	00:00	00:19	00:29	00:54	

**KTX/KTX-산천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행신 幸信 Haengsin	서울 首尔 Seoul	용산 龍山 Yong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오송 五松 Osong	공주 公州 Gongju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cheon	여천 麗川 Yeocheon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501			05:10	05:25		05:55		06:26	06:42	07:09			07:41	07:55	08:03	KTX-산천	
503	06:43	07:05	07:12	07:27	07:50	08:02	08:19		08:37	08:54	09:21		09:39	09:55	10:09	10:17	
581			07:45	08:00				계통 09:00	논산 09:18 09:42	09:59	10:26	10:36		11:00		11:19	
505			08:40	08:55		09:25	09:41		09:59	10:16	10:43	10:53	11:05	11:21	11:35	11:43	
507	09:26	09:48	09:55	10:11	10:34	10:46	11:03		11:23	11:40	12:07	12:17		12:41	12:55	13:03	KTX-산천
509			10:55	11:10	11:33	11:46	12:02		12:20	12:37	13:04		13:23	13:39	13:53	14:01	
587			12:15	12:30	12:53	13:05		계통 13:38	논산 13:56 14:21	14:37							KTX-산천
511			12:20	12:35	12:58		13:22		13:43	14:00	14:27	14:37		15:01		15:20	KTX-산천
543	12:18	12:40	12:47			13:27		13:58	14:14	14:41			15:12	15:26	15:34	토일 KTX-산천	
589			13:16	13:32	13:54			계통 14:35	논산 14:53 15:18	15:34						금토일	
513			14:12	14:28		14:57	15:14		15:31	15:48	16:15		16:47	17:01	17:09		
583			14:40	14:56	15:18			계통 16:00	논산 16:18 16:43	16:59	17:26		17:45	18:00	18:14	18:22	KTX-산천
515		16:38	16:45	17:00	17:23		17:47		18:10	18:27	18:54	19:04	19:15	19:31	19:45	19:53	KTX-산천
517		17:38	17:45			18:25			18:57	19:15	19:42		20:15	20:29	20:37	KTX-산천	
519	18:23		18:50	19:05	19:28		19:52		20:10	20:26	20:53		21:12	21:28	21:42	21:50	KTX-산천
521			20:05	20:21	20:43				21:19	21:35	22:02	22:12		22:36	22:50	23:58	
541			20:35	20:51	21:13	21:26			21:57	22:13	22:40		23:12	23:26	23:34	금토 KTX-산천	
523			21:50	22:05					22:57	23:14	23:41		00:12	00:26	00:34	KTX-산천	

**KTX-이음 중앙선 하행 From Cheongnyangni to Andong**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청량리 淸涼里 Cheongnyangni	양평 楊平 Yangpyeong	서원주 西原州 Seowonju	원주 原州 Wonju	제천 堤川 Jecheon	단양 丹陽 Danyang	풍기 豊基 Punggi	영주 榮州 Yeongju	안동 安東 Andong	비고 備考 Remark
701	06:00	06:26		06:49	07:06	07:21		07:42	08:02	
781	08:10			08:57	09:14	09:29		09:54	10:14	토일
703	09:00			09:47	10:04	10:18		10:32	11:03	
705	11:00	11:26	11:45		11:52	12:09		12:42	13:02	
707	14:00			14:47	15:05	15:19		15:33	16:04	
709	16:00		16:43		16:50	17:07		17:44	18:04	
711	19:00			19:48	20:05	20:19		20:44	21:04	
713	22:00	22:27		22:50	23:07			23:40	00:00	

**KTX/KTX-산천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2021년 7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나주 羅州 Naju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정읍 井邑 Jeongeup	익산 益山 Iksan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용산 龍山 Yongsan	서울 首尔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402			05:41	05:59	06:16		06:45	06:59	07:25	07:39			
404	05:25	05:52	06:02	06:21	06:40		공주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474					06:25 논산 06:50	계통 07:08 07:24		07:49	08:15	08:33		08:55	KTX-산천
472	05:37	06:04	06:14 장성 06:29	06:47 김제 07:02	07:16 논산 07:41	계통 07:59 08:15		08:40	09:06	09:22	09:27		
406	07:07	07:34	07:44	08:03	08:20		공주 08:38 08:56		09:30	09:44			
408	08:20	08:47	08:57	09:16	09:35		10:04	10:18	10:44	11:03		11:25	KTX-산천
476					09:05 논산 09:30	계통 09:48 10:04				11:05			KTX-산천
410	09:15	09:42	09:52		10:24					11:20	11:34		KTX-산천
412	10:03		10:37		11:06			12:02	12:21	12:21	12:26		
492			11:10		11:39		12:07	12:41	12:41	12:55			금토일
414			11:25	11:43	12:00		공주 12:18	12:44	13:23	13:28			
416	11:05	11:32	11:42		12:14		12:43	12:57	13:23	13:37			KTX-산천
478					13:10 논산 13:35	계통 13:53 14:09		14:29	15:03	15:17			KTX-산천
418	12:55	13:22	13:32	13:51	14:08		14:36		15:10	15:28	15:33		
420	13:53	14:20	14:20	14:49	15:06		공주 15:24 15:42		16:16	16:30			
422	14:33		15:07	15:25	15:45		공주 16:03		16:48	17:09	17:14		KTX-산천
424	16:00	16:27	16:37	16:56	17:13		공주 17:31	17:56	18:40		19:02		KTX-산천
426	17:03	17:30	17:40	17:59	18:18			18:54	19:20	19:34			KTX-산천
428			18:23		18:52		19:20		19:54	20:10	20:15		
484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월화수목 KTX-산천
484						19:07	19:26		19:59	20:15	20:25	20:42	금토일 KTX-산천
482	16:51	17:18	17:28 장성 17:43	18:01 김제 18:16	18:30 논산 18:55	계통 19:13 19:29	19:48	20:01	20:27	20:41			KTX-산천
430	18:02	18:29	18:39	18:58			공주 19:33 19:51	20:05	20:31	20:45			
432	18:52	19:19	19:29	19:48	20:05				21:01	21:15			
486						20:39	20:58	21:11	21:37	21:51			
434	19:52	20:19	20:29	20:48	21:08		공주 21:26 21:44		22:18	22:34	22:44	23:01	KTX-산천
436			21:00		21:29		공주 21:47		22:38	22:52			
438	20:55		21:28	21:47	22:06		22:35	22:49	23:33		23:55		KTX-산천
440	21:57	22:24	22:34		23:03			23:59	00:13				

**KTX/KTX-산천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ocheon	순천 順天 Sun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공주 公州 Gongju	오송 五松 Osong	천안아산 天安牙山 Cheonan Asan	광명 光明 Gwangmyeong	용산 龍山 Yongsan	서울 首尔 Seoul	행신 幸信 Haengsin	비고 備考 Remark
502	05:00	05:08	05:21	05:36		05:55	06:20	06:40		06:58	07:17	07:51	08:07	08:24	08:41	KTX-산천	
504	07:09	07:17	07:31		07:54	08:05	08:30	08:47									

ITX-새마을 경부선 하행 From Seoul to Bu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 a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대전 大田 Dae jeon	영동 永同 Yeong dong	김천 金泉 Gim cheon	구미 龜尾 Gumi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청도 淸道 Cheongdo	밀양 密陽 Miryang	구포 龜浦 Gupo	부산 釜山 Busan	비고 備考 Remark
1001	06:16	06:25	06:46		07:15		07:57	08:25	08:51	09:07	09:36	09:42	10:03	10:16 물금 10:34	10:43	10:55	
1021	07:04	07:13	07:34	07:53	08:06	08:27	08:51		09:42	09:58	10:27	10:33	경산 10:42	11:07	11:31 부전 11:48	신해운대 12:01	
1003	09:15	09:24	09:45		10:14	10:35	10:59	11:27	11:53	12:09	12:38	12:44	13:05		15:04 물금 15:22	15:31	15:43
1005	11:04	11:13	11:34	11:53	12:06		12:48		13:39	13:55	14:24	14:30	경산 14:39	15:49 물금 16:07	16:17	16:29	
1007	11:43	11:52	12:13	12:32	12:45	13:06	13:30	13:58	14:24	14:40 왜관 14:53	15:12	15:18		16:48	17:12 부전 17:27	신해운대 17:40	토일
1023	12:53	13:02	13:23		13:52		14:34		15:25	15:41	16:10	16:16					
1009	13:55	14:04	14:25	14:44	14:57		15:39	16:07	16:33	16:49	17:18	17:24	17:45	17:58	18:23	18:35	
1011	15:55	16:04	16:25		16:54		17:36		18:27	18:43	19:12	19:18			20:12	20:24	
1013	20:25	20:34	20:55		21:24		22:06		22:57	23:13	23:42	23:48		00:20	00:45	00:57	

ITX-새마을 경부선 상행 From Busan to Seoul

(2021년 7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부산 釜山 Busan	구포 龜浦 Gupo	밀양 密陽 Miryang	청도 淸道 Cheongdo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 cheon	영동 永同 Yeong dong	대전 大田 Dae 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 an	평택 平澤 Pyeong 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02	06:27	06:40	07:04	07:17	07:40	07:46	08:15	08:30		09:23	09:46	10:07		10:36	10:56	11:05	
1004	09:12	09:25	09:49	경산 10:14	10:25	10:31	11:00	11:15	11:42	12:10		12:51		13:20	13:41	13:49	
1006	11:34	11:47	물금 11:56 12:14		12:47	12:53	13:22	13:37		14:30		15:11	15:23	15:43	16:04	16:12	
1008	13:23	13:36	물금 13:45 14:03	경산 14:28	14:39	14:45	15:14	15:29	15:56	16:24		17:05	17:17	17:37	17:58	18:06	
1024	신해운대 13:51	부전 14:04 14:19	14:43		15:16	15:22	15:51	16:06		16:59		17:40		18:09	18:30	18:38	토일
1010	15:08	15:21	물금 15:30 15:48		16:21	16:27 왜관 16:45	16:59	17:14	17:41	18:09	18:32	18:53		19:22	19:43	19:51	
1012	17:16	17:29		18:03	18:26	18:32	19:01	19:16		20:09		20:50		21:19	21:40	21:48	
1022	신해운대 17:26	부전 17:39 17:54	18:18	경산 18:43	18:54	19:00	19:29	19:44	20:11	20:39	21:02	21:23	21:35	21:55	22:16	22:24	
1014	19:25	19:38	20:02		20:35	20:41	21:10	21:25		22:18	22:41	23:02		23:31	23:52	00:00	

ITX-새마을 호남선 하행 From Yongsan to Gwangju-Mok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a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계룡 鷄龍 Gye ryong	논산 論山 Nonsan	익산 益山 Iksan	김제 金堤 Gimje	정읍 井邑 Jeong eup	장성 長城 Jang s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나주 羅州 Naju	목포 木浦 Mokpo	비고 備考 Remark
1071	08:32	08:39	09:01	평택 09:20 09:33	09:53	10:20	10:36	10:54	11:20	11:32	11:47	12:05	광주 12:29			
1061	10:50	10:57	11:19	평택 11:38 11:51	12:11	12:38	12:54	13:12	13:38	13:51 신태인 13:59	14:08	14:26	14:40	14:50 함평 15:01	일로 15:14 15:23	
1073	13:27	13:34	13:56	평택 14:15 14:28	14:48	15:16	15:32	15:50 강경 15:59	16:19	16:32	16:46	17:04	광주 17:28			
1075	15:22	15:29	15:51	16:20		17:05	17:20	17:39 강경 17:48	18:07	18:20 신태인 18:28	18:37	18:55	광주 19:19			
1063	19:13	19:20	19:42	평택 20:01 20:14	20:34	21:01		21:32	21:58	22:11 신태인 22:19	22:28	22:46	23:00	23:10 함평 23:21	23:40	
1077	20:10	20:17	20:39	평택 20:58 21:11	21:31	21:58	22:14	22:32 강경 22:41	23:01	23:14	23:28	23:46	광주 00:10			

ITX-새마을 호남선 상행 From Gwangju-Mok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목포 木浦 Mokpo	함평 咸平 Ham pyeong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 songjeong	장성 長城 Jang seong	정읍 井邑 Jeong eup	김제 金堤 Gimje	익산 益山 Iksan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 ryong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72			광주 06:30	06:54	07:11	07:26	07:40	08:06	08:24	08:40	09:05	09:26 평택 09:38	09:58	10:18	10:25	
1074			광주 08:50	09:14	09:31	09:46	10:00	10:26	10:44	11:00		11:43	12:12	12:32	12:39	
1062	10:42 일로 10:52	11:04 나주 11:14	11:26	11:41	11:58	12:12	12:26	강경 12:46 12:55	13:26	13:26		14:09	14:39	14:59	15:06	
1076			광주 13:50	14:14	14:31	신태인 14:40 14:49	15:03	15:29		16:00	16:25	16:46 평택 16:58	17:18	17:38	17:45	
1064	17:42 일로 17:51	18:03 나주 18:13	18:25	18:40	18:57	신태인 19:06 19:14	19:28	강경 19:47 19:57	20:15	20:31		21:14 평택 21:26	21:46	22:06	22:13	
1078			광주 18:48	19:12	19:29	신태인 19:38 19:47	20:01	강경 20:20 20:30	20:48	21:04	21:29	21:50 평택 22:02	22:22	22:42	22:49	

ITX-새마을 전라선 하행 From Yongsan to Yeosu-Expo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an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계룡 鷄龍 Gye ryong	논산 論山 Nonsan	강경 江景 Gang gyeong	익산 益山 Iksan	전주 全州 Jeonju	남원 南原 Namwon	곡성 谷城 Gok seong	구례구 求禮口 Guryegu	순천 順天 Sun cheon	여천 麗川 Yeo cheon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비고 備考 Remark
1081	08:05	08:12	08:34	08:53	09:06	09:50		10:21	10:47	11:03	11:30	11:41	11:53	12:09	12:24	12:32		
1083	16:39	16:46	17:08	17:27	17:40	18:24	18:40	18:58	19:07	19:27	19:43	20:10	20:20	20:32	20:49	21:03	21:12	

ITX-새마을 전라선 상행 From Yeosu-Expo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여수엑스포 麗水엑스포 Yeosu-Expo	여천 麗川 Yeo cheon	순천 順天 Sun cheon	구례구 求禮口 Guryegu	곡성 谷城 Gok seong	남원 南原 Namwon	전주 全州 Jeonju	익산 益山 Iksan	강경 江景 Gang gyeong	논산 論山 Nonsan	계룡 鷄龍 Gye ryong	서대전 西大田 Seo daejeon	천안 天安 Cheonan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용산 龍山 Yongsan	비고 備考 Remark
1082	08:55	09:03	09:18	09:34	09:46	09:56	10:24	10:42	11:01	11:11	11:29	11:45	12:28	12:57	13:17	13:24	
1084	15:55	16:03	16:18	16:34	16:46	16:56	17:24	17:42		18:08		18:39	19:22	19:51	20:11	20:18	

ITX-새마을 경전선 하행 From Seoul to Jinju-Ma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서울 Seoul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천안 天安 Cheon a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대전 大田 Dae jeon	김천 金泉 Gim cheon	구미 龜尾 Gumi	왜관 倭館 Wae gwan	대구 大邱 Daegu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밀양 密陽 Mir yang	진영 進永 Jin yeong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창원 昌原 Chang won	마산 馬山 Masan	함안 咸安 Ham an	진주 晉州 Jinju	비고 備考 Remark
1031	08:53	09:02	09:23	09:52	10:13	10:37	11:28	11:44		12:13	12:19 경산 12:28	12:53	13:11	13:21	13:30	13:36	13:48	14:06	
1033	19:27	19:36	19:57	20:26	20:47	21:11	22:02	22:18	22:31	22:50	22:56	23:28	23:48	23:59	00:08	00:14	00:26	00:45	

ITX-새마을 경전선 상행 From Jinju-Masan to Seoul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진주 晉州 Jinju	함안 咸安 Ham an	마산 馬山 Masan	창원 昌原 Chang won	창원중앙 昌原中央 Changwon jungang	진영 進永 Jin yeong	밀양 密陽 Mir yang	동대구 東大邱 Dong daegu	대구 大邱 Daegu	구미 龜尾 Gumi	김천 金泉 Gim cheon	대전 大田 Dae jeon	조치원 鳥致院 Jochi won	천안 天安 Cheon an	평택 平澤 Pyeong taek	수원 水原 Suwo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서울 首爾 Seoul	비고 備考 Remark
1032	09:08	09:30	09:39	09:45	09:55	10:05	10:22 청도 10:35	10:58	11:04 왜관 11:22	11:36	11:51	12:44	13:07	13:28	13:40	14:00	14:21	14:29	
1034	15:47	16:09	16:18	16:24	16:34	16:43	17:00	17:33	17:39	18:08	18:23	19:16	19:39	20:00		20:29	20:50	20:58	

새마을호 장항선 하행 From Yongsan to Ik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Train NO.	용산 龍山 Yongsan	영등포 永登浦 Yeong deungpo	수원 水原 Suwon	평택 平澤 Pyeong taek	천안 天安 Cheon an	아산 牙山 Asan	온양온천 溫陽溫泉 Onyang oncheon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예산 禮山 Yesan	삼교 插橋 Sappgyo	홍성 洪城 Hong seong	광천 廣川 Gwang cheon	대전 大川 Dae cheon	웅천 熊川 Ung cheon	서천 舒川 Seo cheon	장항 長項 Jang hang	군산 群山 Gun san	익산 益山 Iksan	비고 備考 Remark
1051	09:40	09:48	10:11	10:31	10:51	10:58	11:07		11:25	11:33	11:44	11:59	12:16	12:27	12:40	12:45	12:53	13:11	
1053	11:52	12:00	12:23		12:59	13:06	13:15		13:32		13:47	14:00	14:17	14:28	14:41	14:46	14:54	15:12	
1055	13:45	13:53	14:16		14:52	14:59	15:08		15:25	15:33	15:48	16:01	16:18	16:29	16:41	16:47	16:54	17:12	
1057	15:30	15:38	16:01		16:37	16:44	16:53		17:10		17:26								

ITX-청춘 경춘선 평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靑凉里	상봉 上鳳	퇴계원 退溪院	사릉 思陵	평내호평 坪內好坪	마석 磨石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Sangbong	Toegyewon	Sareung	Pyeongnaehopyeong	Maseok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00			06:17				06:39			06:57		07:12	07:15	
2003	06:56		07:10	07:15				07:36	07:42		07:55		08:10	08:13	
2005	07:52		08:06	08:11				08:33	08:38		08:52		09:06	09:10	
2007	08:51	09:01	09:06	09:11				09:33			09:51		10:06	10:09	
2101	09:57			10:14							10:51		11:06	11:09	
2011	10:58	11:09		11:17				11:39			11:57		12:11	12:14	
2015	12:00	12:10		12:18				12:39			12:57		13:12	13:15	
2019	12:53			13:09				13:31		13:44	13:52	14:01	14:09	14:12	
2021	14:00			14:17				14:38			14:56		15:11	15:14	
2025	15:20			15:36				15:58			16:16		16:30	16:33	
2029	16:00			16:16				16:38		16:51	16:59	17:08	17:16	17:19	
2033	17:00			17:17				17:39			17:57		18:12	18:15	
2035	17:46		18:00	18:05	18:13	18:22	18:26	18:32	18:37		18:52		19:06	19:09	
2037	18:56		19:10	19:15	19:23	19:32	19:36	19:42	19:47		20:02		20:17	20:20	
2039	19:58		20:12	20:17	20:25	20:34	20:38	20:44	20:49		21:04		21:19	21:22	
2079	20:32			20:49				21:10		21:23	21:31	21:40	21:49	21:52	
2041	21:21			21:38				21:59			22:17		22:32	22:35	
2047	22:48			23:05				23:26			23:44		23:59	00:02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하행 From Yongsan to Chuncheon

열차번호 列車番號	용산 龍山	옥수 玉水	왕십리 往十里	청량리 靑凉里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평 淸平	가평 加平	강촌 江村	남춘천 南春川	춘천 春川	비고 備考
Train NO.	Yongsan	Oksu	Wangsimni	Cheongnyangni	Pyeongnaehopyeong	Cheongpyeong	Gapyeong	Gangchon	Namchuncheon	Chuncheon	Remark
2001	06:15			06:32	06:53		07:12	07:21	07:29	07:32	
2003	06:55		07:09	07:13	07:34	07:47	07:55		08:10	08:13	
2005	07:55		08:08	08:13	08:34		08:52	09:01	09:10	09:13	
2007	08:20			08:38	08:59	09:12	09:20		09:35	09:38	
2009	08:45	08:55	09:00	09:05	09:26		09:44	09:53	10:02	10:05	
2071	09:18			09:36	09:57	10:11	10:19		10:34	10:37	
2101	09:49			10:06			10:43		10:58	11:01	
2015	10:26			10:43	11:04		11:23	11:32	11:41	11:44	
2017	10:59	11:09	11:13	11:17		11:49	11:57		12:12	12:15	
2073	11:30			11:47	12:08		12:26	12:35	12:43	12:46	
2021	11:57	12:07	12:12	12:17		12:49	12:58		13:12	13:15	
2075	12:30			12:47	13:09		13:27	13:36	13:44	13:47	토
2025	12:58		13:11	13:15	13:37	13:51	13:59		14:13	14:16	
2077	13:30			13:47	14:08		14:27	14:37	14:46	14:49	토
2029	14:15			14:33	14:54	15:07	15:15		15:30	15:33	
2079	14:47			15:04			15:41	15:50	15:59	16:02	
2033	15:14			15:32	15:54	16:08	16:16		16:31	16:34	
2035	15:47			16:04	16:25		16:43	16:53	17:02	17:05	
2081	16:18			16:35		17:08	17:16		17:31	17:34	
2039	16:56			17:14	17:35		17:54	18:04	18:13	18:16	
2083	17:30			17:47	18:08	18:21	18:29		18:44	18:47	
2043	17:59			18:15	18:37		18:55	19:04	19:12	19:15	
2045	18:26			18:44		19:16	19:24		19:39	19:42	
2047	19:00			19:17	19:38		19:56	20:05	20:14	20:17	
2085	19:30			19:48	20:09	20:22	20:31		20:46	20:49	
2051	20:00			20:18	20:40		20:58	21:08	21:16	21:19	
2053	20:35			20:51		21:24	21:32		21:46	21:49	
2055	21:20			21:36	21:58		22:16	22:25	22:33	22:36	
2087	21:50			22:07		22:39	22:47		23:02	23:05	토
2059	22:05			22:21	22:43		23:01		23:15	23:18	

ITX-청춘 경춘선 평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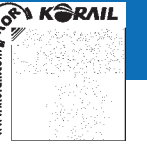
(2021년 7월 기준)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마석 磨石	평내호평 坪內好坪	사릉 思陵	퇴계원 退溪院	상봉 上鳳	청량리 靑凉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Maseok	Pyeongnaehopyeong	Sareung	Toegyewon	Sangb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8	06:12		06:27		06:41	06:47	06:53	06:57	07:06	07:14	07:19		07:33	
2004	06:54	06:58		07:13		07:27	07:33	07:39	07:43	07:52	08:01	08:06		08:20	
2074	07:24	07:28	07:37	07:46	07:54		08:07				08:30			08:48	
2006	08:12	08:16		08:30		08:45	08:51	08:57	09:01	09:10	09:19	09:24		09:37	
2100	09:21	09:25		09:40			09:58				10:20			10:37	
2014	10:23	10:27		10:42			11:00				11:22			11:39	
2018	11:14	11:18		11:33			11:51				12:13			12:31	
2020	12:10	12:14		12:29			12:47				13:10			13:25	
2024	13:15	13:19		13:34			13:52				14:14			14:29	
2028	14:06	14:10	14:19	14:28	14:36		14:49				15:11			15:27	
2032	15:29	15:33		15:48			16:06				16:28		16:36	16:46	
2034	16:12	16:16		16:31			16:49				17:12		17:20	17:30	
2102	17:01	17:05		17:20		17:34					17:59	18:03		18:17	
2038	18:14	18:18		18:33		18:47	18:52				19:14	19:19	19:24	19:33	
2040	18:54	18:58		19:13			19:31				19:53	19:58		20:12	
2078	19:39	19:43	19:52	20:01	20:09		20:22				20:45			21:01	
2046	21:12	21:16	21:25	21:34	21:42		21:55				22:17			22:33	
2048	22:14	22:18		22:33			22:51				23:13			23:28	

ITX-청춘 경춘선 주말·공휴일 상행 From Chuncheon to Yongsan

열차번호 列車番號	춘천 春川	남춘천 南春川	강촌 江村	가평 加平	청평 淸平	평내호평 坪內好坪	청량리 靑凉里	왕십리 往十里	옥수 玉水	용산 龍山	비고 備考
Train NO.	Chuncheon	Namchuncheon	Gangchon	Gapyeong	Cheongpyeong	Pyeongnaehopyeong	Cheongnyangni	Wangsimni	Oksu	Yongsan	Remark
2002	06:06	06:10	06:19	06:28		06:46	07:09			07:25	
2004	07:07	07:11	07:57	07:26	07:34	07:47	08:10			08:26	
2072	07:44	07:48	07:57	08:06		08:24	08:48			09:05	토
2006	08:12	08:16		08:31	08:39	08:52	09:15			09:31	
2008	08:47	08:51	9:00	09:09		09:27	09:50			10:07	
2010	09:32	09:36		09:51	09:59		10:34			10:49	
2074	09:52	09:56	10:05	10:14		10:32	10:55			11:11	
2014	10:22	10:26		10:41	10:49		11:23			11:39	
2076	10:49	10:53	11:02	11:11		11:29	11:51			12:08	토
2018	11:25	11:29		11:44	11:52		12:25			12:43	
2078	11:53	11:57	12:06	12:14		12:32	12:53			13:10	토
2022	12:28	12:31		12:46	12:54	13:07	13:30			13:46	
2080	13:11	13:15	13:24	13:33		13:51	14:14			14:30	
2026	13:38	13:42		13:57	14:05		14:39			14:56	
2028	14:05	14:09	14:18	14:27		14:45	15:07			15:24	
2082	14:50	14:54		15:08	15:16	15:29	15:52			16:08	
2032	15:07	15:11	15:20	15:30			16:09	16:14	16:18	16:28	
2084	15:52	15:56		16:11	16:19	16:32	16:55			17:12	
2036	16:15	16:19	16:28	16:37		16:55	17:19	17:23	17:28	17:38	
2102	16:55	16:59		17:14			17:52			18:08	
2040	17:26	17:30		17:45	17:53	18:06	18:29			18:44	
2086	17:55	17:58	18:07	18:16		18:34	18:56			19:12	
2044	18:25	18:28		18:43	18:51		19:26	19:31	19:35	19:45	
2046	19:00	19:04	19:13	19:22		19:40	20:02			20:18	
2048	19:34	19:38		19:53	20:01	20:14	20:37	20:42		20:55	
2088	20:00	20:04	20:12	20:21		20:39	21:02			21:19	
2052	20:30	20:34		20:49	20:57	21:10	21:33	21:38		21:52	
2054	21:15	21:19	21:28	21:38		21:56	22:20			22:36	
2056	21:48	21:52		22:06	22:14		22:48	22:51		23:05	
2058	22:13	22:17		22:34		22:53	23:16			23:32	

열차 시간은 운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객실 | Passenger Compartment

**KTX 93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특실 서비스 | First Class Service

**KTX 1120mm**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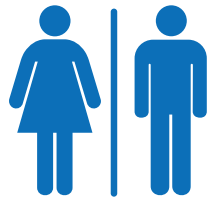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편의 시설 |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승강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심장박동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줘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계입니다.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 (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s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 부가 서비스 | Optional Services

### KTX 셔틀버스 8507번 길라잡이

- ※ **사당역~광명역 간 직통 운행**  
사당역 탑승 시 사당역 4번 출구 앞 → 광명역 서편(상징광장) 정류소  
광명역 탑승 시 광명역 전용 라운지 →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 → 사당역 3번 출구 앞
- ※ **운행 시간** 오전 5시~자정(광명역 출발 막차 밤 11시 30분) / **배차 간격** 10분
- ※ **대중교통 환승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을 적용해 기존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할인 가능
- ※ **비용 절감** 서울역과 비교해 광명역에서 KTX를 이용하면 2100원 절약

###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길라잡이

- ※ **탑승 수속**  
**이용 시간** 오전 6시 30분~오후 7시  
**탑승 수속 마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대한항공 항공기 출발 3시간 20분 전)  
**수속 가능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서울,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수속 가능 노선** 인천국제공항 출발 국제선 전 노선
- ※ **출국 심사**  
**이용 시간** 오전 7시~오후 7시  
**출국 심사**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출국 심사 가능

※ 코로나19 여파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중단합니다.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선불 전국 호환 교통카드**
- ※ **사용처** 지하철, 버스, 기차, 택시, 고속도로, 편의점, 주차장 등
- ※ **구입 및 충전** 역 매표 창구, 지하철 무인 기기, 스토리웨이 매장, 이마트24 등
- 청소년·어린이 할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연계 리무진**

승차권 구입 전국 고속철도역, 여행사, 인천공항 철도 안내데스크

승차장 서울역 서편 전용 정류장, 용산역 1번 출구 건너편 환승 정류장,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전용 정류장



**주차 대행 서비스 위치**

광명역 서편 1번 출구 맞은편 A주차장



**수하물 택배 서비스**

열차 이용 시 휴대하기 불편한 짐을 할인된 택배 요금으로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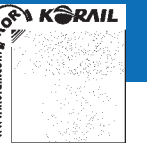
**신청 및 접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문의 1588-0011

### KTX 특송

급송이 필요한 고객의 화물을 KTX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배송품은 주요 고속철도역에서 접수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퀵서비스를 연결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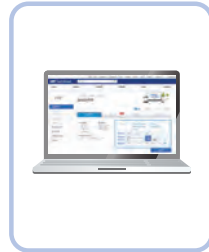
**취급역** 서울, 울산,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동대구, 울산, 마산, 부산, 익산, 전주, 목포, 광주송정, 여수엑스포, 포항

문의 1544-7781



##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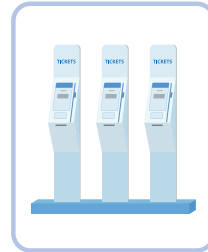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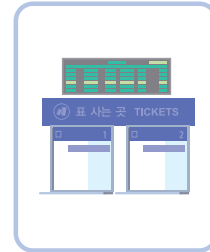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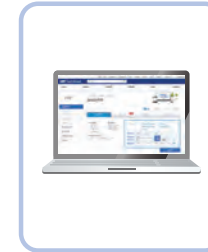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카카오T'  
스마트폰 앱

##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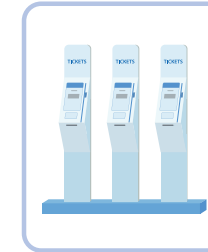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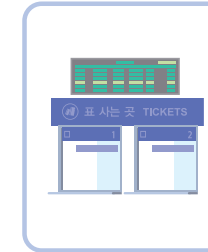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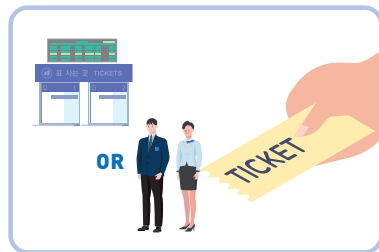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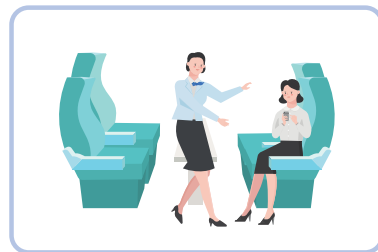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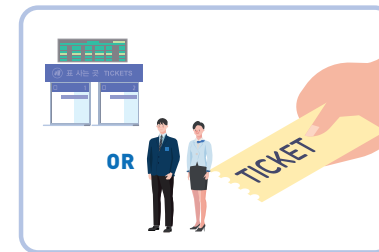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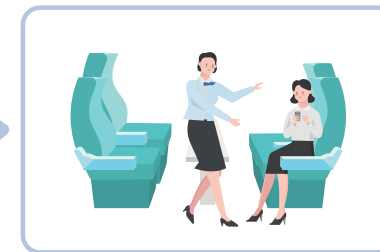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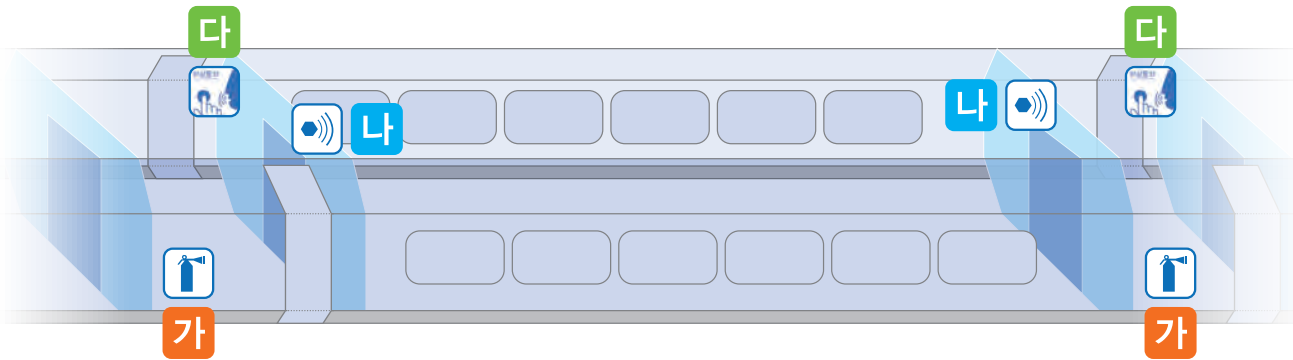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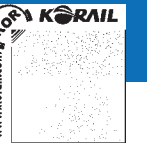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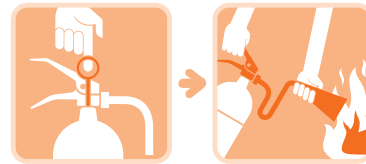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 –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 – 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 – 60 minutes	60 minutes – 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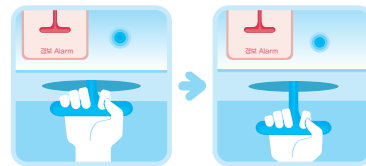
##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하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 나 비상 알림 장치 Emergency Alarm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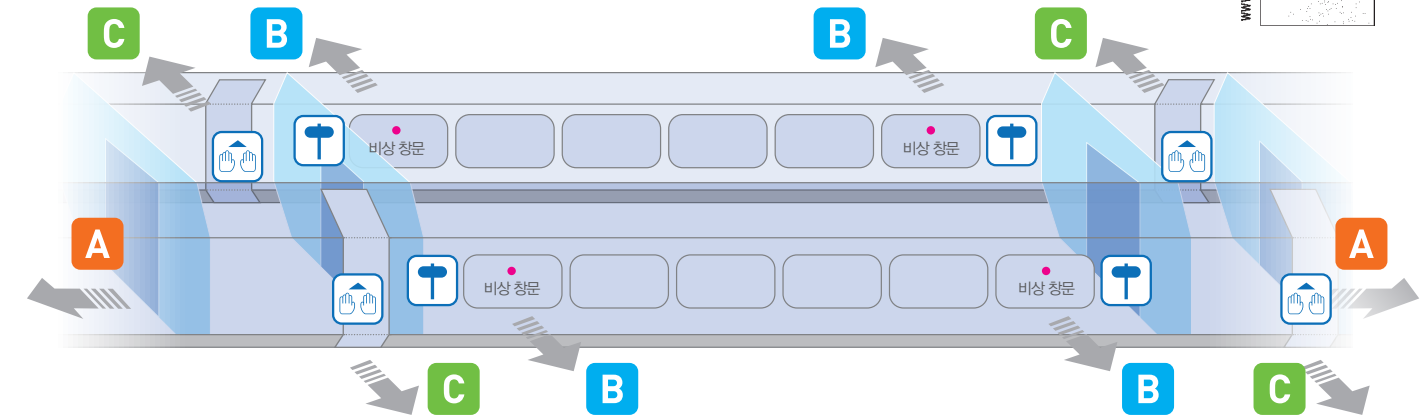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정호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KT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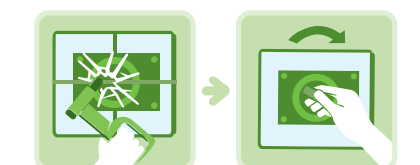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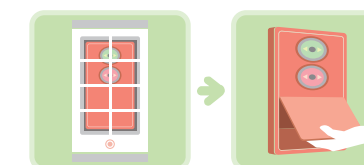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정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 연천, 사람

취재 현장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는다. 지자체 주무관님, 문화관광 해설사님과 상위 0.0911퍼센트 길치인 나에게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낯모르는 분 등. 경기도 연천에서 서성철 해설사님께 백학역 사박물관과 조각상 '그리팅맨', 호로그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팅맨'이 놓인 옥녀봉에서, 선생님은 조금 가면 개안마루가 있다면서 가자 하셨다. 사전에 그렇게 조사했는데 개안마루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연천 주민에게도 낯선 곳, 가지 않았다면 이번 '테마 여행' 기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개안마루에 선 돌의 뒷모습을 규철 실장님이 담으셨다. 카페에 들어가서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었다. 선생님은 접경 지대인 연천에서 치열하게 산 주민들을 인터뷰하셨다. 그리고 종종 눈물이 쏟아질 만큼 애달픈 사연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고 계셨다. 왜냐고 물었고 당연한 대답이 돌아왔다. 지워지면 안 될 역사이기 때문이다. '도움 주신 분'에 쓴 진나라 대표님도 마찬가지. 사람이 꽃처럼 아름답다 느낀 시간이었다. 실은 우리의 매일이 그렇지 않을까. **김규보**

### 출렁다리 3중 세트 후기

이달까지 출렁다리를 세 번 건넜다. 강원도 동해 추암해변에 개통한 추암출렁다리가 난생처음 가 본 출렁다리고, 그다음이 지난달의 강원도 원주 소금산출렁다리. 그리고 이달 '슬로 여행' 촬영 덕분에 갔다 온 충남 예산 예당호출렁다리. 의도한 바는 아니나 바다, 산, 호수 위에 놓인 출렁다리를 두루 경험해 보고 나니 출렁다리에 대해 제법 잘 아는 기분이다. 그래서 셋 중 어디가 제일 무섭냐고 물으신다면~ 가장 높은 소금산출렁다리를 꼽겠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않는 편인데도 아래를 보는 순간 아찔할 것 같아 시선을 저 멀리 산에 두고 걸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추암출렁다리에서는 바다를 볼 수 있다. 발아래로 칠색이는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이 멋스럽다. 다리도 꽤 많이 흔들렸던 기억이^^ 스릴은 사랑입니다~ 출렁다리에 입문하고 싶거나 출렁다리가 조금 겁나는 분은 예당호출렁다리를 적극 추천한다. 내진 설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편안하게 흔들린다. 예당호 풍경도 마음에 쏙 든다. 오늘은 여기까지~ 후기 끝! 출렁다리 잘 아셨쥬? **이내경**



### 편집 후기가 "길을 잃었다~"

1. 이달엔 취재하러 경북 청송, 경남 거제, 전남 나주에 다녀왔다. 장소마다 하루씩 총 3일 동안 이동 시간을 합하면 스무 시간. 길 위에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때면 머릿속에 god의 '길'이 자동 재생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 아니면 S.E.S.(혹은 윤상)의 '달리기'를 흥얼거린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 다행히 길을 헤매진 않아서 "길을 잃었다~"로 시작하는 아이유의 '분홍선'을 부를 일은 없었다. 2. 최근 가스라이팅의 유래와 사례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가스라이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3. 좋은 사람이 모여 좋은 세상, 좋은 여행지를 만든다는데 아직 길 길이 멀다. 지금이 2021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하루빨리 시국이 마무리될 길! 만료된 여권을 슬슬 재발급해야겠다. 4. 올해도 특별 부록 작업에 참여했다. 만들 땐 힘들어도 결과물을 보면 뿌듯하다. 여름 휴가지만 고민된다면 매거진 특별 부록을 펼쳐세요! **진주영**

### 돌멩이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세요?

강원도 양양 낙산사를 취재했다. 사찰을 둘러보는 동안, 주위에서 왜 그렇게 낙산사가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정말×백만스물하나만큼 좋았다. 하나하나 나열하면 손가락 아플 것 같지만, 가 본 사람보다 안 가 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하나하나 적어 보겠다. 먼저 흥예문으로 향하는 소나무 길, 바삭한 흙길(필요한 곳에만 계단이 있어 산책하기 최고다), 원통보전과 칠층석탑을 둘러싼 예쁜 담장, 의상대에서 바라본 풍경, 칠색이는 파도 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흥련암... 제발, 낙산사 안 가는 사람 없게 해 주세요ㅠㅠ 기사에 썼듯, 조만간 일출 보러 의상대에 다녀올 예정이다. 우리가 낙산사에 갈 그날이 머지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사찰 곳곳에 있는 연두색 '소원 리본'. 대부분 행복이 주저였으나 돌멩이로 태어나고 싶은 분이 쓴 글을 봤다. 나도 하나 적고 올걸... 진짜 가야겠다, 낙산사에. +1박 2일 동안 수고하신 규열 실장님, 출장에 동행해 그 못지않게 수고하신 강효명 작가님, 감사합니다. **표다정**



**KTX**  
기차 여행의 친구, KTX매거진

# 연천

눈과 마음을 열어 주는  
장관의 향연

